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 방안

-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권호종 외

| 연구수행자 |

연구책임자	권호중(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강경화(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강사)
	김용환(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한양허(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

■ 국문요약	7
■ 요약문	8

I. 서론 • 21

II. 문화도시 개념 • 23

1. 주요이론	23
2. 구성요소	26

III. 문화도시 사례 • 29

1. 국외사례	29
2. 국내사례	48

IV. 진주 도시분석 • 75

1. 문화환경	75
1) 인문환경(人文環境)	80
2) 예술환경	94
3) 체육환경	114
2. 자연환경(自然環境)	121
3. 도시정책(都市政策)	122

V.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 128

1. 한국형 문화도시 개념	128
2. 조성 프로그램	128
1) 강좌 프로그램	131

2) 체험 프로그램	136
3) 양성 프로그램	140
4) 문화공간 프로그램	143

VI.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방안 • 147

1. 조례제정	147
2. 체계구축	148
1) 추진전략	148
2) 추진체계	149

VII. 결론 • 150

■ Abstract	151
■ 참고문헌	153

| 요약 |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 방안

-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진주’를 대상으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조성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연구 내용은 문화도시 개념, 국내외 문화도시 사례, 진주 도시분석,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실현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세부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고 사료된다.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한국형 문화도시’는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자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술자산, 일상에 밀착된 생활체육의 융합을 통해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이 일상에 내면화된 건강한 도시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거나 축제·이벤트를 활용하는 기존 문화도시 만들기 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동체의 인간성 회복과 실질적인 삶의 질 고양에 맞추어져 있다. 기존 문화도시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파악한 장점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고 우리 전통의 가치들에 접목하여 문자 그대로 ‘한국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형 문화도시』모델의 확대시행을 통한 ‘문화 대한민국’의 실현 가능성과 그 전망도 타진하였다.

연구대상 도시인 진주는 수려한 자연환경, 잘 정비된 문화기반시설, 풍부한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소재, 활성화된 지역축제, 특화된 지역성, 문화도시 지향의 정책 등 문화도시로서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지자체의 시정방침,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융합된다면 진주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틀을 활용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실현, 그리고 각 문화도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인문정신과 문화로 통합된 ‘문화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요 약 문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수치와 질적으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질적 성장 속에 인성 파괴, 인명 경시, 인간 소외의 경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이 초래한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인간다움의 상실'이라는 근원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인간다움의 회복', 즉 인간과 그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와 그 안의 배려, 관용, 나눔, 존중, 소통 등과 같은 가치들을 복원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용과학의 중심 속에 간과해 왔던 인문학과 인문정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인문정신의 가치정립과 확산'을 문화융성을 위한 8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상정하여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 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련의 인문 분야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과 더불어 '삶의 터전'으로서 공동체와 도시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각 개인의 존재와 그 삶의 가치가 존중되고 물질과 기타 사회적 관계로 인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시민사회, 소통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영위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도시와 도시 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현행 문화도시 구상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유관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문화도시와 차별화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는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술자산, 일상에 밀착된 생활체육의 융합을 통해 인문·예술·체육이 생활 속에 내면화된 건강한 도시이다.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진주'를 대상으로 『한국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설계하고, 건강한 시민공동체와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할 사업체계와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연구의 초점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거나 축제·이벤트를 활용하는 기존 문화도시 만들기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동체의 인간성 회복과 실질적인 삶의 질 고양에 맞추어져 있다. 기존 문화도시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파악한 장점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고 우리 전통의 가치들에 접목하여 문자 그대로 '한국형 문화도시'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형 문화도시』모델의 확대시행을 통한 '문화 대한민국'의 실현 가능성과 그 전망도 타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개념

주요이론

문화도시 개념은 플로리다(R. Florida), 랜드리(C. Landry), 사사키 마사유키 등 대표적 이론가들이 주창한 ‘창조도시론(創造都市論)’과 뚜렷한 이론적 출처는 없지만 도시행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도시론’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을 혼합하거나 또 다른 개념들과도 접목시킨 창의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등도 등장하고 있다.

문화도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도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도시 계획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문화도시는 <표1>에서처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도시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도시 구성원들이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며, 그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된 도시를 가리킨다. 더불어 기초적인 생활의 측면이 충실히 고려된 도시이다. 요컨대 문화도시란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살고 싶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문화도시 정의

연구자	정의
임학순 (1996)	개성과 역사를 살린 도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 아름답고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도시, 도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되는 도시
황동열 (2000)	문화지구, 문화거리, 도시문화벨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갖춘 도시
이홍재 (2001)	최소한의 생존 생활환경 및 사회활동을 위한 환경을 보유한 도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2)	기본이 바로 선 도시, 도시정체성을 지닌 도시,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문화도시를 위한 접근이 문화적인 도시
임상오 (2004)	문화적인 도시지향,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재의 지속적인 창조, 유통, 소비가 되는 도시
김효정 외(2004)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
라도삼 (2006)	역사성, 공동체성, 도시미학, 새로운 생산력 및 지속가능한 동력을 갖춘 도시
전영옥 (2006)	도시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도시

구성요소

문화도시가 구비해야 할 요건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도시의 판별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특색 있고 풍부한 문화유산, 문화예술 지향의 도시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화도시를 조성한 성공적인 사례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를 조성하였다. 둘째,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문화'의 적극적인 장려와 활용이 이루어졌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개발, 보존하거나 새로운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향유의 여건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활성화하였다. 넷째, 도시의 조성과정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단일건물보다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문화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역사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이 함께 수반되고 있다.

문화도시 사례

국외사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선정기준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의 유형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외에 문화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즉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환경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며 문화도시도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다. 문화도시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성화의 형태에 따라 '문화예술지향형', '커뮤니티형', '도시경영형', '문화창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예술지향형'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 및 저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 및 도시인프라 개선을 통해 문화도시로 재정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커뮤니티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이 이뤄지는 유형이다. 커뮤니티는 도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하나의 주체이자 활동의 중심이 되며 커뮤니티형에서는 도시마케팅의 개념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지향적 성격이 강조된다. '도시경영형'은 도시활성화를 지향하며 도시마케팅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창조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역량 및 가능성을 부각하며

과거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문화를 통해 개선한다. 문화창출형은 문화산업 생산에 풍부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탈대량생산과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추어 안으로 부터의 발전을 통해 자족적인 도시문화를 형성한다.

〈표2〉 문화도시 유형

방향	구분	내용	주요도시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지향형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 및 저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지원 및 도시인프라 개선	코펜하겐 동경 런던
	커뮤니티형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조성 -커뮤니티는 도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하나의 주체이자 활동의 중심임 -도시마케팅의 개념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지향적 성격	쿠리치바 어바인 프라이부르크
도시 활성화	도시경영형	-문화적·창조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역량 및 가능성 부각시킴 -도시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로써 개선 -퇴락하는 산업공업도시에 새로운 이미지 부여 -새로운 문화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이미지 부각 -문화축제, 이벤트 등을 통한 도시홍보	빌바오 구마모토 싱가포르 토론토 리버풀
	문화창출형	-풍부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탈 대량생산, 혁신적이고 유연한 문화산업 중심의 도시경제시스템을 정립 -내발적 발전을 통한 자족적 도시문화형성	가나자와 볼로냐

국내사례

국내에서 문화도시담론은 국민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진 2000년 이후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가 광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자체 수준의 관심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이 공약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문화도시 조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의 실현 목적이 강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과거의 산업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정체성 형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 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 중심도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같은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와 문화도시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저마다 문화도시임을 표방하면서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고 각종 지역축제를 벌이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문화거점도시'사업은 본질적으로 도시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인자로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정치적 계산과 갈등이 복잡하게 뒤얽힌 채 추진되어 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문화토양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생성하여 이를 통해 경제 사회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진주 도시분석

진주는 경상남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는 335,502명이며 총면적은 712.84 km²이다. 1925년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진주는 경남의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도시의 연원은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도시명은 고려 태조 23년(940년)부터 사용되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물산으로 인해 '북평양 남진주'로 일컬어져 왔다.

문화환경

진주는 도시 전역에 깊은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역사유적지와 유물, 스토리텔링 소재들이 산재해 있다. 종합예술공간인 경남문화예술회관, 전통예술 공연과 전수의 장인 전통예술회관, 국립진주박물관을 포함한 5개 박물관, 5개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강주연못공원 외 8개 시민공원 등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적인 공간도 잘 갖추어져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문화 예술행사의 효시인 개천예술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진주가 보유한 역사성과 다채로운 문화유산, 인구대비 높은 학생 비율과 다수의 고등교육기관, 전국적 명성의 지역축제 등은 역사와 총절, 교육,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자연환경

진주는 도심을 가르는 남강, 덕천강과 경호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진양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월아산, 둘레길이 조성된 비봉·망진·가좌·선학산 등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정책

진주시는 2013년 4대 시정방침으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함께 웃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인재육성 미래도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실천방향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 확충,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천년역사와 전통의 격조 높은 문화 발전, 진주 중심의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표4〉 진주 도시환경

구 분		내 용	
문화 환경	인문환경	유적지	진주성, 진주향교, 대각서원, 평거동 고려고분군 외 다수
		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향토민속관, 경상대학교 부속박물관, 산림박물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물문화관
		도서관	연암도서관, 진양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전문도서관, 비봉어린이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
		기타관련시설	진주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시조문학관
		관련유산	청곡사 영산회괘불탱, 용암사지부도, 단성석조여래좌상, 삼선암 고려동종, 진양부 권군신도비, 벽오당 현판 외 다수
		관련행사	진주논개제, 이형기 문학제, 개천문학상
	예술환경	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예술유산	진주 검무, 교방굿거리춤, 한량무, 포구락무, 진주오광대
		기타관련시설	남가람 문화거리, 인사동 골동품거리, 젊음의 광장,
		관련행사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이상근 국제음악제,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골목길 아트페스티벌, 진주탈춤한마당
	체육환경	경기시설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스포츠파크, 진주생활체육관,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외 다수
		체육공원	망진산 체육공원, 비봉산 체육공원, 선학산 체육공원, 석갑산 체육공원, 숙호산 체육공원, 가좌산 체육공원
		기타관련시설	강변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련행사	진주민속소싸움대회, 진주둘레길걷기대회, 강변자전거축제
자연환경	남강, 진양호, 월아산, 비봉산, 망진산, 가좌산, 선학산		
도시정책	활력있는 경제도시(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웃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인재육성 미래도시		

이처럼 진주는 수려한 자연환경, 잘 정비된 문화기반시설, 풍부한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소재, 활성화된 지역축제, 특화된 지역성, 문화도시 지향의 정책 등 문화도시로서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지자체의 시정방침,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삼위일체 된다면 진주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한국형 문화도시 개념

지금까지 도시개발은 인간을 위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경제의 논리로서 인문적 요소들을 파괴시켰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시를 채우는 작업에만 치중하였다. 그 결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이 피폐해짐으로써 다양한 사회 병리현상들이 발생되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인문학에서 찾고자 한다. 인문학은 인간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인문학은 개인적 삶의 궁극적 목적이나 이상, 사회 발전의 근본 목표와 가치를 설정한다. 인간성, 도덕적 개념, 가치와 믿음의 문제 등 인간과 그 삶의 전반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개인과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으로 둔 '한국형 문화도시'는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자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술자산, 일상 에 밀착된 생활체육의 융합을 통해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이 일상에 내면화된 건강한 도시를 의미한다.

본질적인 것은 '인간다움'의 정신 속에 도시와 그 삶의 양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제(誥) 관계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생태계를 보존하며 특정한 이미지가 도시를 상징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굴·생성된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성장의 동력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토양을 일신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조성 프로그램은 단순히 문화를 활용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그 안에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발상과 전략, 이를 수행하는 계획을 담는 것이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인문정신의 고양과 확산을 통해 인성 회복과 현실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 지역이 보유한 특유의 문화자산을 개발·보존·활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문화, 관광 및 관련 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향유 여건을 제고한다.
- 타 지역과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한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조성은 기존 문화도시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파악한 장점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고, 인문학과 인문정신의 가치를 접목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상실해 온 우리 전통의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거나 축제·이벤트를 활용하는 전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도시개조운동이자 재생운동이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은 강좌·체험·양성프로그램, 문화공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를 문화적으로 운용할 소프트웨어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그 중심에 강좌·체험·양성프로그램이 있다. 문사철(文史哲)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술, 일상에 밀착된 생활체육이 융합된 강좌·체험·양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폐한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의 기본틀은 <표5>와 같다.

<표5>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프로그램

분류	대상	내용
강좌 프로그램	청소년	인문: 청소년 인문교실, 어린이박물관학교, 청소년독서교실 예술: 청소년 시네마 아카데미, 찾아가는 예술교실 체육: 청소년건강교실, 방과후 체육교실
	성인	인문: 시민인문강좌, 시민형평학교, 시민유교대학 예술: 시민예술강좌, 클래식 토크 체육: 시민건강교실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문예현장탐방: ‘이형기 체험시 백일장’, 이상근 메모리 콘서트, 역사유적답사: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진주목 관아 체험, 진주성역사투어 선현사상체득: 진주향교 어린이 서당, 남명철학캠프 전통예술재현: 진주오광대놀이교실, 청소년전통예술학교 생활체육활동: 진주둘레길걷기대회, 주말체육대항전
	성인	문예현장탐방: 설창수문학기행, 이성자예술탐방 역사유적답사: 진주박물관대학, 시민역사기행, 진주성 경상우병영 체험 선현사상체득: 덕천서원 남명철학교실, 형평역사캠프 전통예술재현: 시민전통예술학교(진주검무, 한량무, 교방굿놀이춤) 생활체육활동: 남강자전거축제, 남강마라톤대회, 진주생활체육한마당
양성 프로그램	성인	문화 전문인력 양성(학문후속세대):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시민강사양성(퇴직교원, 문화해설종사자): 시민인문강좌 시민예술가 양성(아마추어예술애호가): 진주예술아카데미

강좌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은 문학·역사·철학·예술·건강 등과 관련한 주제로 구성한다. 강좌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물질적 성장과 발전의 틀 속에 매몰된 '인간다움'과 '인간다운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전문가 집단이 일반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발전을 꾀한다.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은 '문예현장탐방', '역사유적답사', '선현사상체득', '전통예술재현', '생활체육활동'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함께 즐기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립한다. 또한 자발적인 인문예술체육활동을 촉진하여 도시의 창조성을 제고한다.

양성 프로그램

양성 프로그램은 학문후속세대로서 문화전문인력 양성, 퇴직교원이나 미취업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사 양성,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양성 인력은 문화도시 사업에 활용하고, 도시의 창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와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짐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선순환구조가 정립될 수 있다.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방안

조례제정

한국형 문화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條例)(가칭)'를 제정하여 사업의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한국형 문화도시의 정의, 적용범위, 지자체장과 시민의 책무,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추진

체계의 핵심인 문화도시협의회와 문화도시센터(CCC: Cultural City Center, 가칭)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 사업전반을 관장할 문화도시협의회와 그 산하기관으로 실무를 총괄할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용 방안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와의 긴밀한 논의 속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구축

한국형 문화도시의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체계를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추진전략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사업의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인문정신을 도시계획의 근간으로 상정한다.
-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민관산학연(民官産學言)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한 물리적 환경조성보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집중한다.
- 지역 내 산재한 인문·예술·체육 자산과 지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양질의 일자리와 콘텐츠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추진체계

- ‘문화도시협의회(가칭)’가 문화도시 사업 전반을 관장한다.
- ‘문화도시협의회’는 민관산학연 대표인사로 구성한다.
- ‘문화도시협의회’ 산하에 ‘문화도시센터(가칭)’를 설치한다.
-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사업의 실무를 총괄한다.
- ‘문화도시센터’ 산하에 인문·예술·체육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각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의 개발·실행·보완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우리의 상황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문화도시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물질만능과 무한경쟁의 사회 기조가 강화되어 가는 만큼 우리 안의 인간다움과 고유의 공동체성은 파괴되고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은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인문학과 인문정신에서 찾고자 하였다. 인문학적 가치의 토대에 기존 문화도시의 장점들을 접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였다. 기존의 도시만들기가 정치적·행정적 고려를 배경으로 소수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한국형문화도시는 사회 전 계층의 동의와 관심 없이는 조성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스테레오 타입의 도시가 만들어질 뿐이다. 한국형 문화도시는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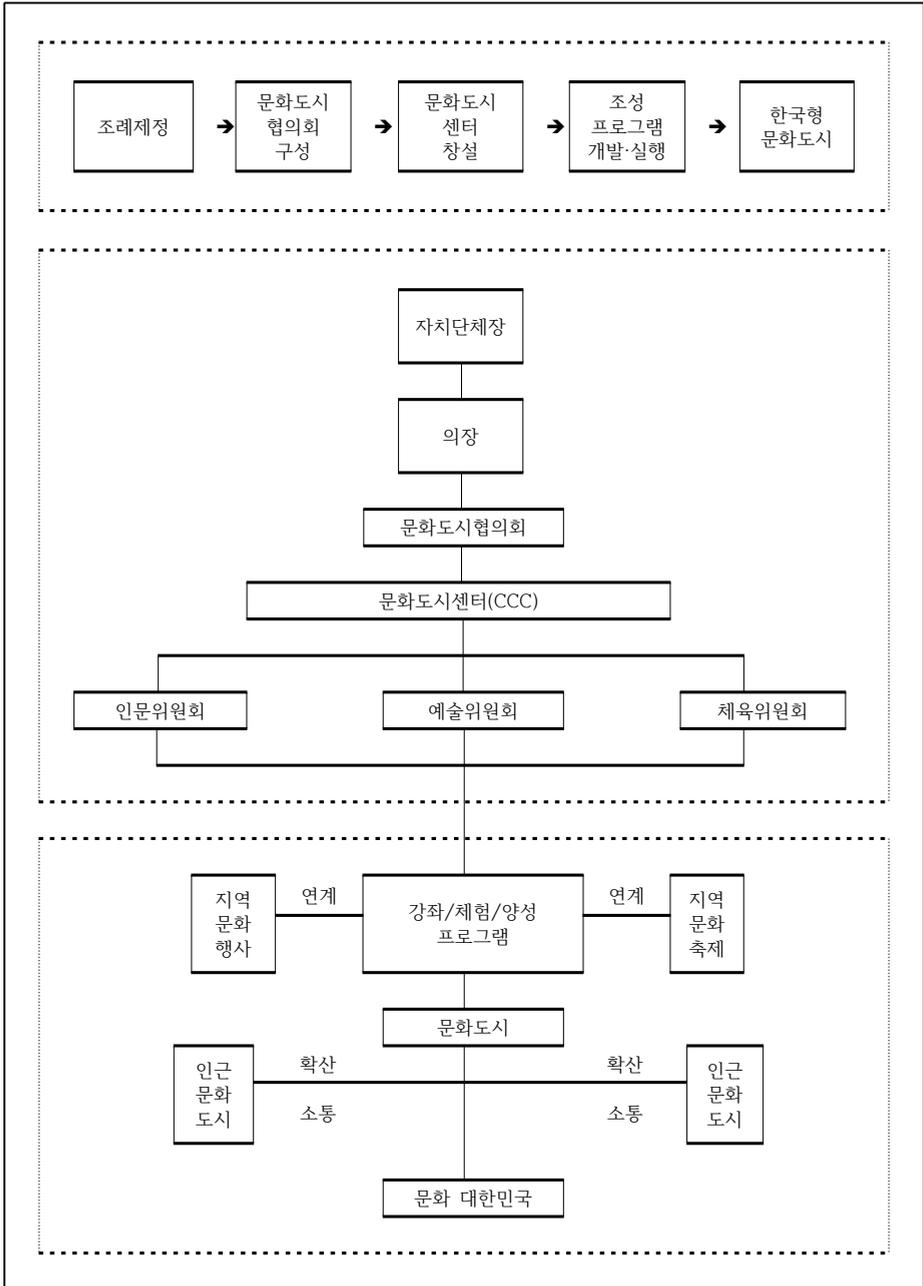
본 연구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조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기대 효과

- 인문정신 함양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인성 회복
- 훼손된 우리 고유의 전통 공동체 문화 복원
- 계층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경쟁의 경향 속에 발생한 다양한 사회 병리현상 치유
-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구현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생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재창조해 낸다면 상기한 성과들을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문화도시의 실현과 도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인문정신과 문화로 통합된 '문화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표6〉 한국형 문화도시 추진 체계



I. 서론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수치와 질적으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질적 성장 속에 인성 파괴, 인명 경시, 인간 소외의 경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이 초래한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인간다움의 상실’이라는 근원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인간다움의 회복’, 즉 인간과 그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와 그 안의 배려, 관용, 나눔, 존중, 소통 등과 같은 가치들을 복원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용과학의 증시 속에 간과해 왔던 인문학과 인문정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인문정신의 가치정립과 확산’을 문화융성을 위한 8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상정하여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 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련의 인문분야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과 더불어 ‘삶의 터전’으로서 공동체와 도시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각 개인의 존재와 그 삶의 가치가 존중되고 물질과 기타 사회적 관계로 인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시민사회, 소통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영위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도시와 도시 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현행 문화도시 구상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유관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문화도시와 차별화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는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술자산, 일상에 밀착된 생활체육의 융합을 통해 인문·예술·체육이 생활 속에 내

1)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2013).

면화된 건강한 도시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한국형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를 활용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와 그 안에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발상과 전략, 이를 수행하는 계획을 담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거나 축제·이벤트를 활용하는 기존 문화도시 만들기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동체의 인간성 회복과 실질적인 삶의 질 고양에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진주’를 대상으로 『한국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설계하고, 건강한 시민공동체와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할 사업체계와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기존 문화도시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파악한 장점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고 우리 전통의 가치들에 접목하여 문자 그대로 ‘한국형 문화도시’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형 문화도시』 모델의 확대시행을 통한 ‘문화 대한민국’의 실현 가능성과 그 전망도 타진하고 있다.

II. 문화도시 개념

1. 주요이론

‘문화도시’라는 화두는 지식과 정보, 문화의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발전 전략의 하나로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경제와 정치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도시 개념들에 맞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특히 도시의 사람들과 조직들의 창의성에 주목하는 대안적 도시 개념들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도시 개념은 플로리다(R. Florida), 랜드리(C. Landry), 사사키 마사유키 등 대표적 이론가들이 주창한 ‘창조도시론’²⁾과 뚜렷한 이론적 출처는 없지만 도시행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도시론’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을 혼합하거나 또 다른 개념들과도 접목시킨 창의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등도 등장하고 있다.

문화도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도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문화도시의 의미와 조성방향³⁾, 문화도시의 유형별 추진전략⁴⁾, 장소마케팅 혹은 도시마케팅 측면에서 문화도시의 기능⁵⁾, 도시재생전략차원에서 문화도시⁶⁾, 문화도시 조성사례⁷⁾ 등을 중심으

- 2)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A member of the Perseus Books Group, 2002); C. Landry, F. Bianchini, *The Creative City* (Demos Comedia, 1995); C. Landry, *The Art of city-making*, (Earthscan, 2006); 사사키 마사유키 외,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미세움, 2010).
- 3) 김효정,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임상오, “창조형 경제 시대의 도래와 창조도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이플러스에드, 2006), pp. 109-111; 김세용, “도시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도시”, 『문화도시조성 국제컨퍼런스 자료집』(문화체육관광부, 2007).
- 4) R. Griffiths,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Elsevier Science*, 12(4), (1995).
- 5) 서순복, “문화수도 선정을 통한 도시 장소마케팅 전략 활동의 연구: 영국 글래스고우 문화수도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2006), pp. 131-157; 이희연,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마케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한국도시지리학회, 2005); 이무용,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화적 재고찰: 도시공간의 문화적 기능강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정보』, 247(1), (2002).
- 6) 이영범, 『도시담론으로서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전략을 통한 도시재생』(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서준교, “도시의 경제, 사회혁신에 있어 문화도시 건설의 중요성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05); G. Evans,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로 도시 계획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문화도시는 <표1>에서처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권영규는 문화도시란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가 바로 선 도시를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도시는 구조적 측면에서 적정하며, 기능적 측면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형태적 측면에서도 아름다운 도시로 궁극적으로는 기본이 바로 선 도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문화도시를 위한 접근이 문화적인 도시”라고 하였다.⁸⁾

채경진 역시 문화도시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의 문화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지고, 지속적인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지원하는 도시”라 정의하였다.⁹⁾ 전영옥은 “문화도시 개념이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환경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물리적 환경 중시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또한 문화도시 조성은 공연, 음악, 미술 등의 예술과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디지털 문화콘텐츠까지도 포함한 도시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 관광 및 관련 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민호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자들은 문화도시를 “문화 정체성과 문화시설들이 풍부하고, 적절한 행정 지원체제와 관련 산업,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문화콘텐츠가 활발하게 생산되는 도시”로 정의한다.¹¹⁾

한편 김효정은 지역주민의 입장, 외지인의 입장, 도시경영 측면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도시로 예술성(심미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거주민의 사회·문화적 욕구발현이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2005).

7) 김기곤, “문화도시의 구성과 공간정치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8;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일신사, 2008).

8) 권영규, “문화도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도시문제』, 6월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6).

9) 채경진, “문화도시 구축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7.

10) 전영옥, 『新문화도시 전략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2006).

11) 서민호 외, 『문화지표를 활용한 한국 주요 도시의 문화생산력 비교 연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가능한 도시, 즉 창조·생산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외지인 입장에서의 문화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로서 자기실현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와 생활 및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매력적이고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도시, 잘 사는 도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이색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말한다. 도시경영적 측면은 도시경영, 도시설계의 방법, 도시경영의 원리로서 문화를 최상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이는 문화가 사회생활 및 조직화의 원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에서도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을 의미한다.¹²⁾ 문화도시의 도시경영적 시각은 도시설계에 반영되며 새로운 기능의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동선 및 외부 유입자의 이동 동선까지 고려한다. 이러한 도시설계의 원리를 반영한 도시디자인을 통해 도시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도시의 성장 주체가 될 때 진정한 문화도시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³⁾

〈표1〉 문화도시 정의

연구자	정의
임학순 (1996)	도시의 개성과 역사를 살린 도시,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 아름답고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도시,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 추진되는 도시
황동열 (2000)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도시문화벨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갖춘 도시
이홍재 (2001)	최소한의 생존 생활환경 및 사회활동조건을 위한 환경을 보유한 도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2)	기본이 바로 선 도시, 도시정체성을 지닌 도시,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문화도시를 위한 접근이 문화적인 도시
임상오 (2004)	문화적인 도시지향,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재의 지속적인 창조, 유통, 소비가 되는 도시
김효정 외(2004)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
라도삼 (2006)	역사성, 공동체성, 도시미학, 새로운 생산력 및 지속가능한 동력을 갖춘 도시
전영옥 (2006)	도시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도시

12) 김효정 외,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13) 김효정, “문화도시-프랑스 리옹”, 『도시문제』, 9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에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도시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도시 구성원들이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된 도시를 가리킨다. 더불어 문화적 지표에 앞서서 기초적인 생활의 측면이 충실히 고려된 도시이다. 요컨대 문화도시란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살고 싶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문화도시가 구비해야 할 요건에 대한 견해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임학순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시의 개성과 역사를 살린 도시여야 한다. 도시의 개성은 그 도시를 다른 도시와 구별되게 하는 특유의 성격, 즉 자연, 문화, 산업, 경관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도시의 독자성이다. 이러한 도시의 개성화와 특징화는 도시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문화정책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독특한 향기를 발산할 때 더 효과적이다. 둘째,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이것은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복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창조력을 높이고 사회병리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생활은 공공생활의 기회와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도시에는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다양해야 하고, 문화적 이벤트가 풍성해야 한다. 셋째, 아름답고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춘 도시이다. 도시의 문화경관은 그 자체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이용자들이 편하고 정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도시의 디자인화는 도시에 생활미, 도시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잘 정리된 도로와 도로변의 아름다운 건물,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녹색공간과 같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의 외관적 요소가 아름답고 개성이 있어야 문화적 환경

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화도시는 도시정책과 문화정책이 연계되어 문화예술이 도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다.¹⁴⁾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도시의 판별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특색 있고 풍부한 문화유산, 문화예술 지향의 도시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2〉 문화도시 구성요소

구분	주요내용	
김효정 외(2004)	기능적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교통, 녹지환경, 고용창출, 교육, 위락시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생할 수 있을 것
	개성적 도시경관	미학적, 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도시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보유할 것
	차별화된 문화예술 인프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화시설, 문화·예술품, 문화·예술행위
	지속도 도시교통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통행속도 제한 등 물리적 저속화 노력 및 생활화
	유기적 성장	녹지 확보, 하천 복원, 자연에너지 사용 등 도시의 생태와 환경 개선
김효정 (2006)	도시기반시설	주거, 환경 교통, 녹지, 교육, 일자리, 문화·여가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
	독특한 도시경관	도시의 얼굴이자 문화의 척도이며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남기는 도시만의 독특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것
	차별화된 조직체계 (도시경영시스템)	도시에 맞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조직체계, 즉 도시경영 시스템을 갖출 것
라도삼 (2006)	역사성과 정통성	역사를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공동체성	공동의 목표, 공동체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여유, 민주주의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라도삼 (2006)	아름다운 도시미학	시민의 일상의 삶과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 인간주의적 도시설계
	지속가능한 동력	풍부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산업경제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로 구성

14) 임학순 외,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구분	주요내용	
추동욱 외(2006)	역사성과 정통성	역사적 유산과 전통적 문화가 도시 곳곳에 묻어나고, 도시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보존되어 있을 것
	문화 인프라와 문화정책의 유기성	과거-현재-미래를 담을 수 있는 문화인프라와 지역문화를 만들고, 문화생산자 및 소비자가 체험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개성적·특징적 문화공간과 도시경관	그 도시만의 문화적 개성과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을 것
유승호 (2008)	공간	추상적으로 비어있는 이미지
	장소	공간이 인간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경우
	도시성	도시 특유의 인간관계, 행동양식, 의식형태 등 여러 특성의 총체
	어메니티	쾌적성과 만족감을 주는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요소들의 함축
	문화자본	문화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유·무형의 자산
	문화산업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산업 및 예술활동도 포함
	지속성	후세를 위해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현대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유지
	창조도시	다양한 문화 활동이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능의 필수구성요소가 됨
정주환 (2008)	문화기반시설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문화기반시설 확보 및 효율적 활동이 가능할 것
	도시문화 정체성	지역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자원을 재인식하고 활용할 것
	창조성	도시의 문화적 창조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것
	산업화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

Ⅲ. 문화도시 사례

1. 국외사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¹⁵⁾에 따르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선정 기준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의 유형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외에 문화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즉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환경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며 문화도시도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다. 문화도시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성화의 형태에 따라 ‘문화예술지향형’, ‘커뮤니티형’, ‘도시경영형’, ‘문화창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예술지향형’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 및 저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 및 도시인프라 개선을 통해 문화도시로 재정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커뮤니티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이 이뤄지는 유형이다. 커뮤니티는 도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하나의 주체이자 활동의 중심이 되며 커뮤니티형에서는 도시마케팅의 개념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지향적 성격이 강조된다. ‘도시경영형’은 도시활성화를 지향하며 도시마케팅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창조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역량 및 가능성을 부각하며 과거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문화를 통해 개선한다. 문화창출형은 문화산업 생산에 풍부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탈대량생산과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추어 내발적 발전을 통한 자족적인 도시문화를 형성한다.

15)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로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분석에 정평이 있는 기관이다.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분기별 정치·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경제환경을 분석한다. 특히 10개 분야, 70개 항목을 토대로 한 기업 환경지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http://www.eiu.com/> 참조.

〈표3〉 문화도시 유형

방향	구분	내용	주요도시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지향형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형성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 및 저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 및 도시인프라 개선을 통해 문화도시로 재정비	코펜하겐 동경 런던
	커뮤니티형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 -커뮤니티는 도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하나의 주체이자 활동의 중심임 -도시마케팅의 개념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지향적 성격	쿠리치바 어바인 프라이부르크
도시 활성화	도시경영형	-도시마케팅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창조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역량 및 가능성을 부각 -과거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문화로써 개선 -퇴락하는 산업공업도시에 새로운 이미지 부여 -새로운 문화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이미지 부각 -문화축제, 이벤트 등을 통한 도시홍보	빌바오 구마모토 싱가포르 토론토 리버풀
	문화창출형	-풍부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문화산업 중심의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추 -내발적 발전을 통한 자족적인 도시문화형성	가나자와 볼로냐

▲출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 건설교통부, 2006.

〈표4〉 도시개발 유형에 따른 분류

개발유형	내용	대표도시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시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 및 저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육성 -도시 인프라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파리, 리옹 로마 코펜하겐
문화이식 도시마케팅	-쇠퇴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마케팅차원에서 문화적 요소 활용 -부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문화시설이나 문화프로그램 도입 -긍정적이며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부각	리버풀, 글래스고 빌바오
창조적 인재 활용	-문화예술인 및 공예가의 창조적 역량을 산업자원으로 활용도시에 내재된 다양하고 창조적 자원 활용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 -내발적 경제성장을 추진	볼로냐 가나자와

(1) 독일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Freiburg)¹⁶⁾

가. 도시개관

면적 153.06km², 인구 20만 2500명(2001)이다. 라인강(江)이 가까이 흐르며 슈바르츠발트의 서쪽 기슭에 해당한다. 정식 명칭은 프라이부르크임브라이스가우(Freiburg im Breisgau)이다.

1120년 건설되어 차링겐 공작으로부터 시로서의 특권을 인정받았다. 프라이부르크라는 이름은 당시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 데서 유래한다. 1218년 우라흐 백작(후에 프라이부르크 백작이 되었다)의 영지를 거쳐, 1368년 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브라이스가우의 전 지역이 합스부르크왕가의 영지가 되었다. 30년 전쟁(1618~1648) 때는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곳에서 튀렌과 콩데가의 루이 2세(Louis II)가 거느리는 프랑스군에 패배하였다(1644). 프랑스는 1677~1697년, 오스트리아계승전쟁(1740~1748) 동안에도 이 도시를 점령하였다. 1805년 바덴에 귀속되었다.

1457년 알브레히트 6세(Albrecht VI)에 의하여 설립된 알브레히트루트비히 대학(The Albrecht Ludwig University)과 다수의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1821년 대교구가 설치되었고 높이 116m에 이르는 탑이 있는 고딕 양식의 대성당은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그 밖의 건축물로는 13세기에 건립된 프란시스코파(派)의 장크트마르틴성당(Church of St. Martin), 16세기의 시청사, 1685~1701년 건립된 제수이트파 성당, 2000년 현재 주립음악대학으로 사용되는 18세기의 벤칭거하우스(Wenzingerhaus) 등이 있다. 관광 및 각종 회의장으로 유명하며, 와인과 목재 거래의 중심지이다.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생태환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16) 한국환경공단 <http://keco.tistory.com/1059>; 정우양 외, 『유럽생태문화도시 읽기』(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pp. 125-249;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일신사, 2008), pp. 101-103; 한국일보 문화부, 『소프트시티』(생각의 나무, 2011), pp. 284-295.

나. 조성 배경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빌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이 녹색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프라이부르크를 중심으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보수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반핵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 스스로 기존의 생활 형태에 대한 반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환경보호 실천운동이 시작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시민, 환경단체, 전문연구기관, 시가 협력하여 에너지와 교통, 주거단지에 생태개념을 접목하여 도시를 조성하였다.

다. 주요 정책

- ① ‘숲과 하천이 어우러진 도시만들기’ 사업: 도심하천 살리기, 도심 수로 정비, 도심 녹화 등 자연환경의 보존과 재생
- ② 자전거와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 자전거 주차장 건설, 도심 자동차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 공공교통수단의 요금체계 정비, 구시가지 반경 1.5km 내 자동차 전면 진입금지 등
- ③ 환경 최우선 도시행정정책: 공공건물이나 시가 대여·매각하는 토지에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저에너지 건축만을 허가(1992), 생태주거단지 조성
- ④ 탈원자력, 에너지 자치도시를 위한 정책
 - 태양광 발전 정책
 - 솔라하우스 시험 제작 및 보급
 - 일상에서 태양 에너지 이용 확대
 -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식 ‘형광 램프’ 개발 무상 공급(1996)
- ⑤ 시민참여운동 전개
 - 쓰레기 제로 운동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 20% 삭감 운동 등

라. 추진전략

- ① 시민환경단체의 중심지화: 국내외 60여개 환경 NGO 입주
- ② 시정부-시민-환경 NGO 협력
 -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 파트너십 형성, 정책 참여
- ③ 학교 및 시민 환경교육 지속 실시
- ④ 태양에너지산업 활성화: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 및 연구 중심지
- ⑤ 태양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유치
 - 국제태양에너지협회(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
 -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 대표기구 유로솔라(EUROSOLAR)
- ⑥ 태양에너지 관련산업 박람회
- ⑦ 관광산업 활성화 ‘솔라투어리즘’
- ⑧ 벤치마킹: 일본 가마쿠라시 프라이부르크 모델 도입 친환경도시 조성
 - 쓰레기 반감운동
 - 지역환경권 도입
 - 에너지 절약운동
 - 신에너지 도입

마. 시사점

- ① 민관학의 지속적 연대와 소통
- ②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생활 속의 환경실천운동
- ③ 환경생태도시의 가치(특성)을 살린 산업화: 솔라산업
- ④ 환경 및 솔라 산업의 중심지 육성: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유치, 연구 기관 및 기업 육성
- ⑤ 관광산업 육성: 박람회, 학술대회 등
- ⑥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 확립

(2) 이탈리아 볼로냐¹⁷⁾

가. 도시개관

중세 이래 유럽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유명한 볼로냐는 인구 42만의 중소도시이다.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대학을 비롯한 다수의 학술기관이 산재해 ‘학문의 도시’라고 불리며, 교회와 각종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역사와 전통의 도시이다. 현재는 첨단 기술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서 전통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의 도시이다.

나. 조성 배경

낙후된 경제환경과 보수적인 행정당국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상업적 대중문화에 대한 쇠퇴와 소외가 심화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movimento 운동¹⁸⁾이 확산되었다.

다. 주요 정책 및 추진전략

① Colombari: 볼로냐 예능위원회 구성

- 단기 문화이벤트(연극, 음악, 민속 페스티벌) 활성화
- 아방가르드 연극의 중심지로 육성
- 문화관광 확대

② Sandra Soster

- 문화를 도시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정립
- 문화관련부서 강화
- 문화분야 예산 증액
- 박물관 현대화

17) 반상철,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의 조건과 전략에 관한 연구, 『호서문화논총』, 제 22집 (2008), pp. 90-92; 이장훈, 『유럽의 문화도시들』(자연사랑, 2001), pp. 88-93; 사사키 마사유키 외,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미세움, 2010), pp. 36-40.

18) 1977년 문화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운동으로 공공기관이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추구했으나 기존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 민관 합동연구센터 설립
 -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소극장협회, 씨네클럽 등에 대한 지원(창작지원금, 작업공간)
- ③ Nicola Sinici
- 문화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
 - 스폰서십, 파트너십, 광고 등을 통해 재원 마련
 -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등 집중 지원
- ④ Progetto Giovani: 청소년 재능개발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예술가 대상 비엔날레 개최
 - 유럽 네트워크(기업, 언론매체, 갤러리, 광고회사, 문화센터 등과 청년 예술인 연계)
 - 박람회 및 이벤트 특화도시 조성(볼로냐 아동도서전, 피혁박람회, 국제 세라믹 및 타일건축자재 박람회, 국제영화제, 모터쇼 등 연간 65회 박람회, 400여회 국제회의 개최)

라. 시사점

- ① 도시상황에 맞는 대안도시 육성: 대도시의 도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정책을 모방하기보다 문화적 능력을 보유한 인재, 소규모이지만 다양화된 시장,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 및 기간 시설을 최대한 활용
- ②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이탈리아 내 소득수준 2위
- ③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통합, 주민 주인의식 강화
- ④ 문화콘텐츠 생산과 문화적 다양성의 중심지

(3) 일본 가나자와¹⁹⁾

가. 도시 개관

가나자와는 교토와 함께 일본의 전통 문화,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박공예(전 일본 금박생산량의 99%), 가가유젠(염색기법) 등과 같은 전통 공예, 다도, 노가쿠 등의 전통 문화는 물론 가가요리, 화과자와 같은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풍요롭고 격조 높은 문화가 발달하였고 오늘날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가나자와는 전통 주거지를 보전하고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로 알려져 있다.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지마 가즈요의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성,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으로 유명하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사업의 공예민속예술분야에 가입되었다.

가나자와는 일본 혼슈의 중앙부에 위치한 이시카와 현의 현청소재지로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약 290km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와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인구는 약 46만여 명이다. 도시의 면적은 467.77km²이다. ‘사이가와(犀川)’와 ‘아사노가와(淺野川)’라는 두 개의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가나자와는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에 걸친 기간 동안 일본의 주요 상공업 중심지(조카마치)였다. 도시의 확대 과정에서 도시를 관통하는 두 하천 사이로 생활용수용수로들이 다수 만들어졌고 그 흔적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두 하천과 그 사이를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수로는 주위 수변공간과 함께 역사도시로서 가나자와의 공간적 기억과 도시를 재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나자와 시의 경관조례, 수로 보존 조례 등의 제도적 노력은 역사적인 하천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 조직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가나자와시는 연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적 관광도시로 변모하였다.

19) 도시재생사업단,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한울, 2012), pp. 67-94;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일신사, 2008), pp. 224-226.
<http://www.kanazawa-tourism.com/korean/main/>

나. 조성 배경

에도시대 상공업의 중심지로 40여 년간 번성했던 가나자와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에서 점차 소외되어 퇴락하였다. 하지만 이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폭격을 면하였다. 또한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없어 ‘숲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울창한 삼림과 작은 광장으로 이어지는 가로망과 해자,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로 등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구조와 건축물 및 도시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가나자와만의 경쟁력을 되찾고자 도시재생사업과 경관조성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① 전통 경관 보존: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 법적·제도적 토대 정립
- 전통 환경 보존 조례(1968, 일본 최초)
- 전통 환경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에 관한 조례(1989)
- 현대적 도시경관 창출구역 추가
- 경관형성기준 확대
- 녹지도시 선언(1974), 경관도시 선언(1992)
- 수로 보전 조례(1996)
- 문화적 경관 실태조사(2007)
- 역사유산 보존활용 마스터플랜 수립(2008)
- 전통가옥 재생활용 지원제도 신설(2010)

② 전문가 집단 참여

- ‘도시경관간담회’조직(1987): 각계 대표자 20명
- ‘도시경관심의회’설립 운영: 7개 전문부서
- 도시경관 관련 업무 관여
- 개발계획 조사, 심의
- 제도 수립 및 집행

- ③ 지역주민 및 학계 참여
 - 도시경관 지역공동체 조직: 수로 유지 및 관리, 연 1-2회 수로 청소
 - 관련 연구기관 및 지역대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이론연구 및 관련 기술 현대화, 전문가 양성
- ④ 공예산업 활성화
 - 도자기, 칠기, 목공예, 금속공예, 염색 등 22개 분야 전통공예
 - 공예산업 지원: 시당국(문화정책과, 공예진흥실)과 주민자치조직 협력
 - 전통공예문화 계승 및 육성: 시 주관 문화예술행사 개최
 - 전통공예산업 계승 및 육성: 전통공예품 판매촉진, 후계자 양성 지원
- ⑤ 문화예술의 일상화: 문화거점 설립
 - 우타츠야마공예공방 설립(1989): 본래 공예대학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공간이었으나 이를 개방하여 전문작가 육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공예미술 체험하게 함. 매년 시예산 2억엔 지원
 - 시민예술촌 조성(1996): 폐쇄된 방적공장 리모델링,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활성화
- ⑥ 21세기 미술관 건립(1996)
 - 현대문화의 대표 공간
 - 중심 시가지 활성화 및 새로운 문화 창출
 - 시민들의 문화체험 및 커뮤니티 활성화
- ⑦ 직인대학 설립(1996): 전통 일본 목조건물 기술 전승
- ⑧ 유와쿠 창작의 숲 조성(2003)
 - 시민 문화체험 공간
 - 4개 공방 및 갤러리
 - 교류연수동

라. 시사점

- ① 조례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 보전(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 ② 전통문화예술 보전 및 육성
- ③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보여주고, 교육하고, 참가하는 공간 만들기’
- ④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융합
- ⑤ 민관학의 적극적 협력

(4) 스페인의 빌바오²⁰⁾

가. 도시 개관

빌바오는 스페인 바스크 자치지방(autonomous community) 비스카야주의 주도(州都)이며, 약 35만 명(2007년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비스케이만(灣)에서 1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며, 네르비온강에 면한다. 이 도시는 14세기에 시작되었으며 19세기에는 4차례나 왕위계승전쟁에 휘말렸다. 19세기에 서쪽 교외의 철광상을 배경으로 제철업이 시작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인근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다. 또 포도주·섬유의 교역도 이루어져, 에스파냐에서 손꼽는 무역항이 되었다. 제철·제강 외에 금속·기계·화학·유리·도자기·담배·조선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나. 조성 배경

1980년대 주요 지역산업의 급속한 쇠퇴로 지역주민의 1/4이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고, 지역 경제의 몰락과 함께 바스크지방의 분리요구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1990년대 초반 철강제철산업 중심의 쇠퇴하는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도시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통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 라도삼 외,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건설교통부, 2006); 박복제 외, 『도시브랜드마케팅』(전남대출판부, 2010), pp. 184-186.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 ①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부문(금융, 보험, 하이테크놀러지 산업)의 발전
- ② 지역경제활성화
- ③ 문화도시로 도시이미지 메이킹
- ④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Guggenheim Bilbao Museum)의 건립
 - 바스크 자치 정부는 지역의 불황을 타계할 유일한 방안이 문화산업이라는 판단 하에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 분관 유치
 -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의 설계로 총 공사비 1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미술관 개관
 - 미술관 개관 후 한해 평균 150만 명의 관광객 유치
 - 1억 6,000만 달러의 관광 수익

라. 시사점

- ① 장소마케팅을 통한 문화도시 전략: 오래된 산업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문화도시로 전환
 -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
 - 미술관 인근의 수변공간 및 교량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
 -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호텔건설 유치
 - 런던, 파리, 로마를 연결하는 유로라인 기차지
 - 도로, 항만 등의 교통망에 대한 정비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바스크 지방의 160개 시골 마을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관광지로 개발
- ②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 민관협력 상설조직 구성: '빌바오 메트로폴리스 30'
 -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영역과 민간부문의 상호합의
 - 도시개발의 장기 마스터플랜 공유
 - 도시 정책 전반에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참여

- ③ 지방정부의 역할: 바스크 지방 정부는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자체 조달
- ④ ‘Plan General’: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 문화관광레저 관련 산업의 육성
 - 실업 해소
 - 삶의 질 향상
 - 외부투자자 및 전문 인력 유치

(5) 브라질 쿠리치바(Curitiba)²¹⁾

가. 도시 개관

브라질의 남서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파라나 주의 주도(州都)로 남동쪽 해발 고도 900m의 고원에 위치한다. 인구는 160여 만명이다. 1654년 처음 금(金) 채굴지로서 건설된 뒤 1854년에 주도(州都)가 되었다. 그 후 이탈리아·독일·폴란드인이 대량으로 이주해 와서 근대적인 경관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였다. 1995년 로마클럽에 의해 세계 12개 모범도시로 선정되어 ‘희망의 도시’로 명명되었으며, 국제연합 인간정주회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을 만큼 ‘꿈의 생태도시’로 불린다.

나. 조성 배경

1950년대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문화유적들의 훼손 등 많은 도시문제들이 야기되었고 1971년 자이메 레르네르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시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도시를 다양하고 창조적인 실험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쿠리치바시는 ‘거리는 도시와 사회 전체의 종합체’라는 생각 하에 가로를 구성하는 수많은 시설물을 단순하고 검소하지만 매우 창조적인 것으로 설치하여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개선한 성과로 타임

21) 한국디자인진흥원, 『도시이미지 개선 사례모음집』(200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건설교통부, 2006); 박용남, 『꾸리찌바 에펠로그』(서해문집, 2011).

지가 선정한 지구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모범적인 도시가 되었고 세계로부터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불리며 사람 중심의 도시로 상징되고 있다.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 ① 민관학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 ② 쿠리치바시와 대도시 지역의 사회적 융합, 상호 접근성 강화, 공공장소의 쾌적함, 도시의 투명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성
- ③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Planning Institute of Curitiba, IPPUC)’ 설립
 - 보행자 우선의 동선체계
 - 버스 중심의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 충분한 녹지 조성
 -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 어린이와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
 - 문화유산의 보전
 - 주택보급과 고용문제 해결
- ④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지혜의 등대’
 - 접근성 제고
 -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

라. 시사점

- ① 건설 및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하철을 대신하여 버스전용도로와 원통형 정류장의 도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
- ② 페트병 모양을 본떠 만든 원통형 버스정류장은 승강대와 동일한 높이로 디자인하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설비 - 시의 랜드마크 역할

- ③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저비용 가로시설물 배치 - 기능성, 아름다운 가로 경관 형성
- ④ 외부 지향적인 도시마케팅으로서의 개념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을 기초로 한 내부지향적 성격
- ⑤ 커뮤니티의 활성화
 - 커뮤니티는 도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주체이자 활동의 중심
 - 도시 구성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사회통합
- ⑥ 도시 상황의 분석을 토대로 쿠리치바만의 개성적인 정책을 통해 문화적인 도시 조성
- ⑦ 거대자본 투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부 및 시민의 공조를 통해 도시 재생
- ⑧ 창조적인 사업들로 도시전체의 이미지 쇄신
- ⑨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6) 일본 구마모토²²⁾

가. 도시 개관

구마모토는 규슈(九州)에 있는 구마모토현(熊本縣) 현청소재지로 인구 63만의 도시이다.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 인구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소비도시의 성격이 짙은 도시이다. 예부터 규슈지방의 중심지로 번영하였고 풍부한 자연과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농림수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울창한 산림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세계 제 1의 칼데라화산이 있는 아소가 유명하다. 구마모토성이 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시라카와 하천이 시가지의 동북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구마모토는 수질이 양호하여 상수도시설이 없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저류 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며, 지하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건설교통부, 2006).

나. 조성 배경

1950년대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시는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배출한 수은으로 인해 물과 환경이 오염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미나마타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빠진 도시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풍부한 문화재와 녹지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새로운 문화도시를 창조하기 위해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을 구상하였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구마모토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 풍토를 살리면서 후세에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 창조로 주민들에게는 도시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풍부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① 사업추진 체계 확립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검토위원회, 아트폴리스 사무국(구마모토 현 토목부 건축과), 커미셔너, 어드바이저 등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② 독창적 제도 구축: ‘커미셔너제’ 도입

- 설계자 선정: 국내외 건축가 추천, 설계공모 실시
- 여론 수렴

③ 구마모토현에 이어져 내려오는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 보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 국내외 전문 건축가 및 디자이너들과 지역주민들의 소통
- 전문인력의 창조적 발상을 건축물로 구현

④ 지역활성화 사업

- 문화거리 조성, 지역정비
- 전람회와 심포지엄 등 문화 이벤트 지속적 기획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사업 대상은 주택 등의 건축물, 다리 등의 토목구조물, 공원과 랜드스케이프 등과 같은 환경정비까지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업

주(민간 또는 공공)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아트폴리스 참가 신청을 하며 커미셔너로부터 설계자를 추천받으며 설계공모 실시 등을 제안 받는다. 설계, 시공, 공사, 감리 등 사업추진의 각 단계에 따른 조언과 협력을 커미셔너 및 아트폴리스 추진검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으며 준공 시 홍보, 견학회의를 개최하며 관리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아트폴리스는 점(點)에 해당하는 단위 건축물과 다리와 같은 단위 구조물의 조성에서 출발하여 단위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문화거점으로서 면(面)과 벨트를 형성하여 도시전체의 경관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라. 시사점

- ① 획일화된 도시디자인에서 탈피하여 독특하고 개성을 지닌 건축을 통해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② 예술적인 건축물 건립과 문화시설 도입을 통해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개선
- ③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발전
 - 관련 산업 및 주변지역에 파급효과
- ④ 공공이 주도하는 아트폴리스 사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마찌즈꾸리) 연계
- ⑤ 민관협력을 통한 이상적인 도시 조성

(7) 영국 셰필드(Sheffield)²³⁾

가. 도시 개관

셰필드는 영국 중북부 요크셔 지방에 위치한 인구 53만 명의 중소도시로 철

23) 유승호, 『문화도시』(일신사, 2008), pp. 184-186; 황기원 외, 『문화환경가꾸기 매뉴얼-모니터링 체크리스트』(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3); 김진근 외, 『마산시 문화산업육성 기본계획』(마산시 (재)마산밸리, 2008); 세계도시동향 vol. 16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英 셰필드 市 성공비결, 경향신문, 2004. 3. 4. 인터넷 기사 참조.

강 산업에 의존해 온 전통적 공업도시였다. 철강 및 금속산업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셰필드는 지역 내의 축구, 음악에 대한 명성을 바탕으로 관련 문화산업을 발전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셰필드시의 ‘문화산업지구(CIQ: Cultural Industries Quarter) 프로젝트’는 유럽 공동체와 영국 정부에 의해 도시 내부경제의 재활성화에 성공한 가장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밀레니엄 갤러리는 셰필드 문화클러스터의 대표적인 명물로 알려졌고 셰필드시의 문화산업지구는 약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투자실적을 기록하였고 사업면적도 5배가량 늘어났다. 문화산업 중 가장 많은 고용 인력을 보유한 분야는 영화 및 비디오로 총 13개의 기업체에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산업인력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나. 조성 배경

1970년대 후반 철강업이 쇠퇴하며 영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들게 되자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셰필드 시당국은 10여 년간 문화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1988년부터 황폐한 산업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문화 및 미디어·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전략을 수립하였고, 과거의 공업지역을 ‘문화산업지구’로 지정하고 비어있는 빌딩들을 개량하여 문화사업체에 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새로운 도시로 변모해 나갔다.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 ① 관주도의 문화산업육성전략: ‘문화산업지구(CIQ: Cultural Industries Quarter) 프로젝트’
 - 시당국은 지역문화산업 육성 과정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 수행
 - 시당국이 주도적으로 산업 인프라 구축
 - 시의회는 투자자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체 사업 발굴
 - 대학과 기업 공동 참여
 - 대학은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연구기능과 인력 공급 역할 수행

- ② ‘세필드 문화클러스터’ 조성
 - 중심에 갤러리, 스튜디오, 음악당과 같은 문화시설 입지, 소비를 창출하는 역할 수행
 - 민간기구의 지원으로 개관된 쇼룸 시네마, 대중음악센터 등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기여
- ③ 문화클러스터의 자생력 증대와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
- ④ 성공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한 지역생활기반 마련
- ⑤ 국제적인 행사 개최, 이벤트, 컨설팅기능 강화를 통해 수익 극대화

라. 시사점

-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과 분업체제유지
 - 문화산업개발기구(CIDA): 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연계 및 조정역할 담당
 - 문화사업재단(ACT): 문화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문화기업지원, 기술 프로그램, 문화워크숍 설립 담당
 - 문화산업단지진흥원(CIQ Agency): 지구 내 기업체, 투자자 및 개발자, 부동산 소유자, 방문객들에게 문화산업단지 안내 및 이미지 홍보,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교육훈련기회 제공, 사무실 공간 이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등 담당
- ② 유관 기업의 창업과 유치
 - 현재 활동 중인 400여개의 사업체 중 150 여개가 문화·미디어·기술 영역
 - 1,500여명 근무
 - 연간 2,500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액
- ③ 지역대학의 주 캠퍼스를 CIQ내로 확장 이전 산학협동체제 구축
 - 대학 내 미디어 교육훈련 시설 및 높은 수준의 연구소: 교육과 연구, 기술개발

- ④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 세필드 시의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 이에 대한 산학기관의 평가, 조정, 비전 제시
 - 민관학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문화도시를 조성한 성공적인 국외사례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를 조성하였다. 둘째,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문화’의 적극적인 장려와 활용이 이루어졌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개발, 보존하거나 새로운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향유의 여건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활성화하였다. 넷째, 도시의 조성과정에서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단일건물보다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문화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역사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이 함께 수반되고 있다.

2. 국내사례

국내에서 문화도시담론은 국민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진 2000년 이후 지자체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가 광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자체 수준의 관심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이 공약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문화도시 조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의 실현 목적이 강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과거의 산업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정체성 형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부산 영상문화 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 중심도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같은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와 문화도시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저마다 문화도시임을 표방하면서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고 각종 지역축제를 벌이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문화거점도시'사업은 본질적으로 도시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인자로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정치적 계산과 갈등이 복잡하게 뒤얽힌 채 추진되어 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문화도양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생성하여 이를 통해 경제 사회적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1)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가. 도시 개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광주부는 1949년 광주시로 바뀌면서 두 차례의 행정구역 변경이 있는 뒤,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부산·대구·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이때만 해도 3구 72동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215.11km²에 불과했으나 1988년 1월 1일 법률 제3963호 공포로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이 다시 광주직할시에 편입됨으로써 면적은 501.44km²로 크게 늘어나고 4구 83동 9출장소를 관할하는 서남권 중추관리기능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95년 3월 1일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 되었고 2010년 말 현재 5개 자치구에 93개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는 UN지정 인권도시 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광역시중 세 번째로 수출 100억불 도시를 달성한 이후 2010년에는 수출 115억불을 달성하고 2011년도에는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3개 권역에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고 2011년 1월에는 9개 지구에 광주연구개발(R&D) 특구가 지정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였고 새로운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자동차·광·가전·

그린에너지·금형산업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인권, 문화, 경제를 삼각축으로 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조성 배경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적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신개념의 문화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목표로 2004년 3월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발족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투자규모는 오는 2023년까지 약 5조 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문화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① 주요정책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목표는 대외적으로 아시아 국가 간 문화적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신개념 문화도시 조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이 사업의 공간적 거점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2014년 완공 예정이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지향점은 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구축하는 것인데 동남아시아의 전통음악, 중앙아시아의 신화 설화, 아랍의 영상, 남아시아는 무용, 동북아시아는 전통연희 중심으로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② 추진전략

이 사업은 ‘5·18정신’의 계승으로 민주, 인권, 평등의 정신 구현하는 데 있다. ‘5·18정신’을 바탕으로 조성한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 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을 통해 음악,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기반 조성단계’(2004-2008), ‘본격추진단계’(2009-2015), ‘성숙단계’(2016-2018), ‘정착단계’(2016-2018)로 진행된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법률제정, 추진단 구성, 문

화전당 설계를 완료하며, 본격추진단계에서는 문화전당 개관, 물적·인적 인프라 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²⁴⁾

라. 시사점

① 국가의 정책적 지지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특징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산업기반시설이 미약한 광주와 전남을 아시아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세우겠다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② 문화도시의 사상적 기반 - '5·18정신'의 구현

아시아문화 교류의 기본 정신을 '5·18정신'을 되살리는 데 두고 있기에 건강한 시민의 문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교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모범적이며, 이런 문화도시의 정신적 근간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도시 건설의 모범이 될 수 있다.

③ 공간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공간 거점을 두고 문화산업을 펼쳐나가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심기 될 공간 거점을 세우면서 방사형으로 문화산업을 펼쳐나가기 때문이다.

④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행정수도, 문화수도, 경제수도, 해양수도 등을 만들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으로 야기된 폐해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균형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광주를

2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화프로젝트: 아시아 문화 교류 중심 문화도시 조성;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학회자료”, 『도시문제』, 47권 518호 (2012), pp. 62-63.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를 지역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광주를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국제적인 입지를 가지게 하였다.

2) 부산 영상문화 중심도시

가. 도시 개관

부산은 1876년의 개항으로 서구문화 유입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 개항 이후 1905년에 부산항 북빈지구 제1기 공사가 준공되고,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부관연락선의 취항과 육상연계시설로서 경부선철도가 개통되었다. 이것은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국제항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라 할 수 있다. 1921년에는 초량·좌천·영주동 일원에 대한 가로정비사업의 시작과 함께 도시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36년에는 20만 명이던 도시인구가 광복이 되던 1945년에 28만 명이 되었고, 해외로부터 귀환동포의 유입으로 1948년에는 50만 명을 넘어 1960년에는 11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1963년 1월 정부 직할시 승격은 도시개발의 활력소가 되어, 부산부두지구 구획정리사업이 1962년 9월에 착공 1967년 5월에 완공되었다. 1972년에는 처음으로 부산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지하철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1981년 6월 1호선이 착공하여 1994년 6월 23일 32.5km(노포동~신평)가 개통되었다. 1988년 12월말 부산시 주택보급율은 58.3%로서 1963년의 77%에 비해 주택사정은 계속 악화되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주택난의 심화였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 중심에는 1996년부터 시작된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다.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지역이벤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산 이외에도 부천, 전주, 광주, 충무로 등 여러 지역에서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산 국제영화제’는 국내 최대 영화제로, 국내 지역이벤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며, 지역개발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또한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4월 전국 최초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나. 조성 배경

부산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함으로써 문화·복지도시로의 기대가 상승하였다. 1996년부터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 ‘친구’의 흥행으로 부산시의 영상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장르와 지역의 영화를 통해 세계 영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능 있는 아시아 감독 및 영화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영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의 도시이미지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고,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 자치 문화의 선례를 만들어 내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역 활성화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²⁵⁾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부산은 아시아 영상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아시아 시장 지향, 산업과 문화의 동시 육성, 클러스트 구성요소 구비 등의 3가지로 정하고 기업유치 및 육성, 인프라 강화, 국제화, 인력양성 등 6대 핵심전략과 44개 추진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44개 사업 중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영상기업유치단 운영과 영상센터 건립, 영화후반작업기지 건립, 부산영상협회 설립 등 14개를 선정하고 산업발전단계와 클러스트 형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인 ‘두레라움’ 개관. 영화의 전당은 탁월한 조형미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스트리아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울프 프리크스가 설계한 영화의 전당은 해체주의 건축 미학의 결정판으로 불린다. 축구장 1.5배 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외팔보 지붕으로, 지붕하단에는

25) 산업 측면에서의 효과는 생산유발액 536억 원, 고용효과 1,115명, 소득 유발액 126억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12만 여개의 LED전구를 부착해 다양한 방식의 영상을 연출할 수 있다.

둘째,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 영진위의 이전은 국가 핵심기관을 통한 영상 수도 부산을 만들 계기로 볼 수 있다. 영진위는 영화정책에서 영화제작 및 산업육성, 영화제작·기술·유통·마케팅 지원 같은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핵심 영화관련 기관이다.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영진위 신사옥은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인근에 설립, 영진위 한국영화아카데미와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아카데미와 연계한 영화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디지털 시네마, 3D입체영상, 컴퓨터 그래픽 같은 첨단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크게 강화되며, 영화 투자, 제작, 배급은 물론 영상기술 관련 기업의 부산 이전도 가속화 될 것이다. 영상관련 공공기관은 영진위 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함께 이전한다. 영진위 부산 이전은 국가적 차원의 영화영상 정책 결정 및 지원이라는 핵심적 기능을 갖게 되고, 영화사, 관련기업, 영화산업이 따라오는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영화영상 클러스트와 영화영상 관련기구 협의체 구성. 센텀 혁신지구 는 영화의 전당과 공공기관,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CCC), 영상복합건축물, 영상후반작업시설과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트를 구축, 국내 최대 영화영상 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CCC의 건립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부산의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부산 지역 영화 영상산업 기구 간 주요정책을 조율하고 상시 협의할 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통합협의체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의 전당, 부산콘텐츠마켓, 부산국제광고제 같은 기관의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²⁶⁾

라. 시사점

부산 영상중심 문화도시의 핵심인 ‘부산국제영화제’는 신발과 섬유산업의 퇴조로 정체된 부산의 경제와 산업을 ‘문화’를 통해 재생시키고자한 프로젝트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시행과정에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26) 김영주, 「BIFF, 영화의 전당, 영진위 부산 이전까지: 아시아 영화, 영상 중심도시 향한 부산 행보」, 『지방행정』61권 70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pp.80-81.

① 행정적 측면 -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입안과 추진에 있어 기존의 축제나 다른 이벤트성 축제와 다른 면을 보이는데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함에 있어 부산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출범 초기부터 성공적인 영화제를 만들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역할 배분, 의사결정 방식을 전문화한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 세계영화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행정가 출신을 집행위원장으로 영입하여 예산과 스폰서의 확보, 세계 영화계와 밀접한 관계유지 등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작품을 고르는 일은 영화 전문가들인 프로그래머들이 전담하였다. 또 지방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철저히 지켰으며, 개폐회식 등 각종 행사에 정치인과 관료들의 연설이 없는 영화제로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영화제는 부산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운영의 측면-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운영의 측면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문화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한 현 상황에 맞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영화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스타들의 생생한 모습과 맛집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③ 문화경관-센텀시티

부산광역시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센텀시티를 '한국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상센터 '두레아움'을 건설하였으며 '영상 후반작업시설'과 '부산문화 콘텐츠 콤플렉스'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산업진흥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디자인센터 등을 센텀시티로 유치하였으며 센텀 벤처타운, 시청자미디어센터 등도 개설하였다. 이는 영화제라는 지역이벤트로 인한 경관의 변화, 즉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의 혼재된 경관은 도시 내면에 있는 다중적인 의미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문화경관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도시문화의 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소비사회를 이해하는 매개체임을 고려할 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서,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적인 경관해석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지역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지로 기존의 모던한 경관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한 경관이 새로이 반영된 지역이다.²⁷⁾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반으로 영상중심 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점도 필요하다고 본다.

① 민관의 협력

부산국제영화제는 민관의 민주적 협력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하며, 문화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부산광역시는 영화제 예산의 60%에 가까운 59억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영화제에 대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의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체성의 확립

부산국제영화제는 초기에 내세웠던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는 상업성과 예술성의 균형, 경제의 논리와 문화의 논리의 맞섬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귀족주의를 표방한 칸 영화제, 정치·사회·이념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서민적 성격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하는 베니스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와 차별되는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아시아적 가치의 재발견에 초점 지어진 프로그래밍 개념은 다양한 층위로 구체화되어 각 섹션에 정

27) 정은혜, “지역이벤트로 인한 도시문화경관 연구: 부산국제영화제 지역을 사례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14권 2호 (2011), pp. 113-124.

체성을 가져야 하며 작가주의와 상업주의의 두 개념에 대한 적절한 안배로 각 층위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²⁸⁾

부산은 영상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도시, 생명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3) 경주 역사문화 중심도시

가. 도시 개관

신라천년 고도(古都)로서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민족문화의 발상지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이다. 동해의 청정해역과 해안선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 최적의 해양관광 휴양 도시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축·수산업이 골고루 발달된 도·농 복합시이다.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곧 신라의 역사이다. 신라는 경주평야에 있던 여섯 부족의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건국된 나라이다. 그 후 밖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였으며, 안으로 정치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처럼 국가의 면모를 일신한 신라는 그 기세를 몰아 고구려, 백제를 병합하고 676년에는 삼국통일의 성업을 달성하였다. 통일국가 신라는 평화로움 속에서 눈부신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신라의 문화자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주는 현재 역사문화 도시 조성 3대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역사문화 관광도시는 물론 미래를 열어가는 첨단과학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나. 조성 배경

후기 산업 사회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향유의 욕구가 증대된 것은 무분별한 산업화가 초래한 소멸과 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고유한 문화의 복원은 문화적 창조력과 인간성회복의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소의 복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면서 문화유산 또한

28) 권수미, “부산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밍의 성과”, 『영화』(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08).

주목 받고 있다. 문화유산은 특정 공간의 장소성과 동일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형성, 자긍심의 제공, 창의성의 제고, 사회통합에 큰 의미를 지닌다.²⁹⁾

한국 사회에서 장소 복원을 위한 논의와 실천은 국가적 기획으로 확장되었고, 이런 경향은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가속화 되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은 대표적 국책 사업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다.

경주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반영하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국 고대문화의 중심지다. 경주는 사상적 측면에서 최치원의 풍류도를 비롯한 한국 고유 사상의 원류뿐 아니라 원효의 화쟁 사상, 이언적의 성리학, 그리고 최제우의 동학 등 한국 사상에서 중심적 특성을 지닌 곳이다. 또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이나 경주 최씨 집성촌인 이조리 등의 동성촌락을 통해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전승에 관한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경주의 불교유적은 분황사, 불국사, 기림사, 황룡사지, 감은사지 등 경주시 내외에 위치한 사찰과 사지, 그리고 인근 산악 즉 경주 남산, 선도단, 단석산, 금강산, 초월산 등에 남아 있는 탑, 불상, 당간지주, 폐사지 등이 있다.³⁰⁾ 이처럼 경주는 고대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민속문화의 보고로 다양한 문화의 층이 퇴적된 문화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주요 유적과 문화유산의 발굴과 복원, 문화유산 환경 정비, 도시기반 정비, 문화산업 및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과 같은 역사문화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이 중심이었다.

월정교 복원, 교촌한옥마을 조성, 황룡사 복원, 아사달아사녀 공원 조성, 신라탐방길 조성, 유적지간 이동체계 개선, 신라동궁 복원, 월성홍보전시관 설치, 월성 발굴 정비,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도시경관 개선(전선지중화사업), 고분

29) 이창언, “역사문화도시의 조성 방안에 관한 일고-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2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pp. 513-537.

30) 김복순, “문명의 교류와 갈등: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위상 제고와 경주세계문화 Expo의 방향성”, 『대구사학』, 73권 (대구사학회, 2003), pp. 21-40.

전시관 건립 등이다.

〈표5〉 경주의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내역³¹⁾

사업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기간
문화재 관리	신라문화권 유적정비, 남산정비, 양동마을정비, 경주읍성정비복원, 월성해자발굴복원, 쪽샘지구 발굴정비, 명활산성정비, 나정정비복원	5,025억원	1984~2052
역사문화 도시조성	일정교복원, 향릉사복원, 교촌한옥마을조성,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조성, 동학 발상지 성역화, 영지 설화공원 조성	3,718억원	2006~2035
문화관광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 첨성대천문과학공원건립, 선덕여왕테마관광자원화, 신문왕 호국행차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아름다운 유적길 기본구상, 선덕여왕 행차 재현	2,046억원	2010~2025
하천정비	남천주변 환경정비, 복천둔치조성	226억원	2004~2015
주거환경 정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전통한옥건축물보조금지원	103억원	2005~2012
도시계획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확장, 황성지구, 충효지구,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324억원	1991~2013
지역개발 사업	신경주역세권개발계획, 골프장조성, 천북, 외동2, 건천2, 냉천, 문산, 석계2, 안강 일반산업단지조성	1조 2,611억원	1995~2015

라. 시사점

① 문화재 관리 중심의 재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관리와 주변 경관을 단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었다. 원래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목표였던 신라 왕경의 역사적 진정성 확립, 경주시 생활공간과 역사유적과의 조화로운 역사문화경관 조성,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도시 재생이 실속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경주시의 미비한 도시경관이나 도시기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통과 공존의 장소를 위한 방향 찾기

경주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반영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고대

31) Ibid., p. 521.

문화유산의 발굴과 복원, 정비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통한 소통과 공존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 경주의 문화적 콘텐츠의 다양성을 드러내 보이는 문화적 다성성(多聲性)의 문제 그리고 지역민들과 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천년 고도 경주가 지니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³²⁾

4)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가. 도시 개관

전주(全州)의 옛 지명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시대에는 완산(完山)이라 하였는데 마한국명으로는 원지국(圓池國)에 이른다. 전주라는 지명 사용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景德王)16년부터이다. 고려 성종 때(983년) 12목체제를 마련했는데 전라도에는 전주목과 나주목이 설치되었고, 현종 때(1018년) 5도, 양계체제로 개편되면서, 전주권과 나주권이 합쳐져 전라도가 되었다.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다. 조선은 건국 후 전주에 태조어진을 모시고 경기전이라 하여, 전주가 왕실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은 서울 춘추관을 비롯해 충주, 성주, 전주 등 4대 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탔으나 전주사고본만은 오희길, 손홍록, 안의 등에 의해 실록과 태조어진을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주는 호남 제일의 곡창지대 수부로 물산이 풍요롭기가 한양을 방불케 하였다. 전주가 호수로는 한양, 평양에 이어 3번째이고, 인구수는 한양, 평양, 의주, 충주에 이어 5번째였다. 전주는 조선후기 대사 습놀이가 열렸던 소리의 고장이며, 음식문화가 발전한 맛의 고장이다. 또 한지의 본가(本家)이며, 완판본이라는 이름으로 한양과 함께 출판문화를 주도했던 기록문화의 도시였다.

32) Ibid., p. 513.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1930년대에 형성된 교동, 풍남동의 한옥군은 일본식과 대조되고 화산동의 양풍(洋風) 선교사촌과 학교, 교회당 등과 어울려 기묘한 도시색을 연출하게 되었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작지붕의 휘영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즐비한 명물이 바로 교동, 풍남동의 한옥마을이다.

나. 조성 배경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이들 도시들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기인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대부분 단핵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시가지는 전통적으로 도시의 핵심지역으로서 상업·업무 등 도시 중심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쇠퇴하였으며, 신시가지의 개발에 의한 부도심권의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체의 속도는 가속되어 왔다.

정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도 도심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도심재생을 위한 정비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기존 도시조직들과의 괴리, 사업추진의 성과 미흡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 도시구조 속에서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적 이익을 위한 물리적 정비사업은 도심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시는 도시가 가진 역사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도시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도시관광 상품을 개발하였다. 한옥마을 보전정책의 기원은 1970년부터이지만 본격적인 도시한옥의 보전·활용 정책은 2000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시작되어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사업지구 내부의 건축·도시 환경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핵심은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도시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통이미지 창출 사업비로 400억,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총 1조 7109억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 도시공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공간, 교육적인 장소, 역사적 전통조시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³³⁾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전주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전통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이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통문화의 복원과 현대적 계승으로 전통 문화의 산업화를 이룬 성공적인 모델로 전주를 들 수 있다.

① 전통문화 중심도시 건설 목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건설에서 목표는 첫째 한국 전통문화의 경쟁력 확보, 둘째, 한옥마을과 구도심권을 포괄한 전통문화중심 공간의 창출, 셋째, 문화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한국 전통문화의 경쟁력 확보는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복원, 교육, 계승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한옥마을의 창출은 전북도청사 이전에 따른 사후 대책까지 포함하여 전주 구도심지를 대표적인 전통문화 중심공간으로 배치하여 한국 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 문화산업의 새로운 모델은 전주시의 강점과 지역 특성을 살려 ‘자립형 전통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② 추진단계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두 단계로 나누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잡았다. 2000-2005년까지는 전통문화중심 주거 공간,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집중하였고, 2004-2010년까지 전주 전통문화 중심 도시화 사업에 주력하였다.

33) 양만규, “전통문화 공간의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전주한옥마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47권 (관광경영학회, 2011), pp. 67-83.

〈표6〉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화 주요 사업내용³⁴⁾

<p>〈전통유산복원〉 시설복원·확충 (8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감영·4대문복원 - 전통문화 특화거리 조성 - 전통한옥 개·보수 등 기반시설 확충
<p>〈문화산업육성〉 문화산업육성 (12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테마한방촌 조성 - 공예·공방촌 및 전통 맞촌 조성 - 전통문화 컨벤션센터 건립 - 천년한지 세계화사업 등
<p>〈전통교육개발〉 교육관 육성 (12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체험 학습관 설립 - 전통문화 장인대학 설립 - 전통문화연구소 등 문화재단 건립·운영 - 해외민 전통문화교육센터 - 박물관(의복, 건축, 공예, 고문서 등 각종 박물관 테마파크 조성)
<p>〈네트워킹 구축〉 광주, 경주, 안동, 서안, 교토, 에딘버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전통도시(서안, 교토, 에딘버러 등)와의 국제네트워킹 구축 - 아시아 중심도시 광주와 안동, 경주, 부여를 잇는 네트워킹 구축

34) 조희숙, “지방화시대의 문화정책과 그 혁신방안: 전주 전통문화중심 도시화 육성사업”, 『영남학』, 5권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p. 189.

〈표7〉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기본 역량³⁵⁾

<p>■ 전통문화자원의 보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지수 전국 1위 - 경기전, 오목대, 조경단, 객사 등 문화유적 집적 - 한지, 부채, 춘향전 완판본 등 전통문화 유산 풍부 	<p>■ 맛과 멋의 보존 전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 서예 등 전통문화 예술의 요람 - 판소리 중심 지역 - 한국음식문화의 본고장
<p>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p>	
<p>■ 전통생활문화의 계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전통문화 선호도 (전국 36.5%, 전주 89.6%) - 전국최대의 한옥 주거생활 (658동) - 대사슴, 단오 등 세시풍속 보전 	<p>■ 천년도시 역사의 고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백제의 왕도 - 조선왕도의 발원지, 수호지 - 동학 농민혁명의 성지 - 한국 천주교의 순교 성지

③ 기대효과

이런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건설은 더욱 용이해졌다. 전주 전통문화중심 도시 사업의 기대효과로 첫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심기지를 육성하여 한국문화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교육 중심기지를 건설하여 전통문화전승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전통문화상품의 개발로 전통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한다. 가족 단위의 체험학습과 해외동포들을 위한 교육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둘째, 각 지역 네트워크로 전통문화 관광 인프라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주권 전통문화시설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로 타지역에서도 전통문화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통 문화 체험형 관광수요 창출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35) 조희숙, “지방화시대의 문화정책과 그 혁신방안: 전주 전통문화중심 도시화 육성사업”, 『영남학』, 5권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p. 190.

셋째, 전통문화 관련 산업 창출 및 고용 창출로 전통문화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전통문화시설을 운영하여 관광 전문 인력의 수요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시설 운영자와 전통문화 교육 기획자를 양성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음식과 공예 및 전통문화 상품의 고부가치화 산업을 양성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의 활발한 소비촉진을 통한 자생력을 구축할 수 있다.

라. 시사점

① 전주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

전주를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만드는 데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충분하다. 전주는 경기전, 오목대, 조경단, 객사 등 문화유산이 집적되어 있고, 한지, 부채, 춘향전 완판본 등 전통문화 유산이 풍부하다. 또 전주는 판소리, 서예 등 전통문화예술의 요람이며 전통음식의 본고장이다. 그리고 전국 최대의 한옥 주거생활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대사습 등 세시풍속의 보존으로 전통문화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두드러진 경향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전주는 추백제의 왕도이며, 조선왕도의 발원지이자 수호지이며, 동학 농민혁명의 성지이자 한국 천주교의 순교 성지라는 역사적 유서 또한 깊은 곳이다.

② 컨트롤 타워의 필요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관광개발로 발전 동력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발전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7년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에 따라 65건의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한국 관광의 별’,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년 400만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급속하게 이뤄지는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 한스타일 진흥원,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으로 인한 한옥마을의 화장 등 한옥마을의 지형도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한옥 마을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5) 파주 헤이리 아트밸리³⁶⁾

가. 도시 개관

파주는 1996년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승격된 도시로 세계 유일의 분단 접경 도시이다. 파주는 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 영어마을 등으로 도시의 재생의 문화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화’의 상징 헤이리는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 등지를 틀었다. 파주 통일동산. 군사분계선 근처의 변방이다. 자연과 예술, 문화와 삶이 한데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는 신개념 도시 ‘헤이리’는 지난 1997년 작가, 미술가, 건축가, 영화인, 음악가 등 예술인 18명이 뜻을 모아 예술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민간 기획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예술마을’로 불리는 헤이리는, 다양한 문화 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인간과 문화예술, 자연이 공존하는 작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

2002년부터 헤이리 예술마을 건축이 시작됐고 2007년까지 130여 채의 건물이 세워졌다. 현재 370여 명의 예술인이 헤이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300여 동의 건물이 들어서고 1,000여 명의 예술인이 거주하도록 작은 문화도시를 완성하는 게 목표이다. 이곳에서는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쌈지미술창고, 작가들의 스튜디오, 갤러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다.

나. 조성 배경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아트밸리는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이다. 마을 이름인 헤이리는 파주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다.

헤이리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담론과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룬 공동체마을이다. 회원들이 순수한 정신과 이념을 합일하여 만든 실험적인 마을로서, 예술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1997년 발족된 ‘헤이리 아트

36) 전영옥, 『新문화도시 전략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2006).

밸리 건설위원회’는 37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여 15만 평 규모의 부지를 공동 구매하여 주택,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건축하였다. 2003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07년 말 준공된 건축물이 150개소, 신축중인 건축물이 100여개로 분양된 필지의 60%가 완성된 상태이다. 헤이리 아트 밸리의 토지이용현황은 표8에 정리되어 있는데, 녹지율이 전체 면적의 28.7%를 차지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마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지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9%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뿐만이 아니라 전시·공연·판매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예술 공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8〉 헤이리 아트밸리 토지이용 현황

구 분	주거 지구	비즈니스 지구	생활편의 시설	녹지	도로	주차장	기타	합계
면적(평)	11,996	74,479	1,619	43,667	15,798	4,580	143	152,282
비율(%)	7.9	48.9	1.0	28.7	10.4	3.0	0.1	100.0

▲출처: 전영옥, 『신문화도시전략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헤이리 도시경관의 특색으로 첫째,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를 지향함으로써 산과 구릉, 늪, 개천의 많은 부분이 원형대로 보존되었고 이러한 생태 마을적 접근은 건축, 에너지 시스템, 조경, 도로조성 등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된다. 둘째, 마스터플랜에 의한 ‘녹지네트워크’가 헤이리 단지 전체를 신경조 직망처럼 연결하고 있다. ‘녹지네트워크’는 보행자도로로 활용되며 작은 공원 또는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셋째, 헤이리의 모든 설치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예술작품으로 조성된다. 광장은 물론 보도 블럭에도 예술적 심미안이 일관되게 투영되고 있다. 넷째, 모든 건축은 3층 이하로 세워진다. 기존의 도시를 읊긴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심성과 조화를 이룬 휴먼 스케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원형 그대로의 생태높이 보존되는 한편, 자연하천의 개념이 적용된 수로가 보수 유지되며 친수공간이 만들어진다.

여섯째, 조경은 우리 꽃과 우리 나무로 이루어진다. 우리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은 물론 그것이 구체적인 도시조경에 적용된 성공적인 사례이다. 일곱째, 최첨단 문화벤처도시로 정보화와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광통신을 비롯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보안 및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는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라. 시사점

① 다양한 분야가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가가 한 곳에 모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문화환경이 여러 예술장르가 결합하는 크로스오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 건축, 예술, 일상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하고 그로 인해 전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고 있다.

②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헤이리 아트밸리 조성과정에서 입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 1997년 헤이리 아트밸리 조성 당시 발족한 ‘헤이리 아트밸리 건설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자체적인 건설위원회, 환경디자인위원회, 생활문화경영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 문화적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지침 준수에 동의해야하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본인 소유의 건물의 2/3 이상을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헤이리가 문화마을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달 개최되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헤이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향후 문화예술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됨으로써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주민공동체는 현재는 ‘헤이리 위원회’로 이름을 달리하였다. 건설위원회는 단지계획안을 작성하고 주거단지의 계획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물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해 건축도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매입,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모든 일을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진

행하였다. 헤이리운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헤이리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헤이리 회원도 스스로 선발한다. 문화예술 마을이라는 성격에 맞게 문화와 예술 관련 종사자이거나 문화비즈니스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회원들의 대표적인 이사회는 회의를 거쳐 가입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회원을 선정하게 된다.

③ 준비되고 검토된 마스터플랜

철저하게 검토된 마스터플랜과 건축지침을 통해 단지가 조성된 점이다. 헤이리는 계획 당시부터 단지계획 전반에 대한 세부지침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여 개별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효율적인 공간 분배가 가능하였다. 또한 개별 건축물의 설계에 국내외 건축가가 참여하여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과 예술의 만남으로 알려진 헤이리의 건축물은 중구난방식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건축가로 하여금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일반입주자와 건축전문가 들은 토론을 통해 헤이리 건축설계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건물이 건축되었다.

건축설계지침에는 마을내 건물 볼륨과 높이, 간판 등의 제한과 건물과 건물 사이 울타리를 없애고, 건물엔 페인트칠을 금지해 최대한 인공미를 자제시키는 세부지침들이 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원 광장 등 공유면적을 45%로 규정하고 마을내 개별건물의 3분의 1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헤이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성된 공간이며 건축과 경관을 심미적으로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판페스티벌’을 비롯한 상설공연과 다양한 전시, 공연, 강좌 등이 펼쳐지고 있다. 헤이리는 여러 분야의 창조적 작업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 생산과 집산(集散)의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6) 부천 만화·애니메이션 산업단지³⁷⁾

가. 도시 개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행정구역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도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인구 집중 억제, 무질서한 시가지 팽창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다. 이때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었다.

1990년대 수도권 일대에 대한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천은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실현,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 구조 개편,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을 통한 사회적 불만 요인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기도 부천은 서울시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산업과 교통의 발달로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여 주변 어느 지역과도 연결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역이다. 공업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시가지 확장, 중동 신도시개발 등에 의해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공업 제조업체와 화학공장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어 산업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나. 조성 배경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부천의 노력은 1985~1994년부터 시작되어 문화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선1기(1995~1998) 영상도시를 구상, 민선2.3기(1998~2004)에 문화도시를 구체화하여 민선3기 후반기 문화와 경제의 재도약을 도시발전정책으로 삼아 부단히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 문화도시로서의 하드웨어(Hardware:시설)와 소프트웨어(Software:운영)를 구축하고 지식기반산업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도시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지향한다.

37)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세계지향의 문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이미지 전략을 구축하며 6대 문화사업(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 부천만화정보센터, 복사골예술제,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의 세계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사업의 산업화를 통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박물관, 예술회관,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며 부천영상문화단지를 세계적인 관광테마파크로 조성하고 있다.

부천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는데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총 예산 9조 8천 8백억 원, 이중 문화부문에 총 3,894억 원(7.4%)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의 목적으로 도시의 질적인 성장 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국내 생활만족도 1위 도시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⁸⁾

다. 주요정책 및 추진전략

① 주요정책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주최하며 부천을 세계적인 만화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축제를 통해 만화창작자와 독자, 부천시민을 넘어서서 글로벌 국제만화도시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이 한국만화도시를 표방한 이후 15년 정도 노하우를 축적한 만화 관련 진흥기관이다. 현재 이곳에는 순수창작자들이 300여 분 입주해 있고, 만화박물관 시설이 있으며, 박물관 안 수장고에 만화 관련 유물도 보관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더불어 만화가 클러스터로 형성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다.

부천 국제만화 축제는 실질적으로 만화창작계와 산업계, 학계, 만화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부천시 등 만화계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집단들이 다 함께 만화

38)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참조.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만화 문화·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만들고 있다. 여기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일종의 ‘만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만화 문화’와 ‘만화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② 추진전략

개발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화를 구축하고자 만화콘텐츠의 확장적 기능을 배치하였다.

두 번째는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전체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우선 존의 개념과 범위를 정해 놓고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로 남겨 향후 국내외 시장 환경과 관광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감안하여 최상의 콘텐츠 유입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예정인 2030 부천시도시기본계획 반영을 고려하여 녹지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전체 부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광역권 테마 상권이 들어설 최소한의 부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민간자본과 국책사업 유치를 중심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구성과 시설배치 계획은 우선,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선도적 역량과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만화영상산업의 확장적 기능을 통해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기존 시설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축으로 한국만화자료원과 한류만화센터 등의 국책사업과 문화산업의 창작과 전시,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영상문화인 마을을 배치하였다.

84%의 공정율로 중단된 상설 공연장은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오는 6월중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주변으로는 수도

권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방송영상 스튜디오를 유치하여 드라마와 영화, CF 촬영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한류관광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관광객들의 집객력을 높이고자 지하철역 인근에 저층, 저밀도 스트리트형 광역권 테마상가와 캐릭터 테마파크를 배치하고 단지 중앙에는 사계절 푸른 양잔디 광장을 조성하여 야외 영화상영, 공연, 전시 등이 어우러진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임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아이스월드 부지는 2020년 기부채납 만료시점을 감안하여 테마호텔, CT기업 집적화단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호수공원은 체험관, 캐릭터 가든, 수변카페, 야외 공연장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서, 한국만화자료원과 한류만화센터, 다목적 공연장 및 방송영상 스튜디오 민간 사업자 선정, 대규모 오피스페이스 광장 조성을 1단계 사업으로 정하고 우선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광역권 테마상가와 영상문화인 마을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며, 아이스월드 부지 활용과 호수공원 등의 리모델링은 2020년 이후 3단계 사업으로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관광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급선무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부천에 방문하였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인센티브, 고품격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부천만의 특별 이벤트 등이 그 축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잘만 포장하면 수준 높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 수정하여 5월 중순까지는 기본구상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근간으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과 병행해 2030 부천시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 시사점

① 종합적인 개발 대책이 필요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없이 각종 일회성 사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난개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② 캐릭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 필요

성공한 캐릭터 하나는 다양한 플랫폼을 연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캐릭터 산업의 장점 하나만으로 미성숙한 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책은 위험하다. 국내 캐릭터 매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매장’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즐거움과 판타지를 주는 VMD정책을 도입하고, 매장의 스토리 전개는 캐릭터의 스토리에 편승한 소구력 전략이 주효하다. 매장 진열도 일본 캐릭터 매장처럼 풍성하고 넘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여기에 고객들로 하여금 캐릭터와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찬 참여 프로모션 전술과 이에 따른 포상 전술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산 캐릭터 매장이 살아나려면 제대로 히트한 캐릭터의 한가지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한다. 재미난 이야기는 소비자에게 좋은 기억을 남아 고객 스스로 캐릭터 상품을 구입하고, SNS로 친구들에게 그 즐거운 감흥을 전달해 주는 순기능을 만들어 내는 단계에 진입해야 진정한 국산 캐릭터 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IV. 진주 도시분석

진주는 경상남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는 335,502명이며 총 면적은 712.84km²이다.³⁹⁾

진주는 본래 백제의 거열성(居列城)인데, 신라 문무왕이 점령하여 거열주(州)를 설치하였다(663년). 신문왕 5년(685)에 정주(菁州), 경덕왕 16년(757)에 강주(康州)로 개칭되었다. 고려 태조 23년(940) 3월에는 전국 주부군현의 지명 중 일부를 개명하였는데, 이때 강주는 진주로 개칭되었다. 고려 성종 2년(983) 목(牧)을 설치하였다가, 성종 14년(995) 목을 절도사로 고치고 주군을 두었다. 조선 태조 1년(1392) 진양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2년(1402) 다시 진주목으로 고쳤다. 고종 32년(1895) 진주부 진주군을 설치하였으며, 1896년 경상남도 진주군으로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1925년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였고, 1939년 진주읍을 진주부로 승격시키고, 진주군을 진양군으로 개칭하였다. 해방과 정부수립 후 1949년 진주부를 진주시로 개칭하였으며,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형 도시인 진주시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문화환경

‘문화환경’이란 말은 문화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모여 이루어진 복합 명사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분류 또한 다양하다. 라도삼은 문화환경을 ‘문화를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the culture)’과 ‘문화화 된 환경(cultural environment, cultured environment)’으로 분류한다. ‘문화를 위한 환경’은 전통문화나 예술문화, ‘문화화 된 환경’은 공간문화와 생활문화 등을 의미한다.

‘문화를 위한 환경’에 속하는 예술문화에는 공연, 전시, 창작, 체육이 포함되며 전통문화는 역사와 전통으로 구성된다. 한편 ‘문화화 된 환경’의 범주인 생활문화는 여가, 생활, 향수, 공동체, 교육으로 구분하며 공간문화는 정체성, 미학, 관광, 랜드마크로 구분하고 있다.

39) 2011년 12월 수치임. 진주시청, 『2012 진주시정백서』, 2012.

〈표9〉 문화환경의 다양한 유형 및 형태

구분		시설영역	지역영역	축제·이벤트 영역	
문화를 위한 환경	예술	공연	공연장	문화지구	예술축제
		전시	미술관, 박물관		
		창작	창작스튜디오		
	체육	스타디움	체육공원, 여가공간	스포츠 행사	
	전통	역사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유물전시회
		전통	지방문화원	역사보존지구	전통문화행사
문화화 된 환경	생활	여가	체육시설	산, 하천	시민의 날 행사
		생활	상가	쇼핑몰	상가축제
		향수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거리	발표회, 학예회
		공동체	주민자치센터	지역문화시설 밀집지역	발표회, 행사
		교육	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발표회, 행사
	공간	정체성	특화시설	특화거리	거리축제
		미학	거리 미관/경관	걷고 싶은 거리	예술축제
		관광	기념품 가게	관광특구	관광축제
		랜드마크	오페라하우스	남산, 한강 등	상징축제

▲출처: 라도삼 외,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문화환경 진단지표 개발’에서 문화환경을 문화관광환경, 문화예술활동환경, 생활문화환경, 전통문화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규상의 문화환경은 문화시설, 문화지구, 문화산업단지, 정책상의 문화환경은 문화의 거리, 문화마을, 문화도시, 문화벨트로 구분한다. 문화시책 및 계획상의 문화환경은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한 환경으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문화환경, 문화활동이 집중되는 환경으로 문화시설 혹은 문화단체가 밀집한 환경, 지속적으

로 문화 향수 및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나눈다.⁴⁰⁾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문화환경을 문화예술환경, 역사문화환경, 생활문화환경, 문화산업환경과 이를 포함하는 지역문화환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⁴¹⁾

‘문화예술환경’은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향수에 이용되는 환경으로 공연과 전시 형태로 구분하여 문화예술시설 및 복합단지, 문화예술 행사장 등의 전용시설이 해당한다. ‘문화산업환경’은 문화환경 중 문화산업이 특화된 환경으로서 문화산업, 지식산업, 정보산업으로 구분되며 문화산업은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산업, 출판, 인쇄물, 문화산업클러스터, 문화산업네트워크 등이며, 지식산업은 컴퓨터 개발업과 아카이브 지식산업 등이며, 정보산업은 정보산업 클러스터와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기기, 기술, 역무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구분된다. ‘생활문화환경’은 생활환경 중에서 문화화 된 환경으로서, 크게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잘 가꾸어져 문화적으로 세련된 일반생활환경으로 구성된다. ‘역사문화환경’은 유무형의 문화재 및 전통문화의 창작전수시설과 더불어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마을과 도시, 지역 등의 환경과 전통문화예술인 창작 및 교육 공간과 유산 등이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가 해당한다. ‘지역문화환경’은 문화예술환경, 문화산업환경, 생활문화환경, 역사문화환경을 포괄하는 것이다.

40) 황기원, “문화환경 가꾸기의 새로운 지향”, 『21세기 선진문화환경조성을 위한 문화환경 가꾸기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2002).

41) 황기원 외, 『문화환경가꾸기 매뉴얼·모니터링 체크리스트』(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표10〉 문화환경 분류

구분	구체적 대상			
문화예술환경	공연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	미술관, 조각공원, 화랑, 박물관		
문화산업환경	문화산업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산업,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방송프로그램, 문화재 관련 산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산업 등 -문화산업클러스터, 문화산업네트워크		
	지식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아카이브 지식산업		
	정보산업	-정보의 모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기술, 역무 등과 관련된 산업 -정보산업 클러스터		
생활문화환경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설	생활문화시설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적으로 세련된 문화환경	문화예술 시설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지구	
문화적으로 세련된 문화환경	일상생활환경	공원, 거리, 광장, 공공시설		
		소비문화환경	쇼핑몰, 재래시장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민속마을, 전통마을			
	문화자원보존지구, 미관지구			
	전통문화예술인(주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등) 창작 및 교육 공간 문화예술인의 창작물 관련 유산(생가, 창작지역)			
지역문화환경	포괄적 문화환경, 광역문화환경, 기초문화환경			

▲출처: 황기원 외, 『문화환경가꾸기 매뉴얼·모니터링 체크리스트』(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환경을 기존의 연구의 틀로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표11> 진주시 문화환경

구분		구체적 대상	
지역문화환경	문화예술환경	경남문화예술회관, 진주시전통예술회관, 국립진주박물관, 향토민속관, 경상대학교 부속박물관, 산림박물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물문화관	
	생활문화환경	진주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진양도서관,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전문도서관, 남가람 문화거리, 인사동 골동품거리, 젊음의 광장, 강변도로	
	역사문화환경	진주성, 현자총통, 중완구, 평거동 고려고분군, 차륜식토기, 청곡사 영산회괘불탱.목조제석전.대법천의상, 효자리3층석탑, 용암사지부도, 단성석조여래좌상, 응석사 삼존여래좌상, 성전암 목조여래좌상, 삼선암고려동종, 가진리 새발자국 화석, 우수리 백악기 화석산지, 진주향안, 진양부권 군신도비, 대각서원, 비봉루, 벽오당 현판, 진주검무, 진주한량무, 진주포구락무, 진주오광대	
	축제문화환경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민속소싸움대회, 이상근 국제음악제, 이형기 문화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골목길 아트페스티벌, 진주탈춤한마당	
문화자원	신화, 전설, 민담	양정공, 팔용 태몽, 의적 강목발, 용두산, 조판서의 묘, 명당자리, 방어산, 봉알자리, 처녀골, 진주지맥, 명석, 신선바위와 얘기당골, 남악서원, 개구리바위와 용설터, 금호지, 엄마다리, 나막신쟁이 날, 집현산	
	인물	역사	논개, 김시민, 남명 조식
		문학	설창수(시인), 최계락(시인), 이형기(시인), 이경순(시인), 정동주
예술		이성자(화가), 이상근(작곡가), 손목인(작곡가)	

<표12> 문화재 현황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도문화재 자료
	소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중요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소개	도유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도기념물	민속자료	
150	28	1	17	3	2	1	4	61	36	9	15	1	61

〈표13〉 진주의 문화기반시설 및 전통건축

구분	문예 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도서관	문화원	공연장	문화의 집	무형 문화재 교육 전수관	전통 사찰	서원	향교
개수	2	3	0	1	6	1	4	1	2	8	5	1

본 연구에서는 문화환경 유형이나 분류에 있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진주의 문화환경을 ‘인문환경’, ‘예술환경’, ‘체육환경’으로 분류한다.

진주는 도시 전역에 깊은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역사유적지와 유물, 스토리텔링 소재들이 산재해 있다. 종합예술공간인 경남문화예술회관, 전통예술 공연과 전수의 장인 전통예술회관, 국립진주박물관을 포함한 5개 박물관, 5개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강주연못공원 외 8개 시민공원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본적인 공간도 잘 갖추어져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문화예술행사의 효시인 개천예술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진주가 보유한 역사성과 다양한 문화유산, 인구대비 높은 학생 비율과 다수의 고등교육기관, 전국적 명성의 지역축제 등은 역사와 축절, 교육,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1) 인문환경(人文環境)

진주는 역사·축절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일컬을 만큼 문사철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자산도 탄탄하다. 도시 전역에 깊은 역사만큼이나 풍부한 역사유적지와 유물, 스토리텔링 소재들이 산재해 있으며 인문 기반시설도 풍부하다.

〈표14〉 진주시 인문환경

구분	내용
유적지	진주성, 축석루, 의암, 의기사, 창렬사, 평거동 고려고분군, 차륜식토기, 청곡사, 응석사, 은렬사, 용산사, 연화사, 충의사, 도통사, 두방암, 성전암, 삼선암, 진주향교, 광제서원, 남악서원, 대각서원, 담산고택, 고산정, 동산재, 비봉루, 문산성당, 옥봉성당 외 다수
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향토민속관, 경상대학교 부속박물관, 산림박물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물문화관
도서관	연암도서관, 진양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전문도서관, 비봉어린이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
대학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진주보건대학, 연암공업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기타관련시설	진주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시조문학관
관련유산	현자충동, 중완구, 진양부원군 신도비, 용암사지부도, 진양부 권군신도비, 벽오당 현판 외 다수
관련행사	진주논개제, 이형기 문학제, 개천문학상
관련인물	논개, 김시민, 남명 조식, 장지연, 설창수(시인), 김병호, 최계락(시인), 이형기(시인), 이경순(시인), 정동주

① 주요 유적지

진주성

진주(晋州)는 영남(嶺南)의 중요한 요지로서 백제시대에는 거열성(居列城)이라고 하였으며, 신라가 점령한 이후에는 주(州:居列州)를 두었고 청주(靑州)·강주(康州)라고도 불렀다. 이로 보아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성의 지형은 강이 흐르는 남쪽이 벼랑이며 동서와 북쪽은 들판으로 열려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하륜(河崙)의 성문기(城門記)에 의하면 그의 충각시절에는 성벽이 무너져 그 터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고려(高麗)말에 왜구가 날로 심해지므로 정사년(고려 우왕 3년:1377) 가을에 조정에서 변방을 방비하는 것을 중히 여겨,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어 주(州)·현(縣)의 성(城)을 수리케 하였다. …… 기미년(1379) 가을에 지밀직 배공(裴公:裴克廉)이 강주진(康州

鎭)에 와서 목관(진주목사 金仲光)에게 공문을 보내어 축석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참좌를 보내 공역을 감독하였다. 흠덩이였던 것을 돌로 바뀌서 쌓게 하였으나 공역이 끝나기 전에 왜구(倭寇)에게 함락되었다. …… 왜구가 물러간 뒤에 목사 김공이 민정에 따라 영을 내리기를 ‘주(州)의 성(城)을 이제는 수축 해야겠다’하니 듣는 자가 다 역사하기를 원하였다. 장정에게 역사를 고르게 하고 몸소 감독하여 며칠 안 되어 완성하였다. 성의 둘레는 8백보이고, 높이는 세 길이 넘었다. …… 성(城)이 완성되자 왜적이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여 온 경내가 편안하였다.”고 하였다.

진주성은 고려(高麗)말 왜구 방비의 기지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진주목사(晉州牧使) 김시민(金時敏)이 왜군을 대파하여 임란 3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을 이룩한 곳이다. 1593년 6월의 재첩 때에는 민·관·군 7만이 끝까지 항쟁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으며, 이때 의기 논개(論介)는 적장을 안고 남강(南江)에 투신하여 충절을 다한 곳이기도 하다.

축석루(矗石樓)

미국 CNN에서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선정된 축석루는 남강변 벼랑 위에 우아하고 위엄 있게 서있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로 고려 고종 28년(1241)에 창건하여 8차례에 걸쳐 중수하였다. 남강과 의암, 진주성과 어우러져 천하의 절경을 연출하며 진주 8경 중 제1경을 자랑한다. 벼랑 위에 높이 솟았다하여 이름 붙여진 축석루는 전쟁 시에는 지휘본부로, 평상시에는 향시를 치르는 고시장(考試場)으로 활용되었다.

의암

진주 남강 위에 떠있는 바위로 당초 위험하다 하여 위암으로 불리다가 논개가 왜장과 함께 남강에 투신 순국한 뒤 의암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인조 7년(1629년)에 정대룡이 바위의 벽면에 의암이라고 새겼다.

의기사

1593년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성이 함락되자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한 의기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다산 정약용의 중수기, 매천 황현 및 진주기생 산홍의 시판이 걸려있다.

창렬사

진주성 내에 위치한 사당으로 임진왜란 때 순절한 충무공 김시민 장군 등 39명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호국사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이 절은 원래의 이름이 내성사(內城寺)였다고 한다. 고려말기에 왜구(倭寇)를 막기 위해 진주성을 고쳐 쌓고, 승병(僧兵)을 기르기 위해 창건된 이 절은 임진왜란 때는 승군(僧軍)의 근거지가 되었다.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 승병들이 넋을 기리기 위하여 숙종 대에 호국사(護國寺)란 이름으로 재건하였다고 전한다. 최근에 진주성을 정화하면서 일주문(一柱門) 자리가 발견되어 새로 세웠으며, 사찰의 건물들은 모두 근년에 새로 이룩된 것이다.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임진년(1592년)진주대첩을 높이 받들고, 이듬해 계사년(1593년)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7만 민·관·군의 충혼을 위령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② 주요 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1984년 11월 일곱 번째의 국립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진주는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인 진주성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축석루·쌍충사적비 등 많은 임진왜

란 유적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의 과학적인 보존과 전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96년부터 본격적인 전시 체제를 개편하여 1998년 1월 15일 기존의 가야 문화 위주의 박물관에서 임진왜란 전문 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다. 연건평 1,497평,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상설 전시관(임진왜란실)과 특별 전시관(기획전시), 3D입체영상관으로 편제되어 있다. 상설전시관은 역사문화실, 임진왜란실, 두암실, 야외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유물은 현자총통(玄字銃筒, 보물 제1233호)을 비롯한 3,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임진왜란 관련 무기류, 전적 및 서화류, 도자류 등은 국내·외 여러 곳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많은 유물들을 한곳에 모아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임진왜란 연구자 및 일반 관람자들에게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두암실(김용두실)은 재일동포 김용두가 1997년부터 3차례에 걸쳐 179점을 기증하였고 그 중에 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 유물 중에는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등의 회화와 분청사기, 청화백자 등 도자류를 비롯하여, 금속·목제품 등은 조선시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물이다.

국립 박물관 중 최초의 전문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진주박물관은 종전의 가야 박물관으로서의 지역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박물관에서 역사의 한 주제를 폭넓게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특성화되었다. 임진왜란에 관련된 학술 연구·조사 및 특별 기획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 창달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

- 외국인 프로그램 '한국 문화의 향기를 느끼다'
- 교육프로그램 '과학으로 보는 우리문화재'
- 그림책 읽어주는 박물관
-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 '박물관 가자'
- '찾아가는 박물관'
- 박물관대학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남강댐 건설로 수몰된 대평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조성된 국내 최초의 청동기시대 전문박물관이다. 2009년 11월 개관한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은 부지면적 27,373㎡, 건축면적 2,432㎡의 2층 건물에 상설 전시장, 야외전시장, 수변휴게공원, 수장고,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약 5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대평마을의 생활상을 영상화한 입체영상관의 3D입체영화와 인형극, 야외청동기시대 움집 등 다양한 유물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③ 주요 인물

파성(巴城) 설창수(薛昌洙, 1916-1998)

1916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출생하였다. 1946년 『경남일보』 주필·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좌익문학단체에 대응하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7년 동인지 『등불』에 시 「창명(滄溟)」 등 4편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1949년 영남예술제(1959년 개천예술제로 변경)를 창시하여 1960년 제11회까지 위원장을 역임하는 한편 문교부 예술과장을 지냈다. 1957, 1965, 1975, 1988년 등 4차례 국제펜클럽 한국대표를 지냈다.

시집으로 『개폐교』(1950), 『설창수시선』(1960), 수필집 『성좌 있는 대륙』, 산문집 『청수헌산고』 등과 1984년에는 『설창수문학전집(6권)』을 간행하였다. 그의 『파초(芭草) 제2장』, 『적막』, 『의랑 논개(義娘 論介)의 비문』, 『나의 꿈, 나와 조국』(1992) 등이 있다.

1959년 늘원문화상, 진주시문화상, 1977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과 은관문화훈장, 그밖에 예총예술대상, 향토문화대상 등을 받았다. 1990년 그의 시 정신을 기리는 파성문학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형기(李炯基, 1933-2005)

1933년 1월 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다. 진주농림학교를 거쳐 1956년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졸업한 뒤 《연합신문》, 《동양통신》, 《서울신문》 기자,

《대한일보》 정치부장·문화부장, 《국제신문》 논설위원·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등을 거쳐 부산산업대학교와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후진양성에 힘썼다. 대한민국문학상, 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 서울특별시시문화상 등을 받았다. 1949년 《문예》에 시 〈비오는 날〉, 이듬해에 〈코스모스〉, 〈강가에서〉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최연소 등단 기록을 세웠으며, 1962년 《현대문학》에 평론 〈상식적 문학론〉을 연재하면서 시뿐 아니라 평론 분야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다. 초기에는 삶과 인생을 긍정하고 자연스럽리에 순응하는 서정시를 쓰고, 후기에는 허무에 기초한 관념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감각과 격정적 표현이 돋보이는 시를 발표하였다. 한국문학가협회상(1959), 문교부 문예상(1966), 시인협회상(1976), 한국문학작가상(1982) 등을 받았다. 주요 저작으로는 시집 《적막강산》(1963), 《돌베개의 시》(1971), 《꿈꾸는 한발》(1975), 《절벽》(1998), 《존재하지 않는 나무》(2000), 수필집 《서서 흐르는 강물》, 《바람으로 만든 조약돌》(1986), 평론집 《감성의 논리》(1976), 《한국문학의 반성》(1980) 등이 있다. 그를 기리기 위해 2006년 신안동녹지공원에 시비가 건립되었고 ‘이형기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 관련 행사

- 전국 학생백일장
- 이형기 문학세미나
- 이형기 문학상 시상식
- 문학의 밤
- 시 낭송대회
- 이형기 추모제
- 진주문학기행

최계락(崔啓洛, 1930-1970)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최계락은 1930년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서 출생하였다. 동아대학교 국문과를 중퇴하고 《소년세계》, 《전선문학(戰線文學)》 등

의 편집기자를 거쳐 《국제신보》 문화부장을 지냈다. 그는 진주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경남일보에서 실시한 신춘창작 모집에서 시 〈겨울〉이 가작으로 당선된 것을 비롯해 《소학생》에 동시 〈수양버들〉이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1946년에는 진주에서 잡지 《영문(嶺文)》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1951년 이형기와 함께 ‘이인문학동인회’를 결성해 동인지 《이인(二人)》을 발간하는 등 당시 진주지역의 문학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의 금강 공원에 그의 시비가 세워지고 ‘최계락 문학상’이 제정되는 등 부산에서 그의 문학 세계를 기리고 있는 반면 문학 수업을 받았던 진주중학교나 고향 지수에서는 그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꼬까신〉을 비롯한 그의 동요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김병호(金炳昊, 1904-1959)

1925년 《조선문단》에 독자투고한 시 〈안진방이 꽃〉이 당선되고, 192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오호대나옹(嗚呼大奈翁)〉이 입선된 이후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1928년 3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신시단(新詩壇)》을 창간·발행하며, 동화도 창작하였다. 1931년 3월, 8인 공동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을 간행, 이때부터 필명인 ‘김탄(金彈)’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김병호의 작품은 시 78편, 동시 17편, 동화 2편, 문학론 및 비평 10편, 수필 5편, 민요번역 1편, 과학문 18편, 기타 2편으로 시인으로서의 활동이 뚜렷하다. 〈안진방이 꽃〉, 〈설야〉, 〈고적(孤寂)〉 등의 작품은 계급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다. 민족 주체성의 회복과 사회의식의 표출, 체험의 사실주의적 형상화는 민족저항시의 범주와 현대서정시 사이의 교량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순(李敬純, 1905-1985)

광복 이후 진주지역 문화운동과 교육운동을 주도한 교육자이자 시인. 1905년

11월 11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니혼대학(日本大學)에 입학하였으나 1926년 중퇴하였다. 이어 교호쿠[京北]치과의학전문학교에 입학·졸업한 후 귀국하였다.

1946년 설창수 등과 《등불》 발간을 주도하는 등 예향 ‘진주 살리기’에 앞장섰다. 1985년 향년 80세를 별세하였다. 저서로는 시집 『생명부(生命賦)』(3인 시집), 『태양이 미끄러진 빙판』, 『기중기』, 『낙영송』 등이 있다.

정동주(鄭棟柱)

1949년 8월 11일 경남 진주 출생. 1981년 『호서문학』에 「상뚝군의 노래」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시집 『농투산이의 노래』(1983), 『순례자』(1984), 『논개』(1985), 『그대생각』(1987), 『꽃다발』(1985), 『논두렁에 서서』(1987), 『논개』(1985) 등을 간행하였다. 특히 장편서사시 「논개」는 오늘의작가상 수상작품으로 16세기 조선조 양반사회의 타락상 및 그 아래에서 성장하는 평민의식의 전형으로서 논개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정동주는 산업화의 혼돈 속에서 제기되는 인간상실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절제된 언어로 노래하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소설집 『백정』(1989), 『아스팔트 위의 허재비들』(1989), 『단야』(1992), 『신의 지팡이』(1996), 『콰이강의 다리』(1999) 등이 있다. 그의 소설은 주로 시공간의 배경이 큰 역사물로 민족과 민중에 대해 주목하는 작품들이다.

장지연(張志淵, 1864-1921)

1864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상주군 내동면 동곽리에서 태어났다. 장지연은 일찍이 장석봉(張錫鳳)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894년(고종 31) 진사가 되었다. 1896년 7월 독립협회에 가입 활동하는 한편, 1898년 9월 『황성신문』 창간 시 기자로 활동한 이래 한말 대표적인 언론인으로서 명성을 얻었다. 1921년 11월 2일 경상남도 마산 원정 자택에서 요양 중 향년 58세로 별세하였다.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활동한 장지연은 국권회복을 위한 실천력을 겸비한 참다운 언론인으로서 기개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905년 을사

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한 <시일야방성대곡>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불굴의 저항정신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지인 『경남일보』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간되자 주필로 취임하여 이듬해 8월 29일 황현(黃玹)의 <절명시(絶命詩)>를 게재하였다가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다.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계몽활동으로서 언론인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강상호(姜相鎬, 1882-1957)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가. 본관은 진주. 호는 벽촌(僻村). 정3품 통정대부의 벼슬을 한 강재순의 4남 1녀 중 장남이다. 1882년(고종 19)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넉넉한 경제적인 여건을 배경으로 신학문을 접한 후 일찍부터 사회운동에 눈을 돌렸다. 1919년 3·1만세운동 때는 진주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29명 중 한 사람으로 대구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기도 하였다. 1957년 별세하였다.

1910년 공립진주보통학교(현 진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진주공립실업학교(현 진주농림전문대학)를 졸업하였다. 그 후 일본인이 세운 경남진흥 측량학교에 잠시 몸을 담고 측량법을 배웠다. 현 봉래초등학교 전신인 봉양보통학교를 설립해 신분차별 없이 학생들을 뽑아 가르쳤다. 공립진주보통학교와 진주공립실업학교 초대사친회장을 지냈으며, 동아일보 초대 지국장을 역임하였다.

1923년 4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신현수(申鉉壽)·천석구(千錫九) 등 양반 출신 사회운동가들, 경제력을 가진 백정 이학찬(李學贊) 등과 어울려서 백정의 인권운동을 위해 형평사(衡平社)를 설립하였다. 형평사는 계급을 타파하고 백정에 대한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상호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창립 1년 만에 열린 1924년 2월의 형평사 전조선 임시총회에서 형평사 중앙본부를 진주에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진주파의 지도자로서 형평운동을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계급해방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서울파와 갈등을 벌였다. 그 후 형평사의 통합에 대한 사회여론의 압력으로 서울형평사와 진주형평사는 중앙총본부라는 이름으로 재통합하였는데, 그때 강상호는 은퇴를 선언하였다.

강상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례는 형평장(衡平葬)이란 이름으로 치러졌다. 장례식 때 상여 뒤로는 그가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백정과 바람에 휘날리는 만장(輓章)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논개(論介, ? -1593)

전북 장수 출신으로 성은 주씨(朱氏). 1593년(선조 26) 진주성전투에서 전사한 경상우병사 최경회(崔慶會) 혹은 충청병사 황진(黃進)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1593년 6월 김천일(金千鎰), 최경회, 황진, 고종후(高從厚) 등 관군과 의병의 결사적인 항전에도 불구하고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구로다 나가마사 등이 이끄는 일본군에게 진주성이 함락되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유린하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에 의분한 논개는 왜장들이 축석루에서 벌인 주연에 기녀로서 참석하여 술에 만취한 왜장 게야무라 후미스케를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이때부터 논개가 떨어졌던 바위를 의암(義巖)이라 부르게 되었다.

1721년(경종 1) 경상우병사 최진한(崔鎭漢)이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세웠으며, 1739년(영조 15) 무렵 경상우병사 남덕하(南德夏)가 논개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의기사(義妓祠)라는 사당을 세웠다. 1868년(고종 5) 진주목사 정현석(鄭顯奭)의 노력으로 매년 6월 논개를 기리는 의암별제(義巖別祭)가 마련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중단되었다. 2002년부터 매년 5월 진주성 일대에서 논개제가 개최되고 있다.

• 관련행사

논개제

개최시기: 매년 5월 넷째 주 금, 토, 일

개최내용: 의암별제, 논개순국재현극, 진주교방의 악가무, 논개음악회, 사랑 실은 수레와 꿈꾸는 논개 이야기, 체험행사 등

최초개최년도: 2002년

참가인원(연인원): 10만 명

홈페이지 <http://www.jinjunongae.com>

장 소: 진주성 일원

주 최: 진주시

주 관: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

본 행 사: 현대레 및 신위순행, 의암별제, 개제선언 및 논개 순국 재현극, 진주교방의 악가무, 논개 음악회, 사랑 실은 수레와 꿈꾸는 논개 이야기, 진주교방의 악가무, 남강을 따라 흐르는 영남의 춤, 대취타로 여는 축제 한마당, 진혼굿

부대행사: 교방문화 체험, 교방복장 및 전통의상 입어보기 체험, 조선시대 진주목 관아체험, 전통놀이 체험, 논개 상상화 그리기 체험, 논개순국·임진대첩도 탁본체험, 인력거 체험, 진주 논개제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동반행사: 진주남강 물축제, 진주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진주시 풍물한마당 축제, 어린이 그림 그리기,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3D 입체영화 “진주대첩” 상영

조식(曹植, 1501-1572)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자는 건중(健中) 혹은 건중(健仲)이고, 호는 남명(南冥)·방장산인(方丈山人)이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본관은 창녕으로, 경상도 삼가현(三嘉縣) 토골[兎洞]에 있는 외조부 이국(李菊)의 집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연구에 몰두하여, 주자(朱子)·정자(程子) 등의 초상화를 손수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펼쳐놓고 자신을 독려하였다. 부친이 문과에 급제하자 서울로 이주하였다. 서울에서 이준경(李俊慶)·성운(成運) 등과 교류하였다. 1520년 사마시 초시와 문과 초시에 합격했으나, 그 다음해 합격에 실패하였다. 1526년 부친이 죽자 상을 마치고 의령의 산사에서 공부를 하였다. 1531년 생계가 곤란하자 살림이 넉넉한 김해의 처가를 찾아가 탄동(炭洞)에서 '산해정(山海亭)'이란 정자를 지어놓고 생활하였다. 1533년 향시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이듬해 회

시에는 합격하지 못하였고, 1536년 다시 향시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1537년의 회시에 나아가지 않았다. 1539년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현릉참봉(獻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544년에는 관찰사가 만나기를 청하여도 거절하였다. 1549년(명종 4) 전성서주부에 특진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집 근처에 계복당(鷄伏堂)과 뇌룡사(雷龍舍)를 지어 강학에 전념하였다. 1552년 종부시주부로 다시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1554년 관직에 나아가라는 이황(李滉)의 권고도 거절하였다. 그 뒤 1556년 단성현감, 1560년 조지서사지 등으로 부름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취임하지 않았다.

벼슬을 거절하고 은일로서 학문에만 전념하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1551년 오건(吳健), 1556년 하항(河沆), 1563년 김우옹(金宇顛), 1565년 최영경(崔永慶), 그 이듬해 정구(鄭逵) 등이 찾아와 사사하였다. 1561년 지리산 덕천동(德川洞)으로 옮겨 산천재(山天齋)를 짓고 강학에 전념하였다. 1567년 5월 명종이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같은 해 8월에 상서원판관에 임명하여 두 차례나 부르자 입조하였으나, 치란에 관한 의견과 학문의 도리를 논하고 낙향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고, 오직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만 힘썼다. 선조 때 대사간, 1615년(광해군 7) 영의정이 추증되었다. 진주의 덕천서원(德川書院), 김해의 신산서원(新山書院), 삼가의 용암서원(龍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남명집』·『남명학기유편』(南冥學記類編)·『파한잡기』(破閑雜記) 등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남명가」·「권선지로가」(勸善指路歌) 등이 전한다.

조식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정구·곽재우(郭再祐)·정인홍·김우옹·최영경·김효원(金孝元)·오건·이제신(李濟臣)·강익(姜翼)·문익성(文益成)·박제인(朴齊仁)·조종도(趙宗道)·곽일·하항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은둔적인 학풍을 지니고 있어서, 조식이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몰두한 행적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식은 경상좌도의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경상우도의 학풍을 대표하였는데, 그의 문인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진주 등지에 우거하면서 유학을 진흥시키고 문풍(文風)을 일으켰다. 조식의 문인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에 참여하여 투철한 선비정신을 보여주었다.

조식은 반궁체험(反躬體驗)과 지경실행(持敬實行)을 중시하고, 특히 경(敬)과

의(義)를 높였는데, 마음이 밝은 것을 '경'이라 하고, 외적으로 과단성이 있는 것을 '의'라고 하였다. 그는 '경'으로써 마음을 굳게 하고 '의'로써 외부생활을 처리하여 나간다는 의리철학 또는 생활철학을 표방하였다. 조식은 특히 실천궁행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는 일체 타협하지 않았다.

④ 주요 사상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1923년 진주에서 일어나 전국 조직으로 확대된 형평사의 백정신 분철폐운동이다. 백정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법제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은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1923년 4월 2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양반 출신 사회운동가들과 장지필과 같은 백정 출신 지식인, 이학찬과 같은 경제력을 갖고 있던 백정은 계급을 타파하고 백정에 대한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백정도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한다는 목적 하에 형평사를 설립하였다.

형평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형평사의 인간평등정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천운동을 펼치고자 하였다. 형평운동 70주년을 기념하여 '형평운동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으며, 1996년에는 시민 1500여명의 성금으로 진주성 정문 앞에 형평운동 기념탑을 세웠다. 최근에는 해마다 '진주인권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인권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대안을 찾는 역할을 해 왔다.

남명사상

남명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첫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개인의 수양이다. 둘째는 민본의식이며, 셋째는

실천적 학문관이다. 현대적 삶에서 유교 사상은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남명의 사상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유해 갈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적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정신적 초석이 될 수 있다.

⑤ 기타 행사

진주민속소싸움대회

개최시기

- 전국대회 : 10월 * 년 1회 (개천예술제 기간 중)
- 토요상설경기 : 매년 3월-11월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 ~ 6시)

홈페이지 <http://www.jinjubulls.com>

장소: 진주 전통 소싸움 경기장(진양호 후문)

주최/주관: 진주시,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진주시지회

주요 행사: 소싸움 대회와 각종 이벤트행사

진주의 소싸움 대회는 삼국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戰勝)기념 잔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소싸움 대회의 상징지이다. 진주 소싸움은 일제 때 민족의 억압된 울분을 발산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2006년 3월 진주시는 진주소싸움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양호 공원 후문 앞 50,648㎡ 부지위에 3,000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형태로 진주 전통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였다.

2) 예술환경

진주는 일찍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일컬어져 왔다. 특히 진주검무·진주포구락무·진주교방굿거리춤·신관용류가야금산조·선유락 등 전통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진주만의 독특한 전통예술을 계승하기 위하여 진주시립 예술학교를 운영해왔으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이 중단되어오다가 진주

시 전통예술회관 건립을 계기로 2003년 진주시립전통예술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진주지역 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 개천예술제라 할 수 있다. 개천예술제를 통해 배출된 많은 예술인들이 음악, 미술, 사진, 무용, 연극, 영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진주시에는 23개소에 문화예술공간이 있으며, 진주시립합창단 등 3개의 시립예술단을 비롯하여 8개 분야 36개 단체에 3,276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표15〉 진주시 예술환경

구 분	내 용
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예술유산	진주검무, 진주한량무, 진주포구락무, 진주오광대, 영산회괘불탱
기타관련시설	남가람 문화거리, 인사동 골동품거리, 젊음의 광장,
관련행사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이상근 국제음악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골목길 아트페스티벌, 진주탈춤마당
관련인물	이상근, 강신호, 박생광, 양달석, 조영제, 홍영표, 김종태, 정대기, 허민, 황현룡, 김우동, 오제봉, 정명수, 정현복, 하동주, 김소량, 유성준, 최순이, 정돈산, 손목인, 이봉조, 이재호, 정민섭

① 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1988년 8월 29일에 건립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총 1,564석),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부대시설 등 친환경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전문 공연장과 미술 전시관을 갖춘 문화공간이다. 1981년 10월 설계공모에 김종업의 작품이 당선되었고, 1984년 12월 18일 공사에 착공하여, 1988년 8월 29일 개관하였다.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은 진주지역 무형문화재의 공연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2002년 6월에 개관한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검무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인 한량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포구락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인 진주교방 굿거리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등 중요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에 힘쓰고 있다. 진주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간이다.

② 예술유산

진주검무

진주검무는 진주지방에 전승되는 여성검무로서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하며 대궐안 잔치 때 행하던 춤의 하나이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소년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었다는 설과 논개의 얼을 달래기 위해 진주기생들이 칼춤을 춘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현재 여러 검무가 존재하지만, 진주검무는 옛 궁중에서 행해지던 원형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진주검무는 도드리장단, 느린 타령, 빠른 타령에 맞추어 조선시대 무사복을 갖춘 8명의 무용수가 2줄로 마주보고 서서 양손에 색동천을 끼고 칼을 휘저으며 춘다. 춤사위의 종류로는 한삼을 끼고 무릎을 굽혀 도는 숙은사위, 앉아서 추는 앉은사위, 허리를 앞으로 엮었다가 뒤로 제치며 빙빙 도는 연풍대가락, 맨손으로 팔을 펴는 손사위 등으로 다양하며 독특하다. 반주악기로는 피리, 저, 해금, 장구, 북 등이 쓰인다.

현재의 진주검무는 당시 진주감영(현재의 시청)에 속해 있던 교방청(敎坊廳: 일종의 기생학교) 기녀들의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궁중 기녀들이 낙향하여 관청 기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검무는 연출형식,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열던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진주교방굿거리춤

진주 지방의 교방에서 추어지던 춤. 다른 말로 기방굿거리·굿거리춤·수견춤·입춤으로 불리어진다. 이 춤은 주로 3분박 4박자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고려 문

중 때 들어와 고려, 조선조를 통하여 1900년대 이후 승무와 더불어 여기들에 의해 교방에서 예술적으로 다듬어져 왔다. 궁중의 각종 연회에서 중요한 레파토리로 가장 많이 상연되어져 왔으며 9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진주 교방굿거리춤의 발단은 조선조의 몰락으로 관기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궁중 여기들이 기녀조합을 결성하여 그곳에서 가(歌)·무(舞)·악(樂)으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는 한편 무속의 금기령에 의해 무당이 사찰과 관기로 분화되면서 일부 무무(巫舞)가 기방으로 이입된 것이다.

이 춤의 보유자인 김수악(金壽岳)은 1930년대 전통무용으로 승화시킨 한성준과 1940년대 이 춤을 지도했던 고종시 궁중무희였던 최완자 그밖에도 김옥만·김녹주 등에 의해 사사받아 전승·보존되어 오고 있다. 이 춤은 당대 명기들로 하여금 판소리와 함께 진행·연출하였으며 춤사위의 이름도 대삼·소삼·잉어걸이·완자걸이 등 음악의 창법이나 가락의 호칭과 혼합하여 쓰고 있다.

이 굿거리춤은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흥·멋·태를 고루 갖추어 보여주는 춤으로 그 성격이 차분하면서 끈끈하고 섬세하면서 애절하여 정·중·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1997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진주포구락무

경상남도 진주 지방의 교방에서 추던 일종의 놀이춤. 내용채구(용알·공)를 구문의 풍류안(風流眼)에 던져 넣는 놀이를 음악과 무용으로 형상화한 궁중가무의 하나이다. 이 춤의 내력은 고종 때 진주부사를 지낸 정현석(鄭顯奭)의 교방가요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궁중문화가 지역화된 춤이다. 궁중가무가 지방교방으로 내려오면서 의상·도구·절차 등에서 변화한 것으로 점차 민속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진주 지역의 특색 있는 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이 춤의 구성과 내용은 중앙에 포구문을 중심으로 축의 편싸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장단에 따른 갖가지 모양의 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추는데 좌·우 순서로 한쌍 씩 차례로 마주서서 주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오른손에 갖고 있는 채구를 던져서 풍류 안에 넣으면 지화자를 부르고 명중

시킨 사람이 나아가 앞으면 봉화(奉花)가 삼지화(三枝花)를 머리에 꽂아준다. 만약 넣지 못하면 봉필(奉筆)은 벌칙으로 얼굴에 먹점을 그린다. 차례대로 공을 던져 승부를 결정하고 나면 전원이 포구문을 돌면서 지화자를 부르고 자리로 되돌아간다. 창자(唱者)가 나와 선비가를 부르면 무용수들은 춤을 추며 후렴을 받는다. 전원이 수장창(收場唱)을 부르며 퇴장한다.

장단은 주로 엽불도드리, 타령에 의해 진행되고 악사는 7명(박 1, 대금 1, 피리 2, 해금 1, 북 1, 장고 1)과 창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춤의 예능보유자인 정금순(鄭今順)이 중심이 되어 회원 60여 명과 함께 전승되고 있다. 1991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申寬龍流 伽倻琴散調)

경상남도 진주시의 신관용(申寬龍, 1911-1957)으로부터 강순영에게 전승되어 오는 가야금 산조.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도록 짜여진 산조로, 5~6개의 장단 구성에 의한 악장으로 구분되며,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보다 먼저 발생하였고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다. 연주하는 명인에 따라 각기 나름대로 가락을 지어서 보유자(保有者)의 이름을 붙여 ‘제(制)’ 혹은 ‘류(流)’로 가야금 산조가 전해지고 있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는 전북제(全北制) 중 이영채제(李永彩制)에서 신관용에 의해 전해져 현재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인 강순영에게 전승되어 오는 가야금 산조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청곡사 영산회괘불탱(靑谷寺 靈山會掛佛幀)

석가가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도를 그린 괘불로 길이 10.4m, 폭 6.4m이다. 1722년(경종 2) 화승(畫僧)인 의겸(義謙)이 제작하였다. 유파(流派)를 형성하기도 한 의겸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경남 운흥사(雲興寺)의 《팔상도(八相圖)》(1719), 쌍계사의 《팔상도》(1728), 전남 송광사(松廣寺)의 《영산회상도(靈山會相圖)》 등이 있다.

18세기 초반의 불화 가운데 뛰어난 작품이며, 의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곡사 영산회괘불탱은 중앙의 석가불인 본존(本尊)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이 연꽃가지를 들고 본존을 모시고 있다. 석가불의 두광(頭光) 좌우에는 백의관음(白衣觀音)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있고, 석가의 대표적 제자인 아난(阿難)과 가섭(迦葉) 등도 보인다. 그리고 화불(化佛) 2구가 배치된 삼존불 형식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법의(法衣) 등에 장식되어 있는 화려하면서 도식적인 꽃무늬 장식 등은 18세기의 한 주류를 보여 주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석가·문수·보현의 삼존불 입상이라는 점에서 예천 용문사의 괘불도와 비교되며, 불교회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88년 괘불함과 함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가치를 재평가받아 1997년 국보 제302호로 지정되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위탁·보관하고 있다.

③ 관련 시설

남가람 문화거리

도심 속 문화, 휴식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된 시범문화예술거리.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전통과 독특한 문화적 개성을 지닌 도심 속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문화예술거리로 지정 조성되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문화예술의 거리)와 2단계(역사의 거리)로 구분되어 조성된 남가람 문화거리는 10년간의 대역사로써 진양교 - 경남문화예술회관 - 진주교 - 천수교에 이르는 칠암, 망경지구 남강변 일대(74,546㎡, 2.9km)의 죽림을 복원하고 야외공연장, 기념비, 조형물, 휴식공간, 천년광장, 중앙광장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다.

도시의 중심부를 흘러가는 남강의 빼어난 풍광과 진주성, 뒤벼리의 절경을 배경으로 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도심 속의 문화공간이다.

문화예술의 거리 : 조각광장, 공연장, 전시장, 송죽매단지, 만국화 및 야생화단지, 죽림단지, 편의시설, 체육시설

역사의 거리 : 천년광장(밀레니엄광장), 죽림산책로, 기념비광장, 중앙광장, 체육시설

인사동 골동품거리

진주성 북장대 아래의 도로를 따라 600m 길이에 조성된 거리

고문서와 전적, 서화, 탁본류, 민속자료, 기타 문화재, 도자기, 조각품, 공예품, 석물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리

2000년 6월, 정부에서 지정한 「새즈믄해(천년)거리」

남성동, 인사동 일대에 21개소의 골동품상점 분포

젊음의 광장

1996년 진주 도심의 최대 변화가에 조성된 ‘차 없는 거리’

전시회, 음악콘서트,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진주미술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소재의 미술관으로 현대미술의 조사 연구와 미술작품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해 건립되었다. 진주미술관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 판화, 염색공예, 섬유미술, 조각에 이르는 국내 작가 작품 28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6회 이상의 특별전과 기획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④ 주요 인물

이상근(李相根, 1922-2000)

경상남도 진주시 출신의 대표적인 현대음악가. 이상근은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음악가로 알려져 있으며, 음악 작곡 및 교육, 음악평론 등의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였고, ‘부산·영남 지역 음악의 대부’ 혹은 ‘한국의 차이코프스키’로도 불린다. 그는 교향곡과 관현악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가곡, 합창곡, 오페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대체로 ‘한국적 화음’과 ‘선율법의 독창성’을 특징으로 한다.

교향곡으로는 「교향곡1번(서완조)」(1955년), 「교향곡6번(한국의 춤)」(1995년) 등이 있으며, 관현악곡으로는 「축전서곡 55432」(1976년), 「무악 81」(1981년) 등

이 있다. 피아노곡으로는 「한국의 꽃」(1992년)과 「한국의 춤」(1994년)을 비롯하여, 오페라 「부산성 사람들(1985년)」, 국악관현악곡인 「조우(遭遇) 시리즈 11곡」 등 다수의 가곡과 합창곡을 남겼다. 2006년에는 이상근의 음악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진주시는 반도병원에서 봉래초등학교에 이르는 1km의 거리를 ‘상근로’로 명명하였다. 더불어 (사)이상근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2008년부터 이상근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성자(1918년 ~ 2009년 3월 8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1935년 진주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현 진주여고) 졸업 후 독일하여 1938년 동경 잇센여자대학을 마쳤다. 1951년 프랑스로 건너가 동양적 향취와 이미지를 담은 유화, 목판화, 도자기 등을 창작하였다. 한국적 사상과 시정을 프랑스 미술계의 흐름 속에 합류시킨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었고, 이후 프랑스는 물론 세계전역에 걸쳐 작가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바르주투레트에서 사망하였다.

파리 시립 미술관장이었던 J.라세뉴는 이성자를 “자신의 동양적인 유산에서 나온 오묘한 성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양미술의 흐름 속에 용기 있게 합류한 본보기로서 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양의 예술가”라고 평하며, ‘동녘의 대사 (ambassadrice de l'aube)’라는 애칭으로 부여하였다. 세계적인 프랑스의 문학가인 미셸 뷔뜨르는 이성자를 “프랑스의 문화와 인정(人情) 세태(世態)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자연에 대해서도 가장 정통한 한국의 대표적인 여인이다.”라고 평하였다. 서정주는 역으로 “이성자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얼마를 살건 간에 자기 조국 한국의 정신적인 장점과 그 끈기와 또 처녀적인 순수성을 언제나 잘 아울러 간직하고 있는 신화(神話)적인 화가다”라고 평하였다.

진주시는 기증받은 유작들을 전시할 ‘이성자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강신호

강신호는 진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나와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서 공부하였다. 휘문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인 1924년에 제3

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아침의 정물」로 입선하였다.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입학과 동시에 신춘미전에 「작품 제9」를 출품하여 특선하였다. 이밖에 중앙미술전에 「정물」, 「의자」를 출품해 입선하였다.

1925년 여름에 진주성 내 공원에서 자신의 선전 입상작과 여러 점의 누드화를 포함한 작품들로 서양화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1926년과 1927년에는 선전에 출품해 특선한 강신호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1927년에 진주물산 장려관에서 제2회 개인전을 준비하다가 남강에서 익사하였다. 전시회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중단되었던 강신호의 제2회 개인전은 1927년 7월 19일부터 진주청년회의 주관으로 열렸고, 23세로 요절한 천재의 낮을 기려 축석루 아래 남강변 암벽에 강신호의 이름을 새겼다. 1928년에는 서울 천도기념관에서 강신호 유작전이 열렸다.

박생광

말년 팔순의 나이에 채색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진주 출신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1904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보통학교와 진주농업학교를 나왔다. 1920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교토에서 다치가와미술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한 뒤, 1923년에는 교토시립회화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신일본화를 공부하였다. 1929년부터 일본의 명랑미술전, 신미술인협회전 등 여러 미술전에 출품하였으며, 1940부터 1944년까지는 일본미술원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였다. 해방 직전에 귀국하여 다솔사에 출입하였으며, 광복 후 경상남도 진주에서 청동다방을 운영하면서 자택을 문화의 중심지로 활용하였다. 당시 진주지역 예술문화계의 중심인물로서 1949년에는 영남예술제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전쟁 후에도 진주에서 다방을 경영하며 백양회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진주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1968년에 상경하였다. 1974년에는 다시 도일하여 일본미술원전의 원수가 되었고, 이듬해 세 차례의 개인전을 도쿄에서 개최하였다. 1977년 서울 진화랑에서 연 귀국전은 왜색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1981년 백상기념관 개인전을 통해 독창적인 채색 한국 화가로 각광을 받았다. 이후 경주 여행과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며, 1984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

서 개최된 한국미술 특별전에 초대 출품하였다. 그 외 1973년에 개최된 ‘한국현대작가 100인전’, 1974년에 개최된 ‘한국원로작가 수작전’과 1976년에 개최된 ‘한국현대동양화대전’, 1984년에 개최된 ‘현대미술 초대전’, 그리고 1985년에는 ‘한국미의 원초적 형상전’에 출품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월벽」(1958), 「밤의 매화」(1976), 「무당」(1981), 「무속」(1983) 등이 있다. 1963년에는 경상남도 문화상, 그리고 1881년에는 제7회 중앙미술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985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2004년에는 내고 박생광의 탄생 100주년 및 서거 20주기를 맞아 서울, 수원, 창원, 진주, 부산에서 회고전으로 ‘박생광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1970년대 일본 체류 시절 채색을 절제하고 그린 박생광의 작품들을 통해 신일본회풍의 영향을 받은 정교한 배치와 색면분할적 화면을 엿볼 수 있는데, 1980년대에 새 안료기법을 개발하며 자신만의 채색회풍을 성취하기까지 복잡한 내면적 고뇌와 슬한 암중모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생광은 한때의 왜색이라는 비난을 딛고 말년에 한국의 역사 및 민화, 무속화, 그리고 불화에 기초하여 한국 채색화 전통의 현대화를 이루어낸 화가로 평가된다.

양달석

호는 여산(黎山). 1908년에 경상남도 거제에서 출생하였다. 진주농업학교와 일본 동경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 독립전과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출품하여 여러 차례 입선하였다. 6·25 당시에는 종군화가로 복무하였으며, 부산 미술협회장, 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를 역임하였다. 오랫동안 개천예술제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진주미술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인물로 1984년에 사망하였다. 목가적이고 동심어린 화풍으로 유명하다.

조영제

조영제의 호는 효석(曉石)으로, 1912년에 진주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서양화의 기법을 습득하였으며, 광복 전에는 진주의 대표적인 선전(鮮展) 수상작가가 되었고, 광복 후에는 진주의 미술활동을 주도하였다. 1984년 72

세의 일기로 별세할 때까지 줄곧 진주에 살면서 진주의 서정이 담긴 유희와 수묵 담채화를 그렸다. 대표작으로는 「축석루, 여름」, 「축석루, 가을」, 그리고 「축석루, 겨울」 등이 있다.

고운(槁雲) 홍영표

1917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고등보통학교(현 진주고등학교)와 일본 동경가와바타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홍영표는 파스텔화 작가로 국내에서도 독보적 존재이며, 진주 지역의 서양화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종태

1915년 진주시 대안동에서 출생한 사진작가이다. 1951년 진주에서 치러진 영남예술제의 사진부를 창설하였고 진주를 중심으로 사진예술의 보급을 위해 진주사진클럽을 창설하고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각종 대회 심사 및 지도위원으로 활동한 사진예술가이다. 사진의 불모지였던 진주지역에 사진을 보급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진주의 사진예술 위상을 높였다.

정대기

1886년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원동에서 출생하여 초년에 한문을 수학하고 신문학을 독학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국내의 서예가 및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일본, 대만 등지를 순유하였다. 1953년에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별세하였다.

정대기는 동양화 전반에 걸쳐 능하였으나 특히 사군자에 깊이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나무를 뛰어나게 잘 그렸다. 사후 추모 목죽비가 비봉산 자락의 의곡사 입구에 세워졌다.

허민

한국화의 전통필법으로 산과 화조를 주로 그렸으며, 내고 박생광·풍곡 성재 휴·유당 정현복 등과 함께 진주지역의 미술발전에 공헌하였다.

동초 황현룡

1883년에 하동에서 출생하였고, 목단을 특히 잘 그린 한국화가이다.

소치 허유에게서 사사하고 의재 허백련과 교류하였다. 전국을 돌면서 전시회를 열었고, 일본 화단과도 활발한 교류를 벌였다.

김우동

경상남도 진주에서 활동한 서예가로, 자는 신원(信元), 호는 석천.

동양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법(書法) 연구에 노력하여 40대에 추사체(秋史體)와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융합한 독창적인 서법을 개발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오제봉

일제강점기의 진주지역을 대표하는 서예가. 오제봉은 1908년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일찍이 일생무상을 느껴 출가하여 승문에 입문한 이래 서예에 정진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진주 의곡사의 주지로서 향토예술인 양성과 후원에 힘썼다. 1949년 11월에는 설창수·박생광·이경순 등과 함께 영남예술제(현 개천예술제)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정대기·정현복·정명수·강주식·김창국 등과 함께 서예부문 행사를 주관하였다. 1963년에는 허백련·김은호·이상범·김기창·임호·배길기 등과 유명작가 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예향도시 진주 건설에 앞장섰다.

하동주

하동주는 1879년에 경상남도 거제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진주로 이주하였으며, 아버지 하제봉(河濟峰)으로부터 추사체를 전수받아 추사체로 일가를 이룬 진주의 대표적인 서예가이다. 일생을 진주시에 주로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은초 정명수와 도연 김정에게 추사체를 전수하여 그 맥을 잇게 하였다. 서울 종로 선학원 법당, 중앙선원 편액, 진주성 내 창렬사 편액 등 다수의 사찰에 현판이 소장되어 있다.

은초 정명수

추사체의 대가 성파 하동주(河東洲)에게서 체계적으로 서예를 배워 그 맥을 이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입선하였고 수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1950년대에 내고 박생광, 풍곡 성재휴, 운전 허민, 유당 정현복, 청남 오제봉 등과 교류하면서 진주미술협회와 영남예술제 창립에 기여하였다. 만년에는 추사체 특유의 강건함과 자신의 부드러움을 잘 융화시킨 독창적인 서체를 개발하여 튼실하면서도 부드러움을 드러낸 서체를 구사하였다. 주요작품으로 해인사 「해탈문」, 축석루 「남장대」, 「서장대」, 「진남루」 등이 있다.

정현복

1905년 합천군 쌍백면 묵동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에 친척인 노백헌 정재규로부터 한학과 서예를 배웠고 진주로 이주하여 서예가로서 활동을 하였다. 전통서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로 특히 횡행서에 뛰어났다. 축석루의 현판을 썼다.

김소량

신극 초창기의 배우로 본명은 김현(金顯)이다. 1911년 초겨울에 임성구(林聖九)가 최초의 신파극단인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했을 때, 창립단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신극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뒤, 혁신단의 여러 작품에 출연하다가 1918년 2월 혁신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취성좌(聚星座)라는 신파극단을 조직하였다. 1929년 취성좌를 해체한 뒤, 삼천가극단(三川歌劇團)을 이끌던 권삼천(權三川)과 삼천가극단의 주간이 되었다. 그러나 삼천가극단도 흥행에 실패하고 흐지부지되자 연극계를 떠나 고향인 진주에 내려와 본성동에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쳤다.

1918년 2월 27일 봉건유습(封建遺習)의 타파와 세계의 신진문명의 발달상을 소재로 한 최찬식(崔讚植) 원작의 신소설 「추월색(秋月色)」을 단성사에서 창립공연 한 것을 비롯하여 「야성(夜聲)」, 「진중설(陣中雪)」, 「천민(天民)」, 「가막돌」, 「그림엽서」, 「온천장의 일야」, 「국경」, 「편시춘(片時春)」, 「영겁의 처」, 「오호!

천명(嗚呼天命), 「극낙조(極樂鳥)」, 「가추사」, 「짚발잔」, 「유량의 남녀」, 「북극의 사랑」, 그리고 이상협(李相協)의 신문소설 「눈물」과, 「불여귀」, 「처(妻)」와 같은 변안극 등 수많은 작품을 단성사, 광무대, 우미관 및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공연하였다. 또한 전임연출제도를 도입하여 연출가 천한수(千漢洙)와 배우 하지만(河之滿)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 연출을 공부시키고 새로운 극본을 구해 오게 하였으며, 막간극을 창안하여 막간에 촌극과 음악 및 무용 등을 선보이는 등 신파극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성준

유성준은 1874년 전라남도 구례(求禮) 출신으로 진주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1949년에 세상을 떠났다. 판소리 이론으로 첫손을 꼽던 명창 김세종에게 사사했고 당대의 명창 전도성(全道成)과 쌍벽을 이루었다. 고종(高宗)으로부터 참봉직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유성준은 「수궁가」와 「적벽가」를 잘하였고, 「수궁가」는 당시에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의 「수궁가」는 임방울(林芳蔚)·김연수(金演洙)·정광수(丁珖秀)·박동진(朴東鎭)·박녹주(朴綠珠)·박귀희(朴貴姬) 등에게 전해졌다. 진주 지역에 판소리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데 힘쓴 인물이다.

최순이

1892년 7월 7일 진주에서 출생한 최순이는 조선 말 진주교방의 여기였다. 9살 때부터 검무를 전수받았고, 그 후 궁중에 들어가 어전에서 연희하다가 진주로 낙향하여 동기들을 가르치면서 검무의 계통을 이어온 진주검무보유자이다. 장악원에서 이습한 검무의 원형을 진주권번의 기생들에게 전수함으로써 그 명맥을 잇게 하였고 진주검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정돈산

1939년 7월 13일 진주에서 출생하였다. 1974년 전국민예품경진대회 우수상, 1975년 대한불교미술전 우수상, 1984년 전승공예전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였다.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손목인

진주 출신의 대중가요 작곡가. 1913년 4월 23일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하여 일본에 건너가 니혼고등음악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한 후 귀국하여 평생 작곡 생활과 출판 업무에 종사하였다. 본명은 손득렬이다. 1999년 1월 9일에 86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1934년에는 「타향살이」를 작곡하였으며, 1945년에는 「목포의 눈물」을 작곡하여 전국민의 애창곡으로 만들었다. 이후에도 「짜사랑」, 「아빠의 청춘」, 「사랑의 기로」 등 수많은 대중가요를 작곡하였다. 1987년에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봉조

1931년 5월 1일 경상남도 남해에서 출생하였고, 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진주중학교 재학시절 가요작곡가 이재호(李在鎬)의 문하생이 되었다. 1952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였으며, 테너색소폰 연주자 엄토미(嚴吐美)의 문하생이 되어 본격적인 연주법을 사사받았다. 1987년 8월 31일 심장마비로 별세하였다.

1962년 「밤안개」, 1968년 「맨발의 청춘」·「검은 상처의 부르스」, 1971년 「너」, 1974년 「좋아서 만났지요」, 1975년 「무인도」, 1979년 「꽃밭에서」 등 300여 곡의 가요를 남겼다.

이재호

1914년에 진주에서 출생하여 어릴 적에 형에게서 트럼펫을 배운 뒤,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고등음악학교 본과 2년을 수료하였다.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되어 고향인 진주에서 휴양 중 레코드사에 관계하는 친구의 소개로 대중가요 작곡을 하게 되었다. 1956년에 지병이 재발하여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요양하던 중 4·19혁명 직후 미발표곡들을 남긴 채 1960년에 죽었다. 본명은 이삼동(李三童)이다.

대표작으로는 「불효자는 읍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산장의 여인」, 「고향에 찾아와도」 등이 있다. 1972년 진주시 평거동 진양호공원 내에 노래비가 건립되었다.

정민섭

진주사범학교 병설중학교를 나왔으며, 진주사범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였다. 1974년 「화가 이중섭」과 1979년 「뚝대도 아니 달고」로 대중상(음악 부문)을 수상하였다. 「목석 같은 사나이」, 「대머리 총각」, 「육군 김일병」, 「곡예사의 첫사랑」 등 800여곡의 대중가요와 500여 편의 영화음악 작품을 남겼다.

⑤ 관련 축제 및 행사

개천예술제

개천예술제는 1949년(단기 4282년)에 정부수립의 실질적인 자주독립 1주년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제1회 영남예술제로 개최되었다. 그 이후 1950년 한국전쟁과 1979년 10.26을 제외하고 매년 어떤 어려움에도 그 맥을 이어온 국내 최대, 최고의 예술제이다. 1959년에는 영남예술제에서 개천예술제로 그 명칭을 바꿔 개최되었으며,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국가원수가 개제식에 참석하는 최초의 예술제였다. 25회를 맞는 1974년에는 순수예술의 대중화란 주제설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으며, 33회째인 1983년에는 경상남도 종합예술제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개천예술제는 그 동안에 전통 예술 경연을 통해 우리의 예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며, 지방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49회 째인 1999년부터는 개천예술제를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실을 상설 운영하여 행사의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각종 문예행사, 서제, 개제식, 예술문화행사의 7개 부문에 52여 개의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다.

개최시기: 매년 10월 3일~10월 10일

개최내용: 예술경연 등 문화예술행사 7개 부문 52개 행사

최초개최년도: 1949년(우리나라 지방문화예술행사의 효시)

참가인원(연인원): 98만 명

홈페이지 <http://www.gaecheonart.com>

장소: 진주시 일원

주최: 진주시 / (사)한국예총 진주시회

주관: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

주요행사내용

- 전야 서제: 성화 채화, 진다래 말차시연, 호국타종, 성화 봉송 및 안치, 제향, 진군명령 퍼포먼스, 불꽃놀이, 승전의 북소리, 개천합창제
- 개제식: 식전퍼포먼스, 개제식, 가장행렬 출정선언식, 가장행렬
- 예술문화축하행사: 진주오광대 정기공연, 진주·삼천포 농악, 종야축제(뮤지컬 진주대첩)
- 진주성특별체험행사: 경상우병영체험(진주성 별무사체험(무과체험), 진주 목사 진주성 민정순시, 진주성 별무사 무예시연, 전례놀이마당, 짚풀공예 체험 등)
- 예술경연대회: 국악경연, 시조경창, 무용경연, 개천문학상, 학생백일장, 시낭송대회, 미술대상전, 개천 미술실기대회, 전국 휘호대회, 사진촬영대회, 학생연극제, 남가람가요제, 전국음악경연대회
- 민속경연대회: 진주시장기 남여궁도대회, 전국한시백일장
- 각종전시: 미술대상전, 전국휘호대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중국서안 촬영가협회 입상작 전시, 사진작가 협회 진주시부 회원전, 분재 전시회, 개천꽃 예술 작품전
- 동반 축하 행사: 월간사진클럽 회원전, 진주실크바람회, 공예인 축제 한마당, 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 반려동물한마당, 진주가요제, 대한민국 판소리 페스티벌,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쏘유랑극단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시기: 매년 10월 1일~10월 12일(12일간)

축제내용: 소망 등달기, 유등띄우기, 창작 등만들기, 한국의 등 및 세계등 전시, 각종 전시 및 체험행사

최초개최년도: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홈페이지 <http://www.yudeung.com>

장소: 진주남강 일원, 진주성

참석인원(연인원) 270여만 명

주최: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

주관: 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시기: 매년 10월 초

개최내용: 메인행사, 부대행사, 학술행사

최초개최년도: 2006년

문화영상종합축제

장소: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진주시 일원

홈페이지 <http://www.kdfo.org>

참석인원(연인원): 50여만 명

주최/주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메인행사

-개막식

-코리아드라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 작품상 등 13개 부문 시상 (2011년 기준)

-드라마 무대에 서다: 토크쇼, 드라마퀵(드라마 + 뮤지컬), 드라마O.S.T 콘서트

-뉴 스타 연기자 선발대회: 뉴 스타상 등 4개 부문 시상 (2011년 기준)

부대행사

- 전시행사: 드라마 세트장(사극, 시대물, 현대물 거리), 사진전, 포스터전, 트리아트, 팬클럽 홍보관 등
- 체험행사: 특수효과, 분장, 의상, 어워즈 포토월, 사극, 무술 체험 등
- 문화행사: 프린지 페스티벌, 드라마 제작과정 탐방, 퍼레이드, 소원의 벽 등

학술행사

- 드라마 영상 국제포럼: 아시아 각국 드라마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창작극본 공모 발표회: 신인드라마 극본 작가 발굴, 참신한 스토리 콘텐츠 개발
- 드라마 영상 아카데미: 각 국 패널과의 교류, 드라마 기획론, 연출론, 극작론, 심의와 평가 등

골목길 아트페스티벌

2008년 10월 시작

지역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예술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대형축제를 탈피한 시민주도의 대안축제

구 도심지역인 진주시 동성동, 본성동,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

골목을 예술터로 만드는 시민주도형 축제

▶ '2012 골목길 아트페스티벌'

- 경남문화재단의 '2012 지역문화예술기획사업'에 선정
- 축제위원회: 문화예술인과 시민 간 네트워크 조직 '골목길 사람들' 출범
- 기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개최
- 프로그램: 광장공연, 퍼레이드, 전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프리마켓 등
- 후원: 경상남도, 경남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제: ‘있다’(예술과 문화로 공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프로그램 준비)

-주요 행사:

- 스페이스 아트 프로젝트 ‘있다’: 진주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설치미술로,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앞 도심 공간을 이색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이 프로젝트는 사진, 회화, 설치, 애니메이션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작품).
- ‘멘봉산성’: 하나은행 앞 광장에서 펼쳐진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 19일 오후 5시부터 골목길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진주시내 중앙로터리 하나은행 앞 광장에서 개막제와 함께 현대무용, 성악, 타악퍼포먼스, 록, 워킹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 20일 광장공연 ‘OPEN THE SPACE’, 라퍼커션, 샤인, M-NOTE, USD 현대무용단, Baby strings, 마루와 같은 팀들의 색깔 있는 공연.
- 20~21일 시내 도처에서 ‘리빙라이브러리-사람책 도서관’(펼깃재작소), ‘미니마켓’(진주교육청 앞), ‘골목길 아트슈퍼’와 ‘골목길마켓’(하나은행 앞 광장) 등을 비롯하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플라박스 & 주크박스’와 ‘남무, 텃배기’(현장아트홀) 공연;
- 22일 중앙시장 ‘골목길 퍼레이드’와 ‘골목길아트패션쇼’, ‘심포지엄(펼깃재작소)’이, 23일에는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갯펄(Get pearl)’이, 24일 ‘클로징파티’.

진주탈춤한마당

-1996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탈춤축제

-2007년부터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탈춤축전으로 확대

-주최: 진주탈춤한마당 제전위원회

-주관: 진주오광대보존회

-‘논개제’와 함께 진주의 대표적인 봄 축제

-2013년 행사 소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진주남강야외무대에서 학예굿, 대동굿, 진주오광대, 봉산近춤, 진도북춤 등 다양한 탈춤 공연과 함께 프린지 공연, 마당극 등의 다양한 공연 및 탈 만들기, 마술체험, 탈 탁본, 한과체험 등 시민참여, 체험행사 마련.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진주검무와 경남도무형문화재 진주포구락무, 진주교방굿거리춤, 신관용류가야금산조, 진주오광대 등의 공연이 4월~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주성 축석루에서 실시되고 있다.

3) 체육환경

진주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도시 곳곳에 마련되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돕고 있다. 진주시내 공공체육시설들로는 ‘진주종합경기장, 진주공설운동장, 상평동생활체육관, 진주스포츠파크, 문산실내체육관, 진주학생체육관, 진주학생수영장’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주요 운동경기가 개최되며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의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 조성된 체육시설로는 진주지역의 ‘선학산, 비봉산, 망진산, 가좌산, 속호산, 석갑산’ 등 6대산에 마련된 체육공원인 ‘웰빙 체험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삼림욕시설, 조망시설, 야외헬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산행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표16〉 진주시 체육환경

구 분	내 용
체육경기장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스포츠파크, 모택체육공원, 남가람체육공원, 진주학생체육관, 진주생활체육관,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진주학생수영장
체육공원	망진산 체육공원, 비봉산 체육공원, 선학산 체육공원, 석갑산 체육공원, 속호산 체육공원, 가좌산 체육공원
시민공원 및 기타관련시설	가좌동 주공아파트 시민휴식공간, 하대 녹지대 시민휴식공간, 가마못공원, 칠암 어린이공원, 중앙고옆 어린이공원, 신안녹지대 숲숭맨발지압공원, 강주 연못공원, 나불천 복개지변강변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련행사	진주민속소싸움대회, 진주둘레길걷기대회, 강변자전거축제

① 주요 시설

〈표17〉, 〈표1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주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 전역에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표17〉 체육경기장

시설명		위치	규모	경기종목	건립년도
진주 공설 운동장	주운동장	신안동1-1 신안로137 (신안동)	수용인원: 2만명 본부석: 270석	육상, 축구 등	'68.05' '06.09.08(인조 잔디 및 스탠드보수)
	보조운동장 (I)		축구장: 2면	축구 등	'95.03
	보조운동장 (II)		축구장: 1면	축구 등	'68.05
	테니스장		코트: 20면	테니스정구	'82:10면 '91:10면
	탁구장		탁구대: 10조	탁구	'99.08
	학생체육관			배드민턴, 농구, 배구, 핸드볼, 탁구 등	
진주생활 체육관	상평동268-2 공단로59(상평동)	수용인원: 2,500명 관람석: 1,178석	배드민턴, 농구, 배구, 핸드볼, 탁구 등	'90.12	
진주스포츠파크	문산읍삼곡리 1033-1 문산읍 월아산로973	축구전용구장: 3면(인조 2면, 천연1면) 풋살구장: 2면 관리동 1동(2층) 주차장: 417면	축구	'08.09(전체준공) '08.09.04	
		수용인원: 2,500명 관람석: 578석	배드민턴, 농구, 배구, 핸드볼, 탁구 등	'90.12	
		궁도: 28사대	궁도	'05.11	

시설명	위치	규모	경기종목	건립년도
모덕 체육공원	상대동 803-4 모덕로 47번길 24	축구장: 1면(천연) 관람석: 2,600석 관리동 1동(2층) 풋살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주차장: 120면	축구, 풋살 등	'06.01.06 (스탠드준공) '05.12.03 (인조잔디 등)
		테니스장: 9면 관리동 1동(2층) 게이트볼장: 2면 주차장: 50면	테니스, 게이트볼	'02.05
		족구장: 8면 주차장: 54면	족구	'10.09(신설)
		경기장: 8링크 (40m×40m) 관리동 1동(1층) 주차장: 18면	론볼	'11.10(신설)
남가람 체육공원	이현동69 평거로249-5 (이현동)	테니스장: 12면 정구장: 4면 게이트볼장: 3면⇒막구조 형식 관람석: 630석 주차장: 86면	테니스, 정구, 게이트볼	'10.07
진주실내 체육관	초전동1583-14 남강로1655 (초전동)	관람석: 5,184석 주차장: 133면	배드민턴, 농구, 배구, 핸드볼, 탁구 등	'08.12
진주실내 수영장	초전동1583-14 남강로1655 (초전동)	주차장: 133면 매점: 1개소 수영복 등 판매소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풋살	'08.12
진주학생 수영장	상평동 (법원 맞은 편)			
진주 종합 경기 장	주경기장	문산읍 소문리2189-3 문산읍동진로415	관람석: 20,116석	'10.06
	보조경기장		관람석: 550석	
	인라인롤러 경기장		관람석: 550석	
	기타체육 시설			

〈표18〉 종목별 체육시설

종목	시설장소명
축 구	진주종합경기장(천연2), 진주스포츠파크(천연1, 인조2), 모덕축구장(인조), 공설운동장(인조), 공설보조구장2 경상대학교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암공대, 한국국제대학교, 진주기공, 중앙고, 대아고, 진주중·고, 동명중·고, 명신고, 경상대부속고, 명석중, 봉래초고, 진주초교, 명석용우초교
조 정	진양호 조정연습장
테니스·정구	남가람체육공원 테니스장, 공설테니스장, 생활테니스장, 모덕테니스장, 종합경기장 부속테니스장, 경상대테니스장, 경남과학기술대테니스장, 사대 부고테니스장
인 라 인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
육 상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진주공설운동장, 경남체고
씨 림	경남정보고, 진주남중, 천전초교
펜 싱	봉원중, 제일중, 진주기공, 진주학생체육관, 한국국제대학교
배 구	진주실내체육관, 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 상평생활체육관, 진주학생체육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선명여중·고, 동명고, 신안초교, 평거초교
기 타 종 목 (농구 등)	상평생활체육관, 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 진주학생체육관, 경상대체육관, 진주교육대체육관, 경남체고체육관 및 운동장, 기타 각급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② 체육공원

도시내 산재한 6개 산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곳곳에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있다.

〈표19〉 체육공원

공원 명칭	위 치	조성면적(m ²)	시설내역 (종/점)
망진산 체육공원	망경동 631 일원	1,157	운동시설 : 1/1 체력단련 : 13/24 편의시설 : 8/36
비봉산 체육공원	상봉동 일원, 옥봉동일원	12,903	운동시설 : 1/2 체력단련 : 59/85 편의시설 : 27/87
선학산 체육공원	상대동 산58-2 일원	5,892	운동시설 : 1/5 체력단련 : 20/47 편의시설 : 9/74
석갑산 체육공원	이현동 산 104-8 평거동 산 59	3,200	운동시설 : 3/6 체력단련 : 12/28 편의시설 : 2/38
숙호산 체육공원	이현동 산 82	900	운동시설 : 1/3 체력단련 : 12/15 편의시설 : 3/16
가좌산 체육공원	가좌동 산 132	600	운동시설 : 1/4 체력단련 : 12/22 편의시설 : 6/37

③ 시민공원 및 기타 체육 관련시설

시민 공원

녹지, 산책로 조성, 야외 헬스 기구, 건강 지압보도 및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휴식과 체력단련, 놀이 공간 제공.

- 가좌동 주공아파트 시민휴식공간
- 하대 녹지대 시민휴식공간
- 가마못 공원
- 신안녹지대 솔숲맨발지압공원
- 강주 연못공원
- 나불천 복개지변
- 칠암 어린이공원
- 중앙고 옆 어린이공원

생활체육광장

장 소 : 하대둔치 외 3개소

운영종목 : 생활체조, 육상, 배구

참여인원 : 연 38,000여명

자전거 도로

진주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남강변의 절경을 따라 조성
자전거도로 기능 회복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환경도시 조성에 주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편의 시설(쉼터, 보관대, 연결로 등)
구축

무료 자전거대여시설 2개소 운영

④ 관련행사

진주시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대잔치-37개 종목 2만여 동호인 참여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생활체육 저변확대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

⑤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광장

청소년 축구교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역동호인 스포츠클럽 운영

장수생활체육대학

여성 건강강좌

청소년클럽대항전(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 무료교실

〈표20〉 생활체육 무료교실 현황(2012년 7월 1일 현재)

구분	내용
탁구무료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정미정 - 상평생활체육관 월, 화, 수, 목 10:00~12:00 - 대평면 사무소 월 19:00~21:00 - 농업기술원 화 18:30~21:00 - 금산면 자치센터 수 16:00~18:00 - 가호동 자치센터 목 15:30~17:30
생활체조 무료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이은진, 김희진 - 현대은빛아파트 월~금 10:00~11:00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화, 목 15:00~16:00 - 상평생활체육관 월~금 10:00~11:00 - 신평광장(평거 인라인스케이트장 강변) 20:00~21:00 - 주약광장(주약 답마트앞 강변) 20:00~21:00 - 하대광장(하대 현대아파트앞 강변) 20:30~21:30 - 비봉광장(비봉산 체육공원) 05:30~06:30
테니스무료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천영준 - 모덕테니스장 월~금 09:00~11:30 / 15:30~17:30 - 신안테니스장 금 09:30~11:30
배드민턴무료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송찬식 - 문산체육관 월~금 10:00~11:30 - 상평생활체육관 월, 화, 목 15:00~16:30
축구무료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최상호 - 문산스포츠파크 - 모덕풋살장
국학기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대광장(하대 현대아파트 앞 강변)

〈표21〉 진주시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현황⁴²⁾

종목	클럽수	회원수	종목	클럽수	회원수
검도	3	350	야구	9	200
게이트볼	7	300	요가	7	210
국학기공	2	100	우슈	11	400
궁도	4	200	유도	2	70
그라운드골프	3	150	육상	7	300
농구	6	1,200	24반무예	2	100
댄스스포츠	3	103	인라인스케이트	3	2,500
드래곤보트	4	350	자전거	8	1,300
무에타이	9	150	정구	3	100
배구	3	160	족구	12	600
배드민턴	18	4,000	줄넘기	2	50
보디빌딩	3	75	축구	16	4,000
복싱	4	250	탁구	11	1,700
볼링	53	1,300	태권도	10	1,500
삼보	7	155	택견	11	1,200
생활제조	7	2,300	테니스	32	2,000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4	76	트라이애슬론	2	80
수영	8	1,400	파크골프	2	60
스쿼시	2	200	패러글라이딩	4	150
스킨스쿠버	4	100	합기도	13	1,200
승마	2	69			

2. 자연환경(自然環境)

진주는 도심을 가르는 남강, 덕천강과 경호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진양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월아산, 둘레길이 조성된 비봉산, 망진산, 가좌산, 선학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지리산과 남해도 가까이에 있으며 기후조건도 좋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42) 진주시생활체육회 <http://www.jinjusports.org/>

진주는 소백산맥이 시의 북부와 서부에 뻗어 있고, 동남부에는 해안산맥이 뻗어 있다. 동부지역은 방어산(530m), 오봉산(525m), 깃대봉(520m) 등이 솟아 있고 대부분 500m 내외의 구릉성산지다. 서부지역은 덕천강을 경계로 하동군과 접하며, 경호강과 남강으로 이어지는 진양호가 있다. 이 지역은 해발 고도 200m 이하의 구릉성 지형이다. 남부지역에는 봉대산(302m), 무선산(277m), 실봉산(185m) 북부지역에는 집현산(572m), 검무봉(280m)이 있다. 동부와 북부지역은 비교적 산세가 험하고 전형적인 분지 지형이다.

주요 하천으로는 서부 경남의 동맥을 이루는 남강이 진양호를 이룬 다음, 시의 중앙을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창녕군 남지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또 하동군과 경계를 이루는 덕천강이 남동쪽으로 흘러 진양호로 유입되고 나불천, 영천강, 정수천, 향양천 등이 남강으로 유입된다. 북서부에서 흘러든 남강은 심하게 사행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1969년에 건설된 남강댐과 인공 호수인 진양호는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의 역할을 한다. 남강 유역에는 해발 고도 20~30m의 가늘고 긴 범람원이 있어 비교적 넓은 충적지를 이룬다. 남강 우안으로 합류하는 반성천, 유천강 연변에 분포하는 경지도 비옥하다.

기후는 지리산(智異山)의 영향으로 대륙성기후를 나타내는데, 1월 평균기온 0.1℃, 8월 평균기온 25.6℃, 연평균기온 13.1℃이다. 분지이기 때문에 같은 위도의 다른 도시보다 기온의 차가 심하다. 연평균강수량은 1,490.0mm로 다우지역에 속한다. 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안개가 많은 도시로서 연평균 안개 일수는 78.2일이다.

3. 도시정책(都市政策)

진주시는 2013년 4대 시정방침으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웃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인재육성 미래도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실천방향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 확충,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천년역사와 전통의 격조 높은 문화 발전, 진주중심의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1) 진주 시정방침 및 실천방향

진주시의 2013년 시정 기본방침과 그 실천방향은 <표2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⁴³⁾

<표22> 진주시정방침과 실천방향

시정방침	실천방향
활력 있는 경제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지역 특화산업 지원 육성 산업인프라 확충 다양한 일자리 창출
함께 웃는 복지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확대 복합형 행복시설 조성 도·농간 균형발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아름다운 문화도시	다양한 문화 공간 확충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천년역사와 전통, 격 높은 문화 발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진주중심의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
인재육성 미래도시	학교교육 여건 개선 인재 육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시민들의 지식 역량과 경쟁력 강화

2) 7대 역점 시책

명품 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도시 기반 구축

더불어 행복한 복지 건강도시 구현

품격 있고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조성

저탄소 친환경 모범도시 육성

농업의 산업화와 삶의 질 향상

미래지향의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 구축

창의적 인재육성과 시민만족 봉사행정 추진

43) http://mayor.jinju.go.kr/sub/02_02.jsp

3) 21c 진주비전

진주시는 도시의 미래상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첨단산업문화도시로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가 제시한 도시발전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은 <표 23>으로 요약된다.⁴⁴⁾

<표23> 21세기 진주비전 목표와 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
산업경제도시 (선도거점도시, 경제 활력도시)	대기업 및 유망기업유치 산업기반 확충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창조혁신도시 (역동적 창조도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체, 대학, 연구기 관 협력 첨단주거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리드
문화관광도시 (남해안 관광허브도시)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역사적 가치 부각 남강유등축제 등 축제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 특색 있는 관광 상품 및 자원의 개발
명품교육도시	학교교육 여건 개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자기주도 학습 지원체계 구축 평생학습시스템 활성화
복지건강도시	시민참여 나눔 문화의 확산 계층별 맞춤형 복지의 추진 출산과 보육, 노인복지 지원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생태환경도시	남강과 셋강의 친환경적 이용 생태숲과 도시의 녹화 걷고 싶은 길, 자전거도로 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선진농업도시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 과학영농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 농업박람회개최 국내외 정보교류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44) http://mayor.jinju.go.kr/sub/02_01.jsp

4) 시정주요 역점사업⁴⁵⁾

-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
- 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 진주혁신도시건설
-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
-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조성
- 실수요자형 산업(농공)단지 조성
-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 좋은 세상 기반 구축
- 장난감은행 운영
- 진주아카데미 운영
- 무장애 도시 조성
- 201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진주시가 발표한 4대 시정방침과 도시발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시정주요 역점사업 등을 통해 볼 때 시정의 초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지만 복지, 문화, 교육 부문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 한국형 문화도시의 지향점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지자체의 시정방침, 시민들의 동참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진주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상의 보완들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 정책의 방향성 확립이다. 문화도시 정책은 타 정책의 상위에 위치

45) http://mayor.jinju.go.kr/sub/02_03.jsp

하는, 개념상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이념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즉 문화도시정책을 정점으로 하여 다른 정책들이 수립되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도시 정책 전반에 문화도시 개념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일부 부서(예컨대 문화관광과)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영역이 종합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가능한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는 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부문 권한 범위를 명문화한 기본 규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문화관련 조항을 만들고 이를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지향적인 도시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공간설계, 도시공원, 도시조명, 도시광장 등의 도시 정책 과정에서 문화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문화적 컨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그 공간 자체의 예술성도 고려해야 한다. 거리환경, 건축물, 조경, 디자인, 색상, 스카이라인 등 문화경관을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와 시민 간의 소통과 파트너십을 제고해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도시는 그 도시민들에 의해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46) 지방자치법 제9조는 6개 분야의 57개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관련 고유사무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는 9조 5항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규정되어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61&efYd=20130323#0000>

〈표24〉 진주 도시환경

구 분		내 용	
문화 환경	인문환경	유적지	진주성, 진주향교, 대각서원, 평거동 고려분군 외 다수
		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향토민속관, 경상대학교 부속박물관, 산림박물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물문화관
		도서관	연암도서관, 진양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전문도서관, 비봉어린이도서관, 도동어린이도서관
		기타관련시설	진주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시조문화관
		관련유산	청곡사 영산회괘불탱, 용암사지부도, 단성석조여래좌상, 삼선암 고려동종, 진양부 권군신도비, 벽오당 현판 외 다수
		관련행사	진주논개제, 이형기 문학제, 개천문학상
	예술환경	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예술유산	진주 검무, 교방굿거리춤, 한량무, 포구락무, 진주오광대
		기타관련시설	남가람 문화거리, 인사동 골동품거리, 젊음의 광장,
		관련행사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이상근 국제음악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골목길 아트페스티벌, 진주탈춤한마당
	체육환경	경기시설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스포츠파크, 진주생활체육관,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외 다수
		체육공원	망진산 체육공원, 비봉산 체육공원, 선학산 체육공원, 석갑산 체육공원, 속호산 체육공원, 가좌산 체육공원
		기타관련시설	강변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련행사		진주민속소싸움대회, 진주둘레길걷기대회, 강변자전거축제	
자연환경	남강, 진양호, 월아산, 비봉산, 망진산, 가좌산, 선학산		
도시정책	활력 있는 경제도시(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웃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인재육성 미래도시		

결론적으로 진주는 수려한 자연환경, 잘 정비된 문화기반시설, 풍부한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소재, 활성화된 지역축제, 특화된 지역성, 문화도시 지향의 정책 등 문화도시로서의 필요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지자체의 시정방침,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삼위일체 된다면 진주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V.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1. 한국형 문화도시 개념

지금까지 도시개발은 인간을 위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경제의 논리로써 인문적 요소들을 파괴시켰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시를 채우는 작업에만 치중하였다. 그 결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이 피폐해짐으로써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이 발생되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를 인문학에서 찾고자 한다. 인문학은 인간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인문학은 개인적 삶의 궁극적 목적이나 이상, 사회 발전의 근본 목표와 가치를 설정한다. 인간성, 도덕적 개념, 가치와 믿음의 문제 등 인간과 그 삶의 전반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개인과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문학적 가치에 기반으로 둔 ‘한국형 문화도시’는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자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술자산, 일상에 밀착된 생활체육의 융합을 통해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이 일상에 내면화된 건강한 도시를 의미한다.

본질적인 것은 ‘인간다움’의 정신 속에 도시와 그 공간에서의 삶의 양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제(諸) 관계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생태계를 보존하며 특정한 이미지가 도시를 상징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굴·생성된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성장의 동력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토양을 일신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조성 프로그램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조성 프로그램은 단순히 문화를 활용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그 안에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발상과 전략, 이를 수행하는 계획을 담는 것이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인문정신의 고양과 확산을 통해 인성 회복과 현실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 지역이 보유한 특유의 문화자산을 개발·보존·활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문화, 관광 및 관련 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향유 여건을 제고한다.
- 타 지역과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한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조성은 기존 문화도시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파악한 장점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고, 인문학과 인문정신의 가치를 접목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상실해 온 우리 전통의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거나 축제·이벤트를 활용하는 전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도시개조운동이자 재생운동이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은 강좌·체험·양성프로그램, 문화공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를 문화적으로 운용할 소프트웨어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그 중심에 강좌·체험·양성프로그램이 있다. 문사철(文史哲)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예술, 일상에 밀착된 생활체육이 융합된 강좌·체험·양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폐한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문화향유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들을 유지·보수·확충하는 문화공간 프로그램의 병행도 필요하다.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및 보완은 문화도시센터(CCC: Cultural City Center, 가칭)가 총괄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연관 사업들은 폐기하지 않고 지원하며 점진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으로 흡수한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공간은 기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되 수요에 맞추어 개발·확충한다.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의 기본틀은 <표25>와 같다.

<표25> 한국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분 류	대 상	내 용		
강좌 프로그램	청소년	청소년문화교실	인문	청소년 인문교실, 어린이박물관학교, 청소년독서교실, 남명학강좌 시리즈, 소외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인문강좌
			예술	청소년 시네마 아카데미, 찾아가는 예술교실
			체육	청소년건강교실, 방과후 체육교실
	성인	시민문화대학	인문	시민인문강좌, 시민형평학교, 시민유교대학
			예술	시민예술강좌, 클래식 토크
			체육	시민건강교실, 주말스포츠클럽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청소년문화교실	문예현장탐방	독서여행교실, 이상근 메모리 콘서트, 이형기문학제 '체험시 백일장'
			역사유적답사	진주어린이박물관학교, 진주목 관아 체험, 진주성역사투어
			선현사상체득	진주향교 어린이 서당, 남명철학캠프
			전통예술재현	청소년전통예술학교, 진주오광대놀이교실
			생활체육활동	방과후 체육교실, 진주둘레길걷기대회, 주말체육대항전
	성인	시민문화대학	문예현장탐방	시민문학기행, 시민문화동호회 설창수문학기행, 이성자예술탐방
			역사유적답사	박물관대학, 시민역사기행, 경상우병영 체험
			선현사상체득	덕천서원 남명철학교실, 형평역사캠프

분 류	대 상	내 용	
		전통예술재현	시민전통예술학교(진주검무, 한량무, 교방굿풀이춤)
		생활체육활동	남강자전거축제, 남강마라톤대회, 진주생활체육한마당
양성 프로그램	성인	문화 전문인력 양성(학문후속세대):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시민강사양성(퇴직교원, 문화해설종사자): 시민인문강좌 시민예술가 양성(아마추어예술애호가): 진주예술아카데미	
문화공간 프로그램	시민	1가구 1가로수 가꾸기 동네 텃밭 가꾸기 환경지킴이 예쁜 간판 콘테스트 자영점포의 복합문화공간 활용(소규모 전시, 공연, 강좌)	
	지자체	시민문화관 조성 시민미술관 조성 구 역사(舊 驛舍) 문화거점 조성 권번 복원	

1) 강좌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은 문학·역사·철학·예술·건강 등과 관련한 주제로 구성한다. 강좌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물질적 성장과 발전의 틀 속에 매몰된 ‘인간다움’과 ‘인간다운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전문가 집단이 일반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발전을 꾀한다.

① 실행 방안

문화도시센터 중심

- 사업 초기에는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실시
-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도시 권역별, 마을단위로 분화 확대 실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교육지원청, 대학 및 연구소, 예술단체, 초·중·고교, 도서관 등 문화 예술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음악, 생활체육, 전통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기 통합 강좌

- 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습작교실
- 미술, 음악(악기, 노래), 영화, 사진, 생활체육 실기교실

강좌 대상 분류: 성인, 청소년

- 성인은 시민문화대학의 틀 안에서 진행
- 청소년은 청소년문화교실의 틀 안에서 진행

프로그램 기간 단위 분류

- 연중 상시 프로그램, 분기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홍보 및 시민 관심 제고

- 월별 혹은 분기별 유명인사 초청 특별 강좌
-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문화도시 사업의 정착과 선순환을 위한 이벤트로서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석학 초청 형식의 대형 공개강좌 실시

② 세부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 '청출어람'

청소년 시기에 함께 읽고 공부해야 할 고전 및 인문도서를 선정하여 사고와 소통의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독서 프로그램

중고등 청소년 대상

한 학기 동안 도서 3권 선정, 1권에 2-3회 강좌

전문가 강의 50분, 학생들의 의견 나눔과 토론 50분

찾아가는 철학교실 ‘자아발견’

열등감과 패배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과 인생에 자긍심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인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프로그램

중고교생, 이주 청소년, 미혼모, 장애 청소년, 저소득층 자녀, 탈학교 청소년
등 대상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 직업, 사랑 등과 같은 삶의 주제들을
짚어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강좌

전문강사 및 사회명사가 학교나 대상 청소년 시설 방문 강의 및 토론 진행

다함께 사는 사회 ‘형평’

형평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의미를 살림

인권, 평등, 화합의 가치를 담은 교육 및 체험의 장 마련

‘형평운동기념사업회’와 연계하여 전 시민대상 강좌로 확대

시민형평학교

시민의 역사의식을 키우기 위한 형평의 역사 소개

현재 역사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강좌 개설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진주시청 세미나 공간 활용

찾아가는 어린이 형평교실

어린이들의 역사의식 고취

교재 제작을 통해 학교 수업과 연계된 형평교실 개최

형평 학술대회

년1회 인권, 평등, 화합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

초등, 중등, 장년부로 구분

학계와 연계, 국내외 명사 초청 학술대회로 확대

친구와 함께 하는 형평 캠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형평 캠프를 열어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는 캠프 실시.

예절을 담은 몸 '온고지신'

- **시민 유교 교실**

진주시역 시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12주 과정
논어, 맹자, 장자에서 교양으로 읽을 수 있는 철학 교육

- **어린이 전통예절교실**

어린이들 대상 다도예절, 인사예절, 명절예절 등
경상대학교 예절교육관 이용
진주향교에서 서당체험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통예절 강좌**

외국인이나 유학생 대상
경상대학교 예절 교육관에서 실시

-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전통예절학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경상대학교 예절교육관에서 실시

책으로 배우는 삶 '형설지공'

-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 대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 책여우, 책마실 등 기존 동호회 및 모임과 연계
주 1회, 3개월 단위로 영역별, 주제별 책 선정
매 강좌 후 소감을 그림이나 말하기로 표현하는 훈련 실시

•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

문학, 역사, 음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 결성
아파트 및 동 단위 지역 도서관 별로 시행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한 독서토론대회 개최

• **시민을 위한 독서감상글 대회**

현재 진주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독서감상글 대회의 확대 시행
일반 시민을 위한 독서 및 글쓰기 장려
상금, 책자발간, 발표회 등 마련

찾아가는 예술 프로그램

• **움직이는 영화관**

간이 영화관으로 개조된 버스를 이용, 지리적·환경적으로 고립되거나 낙후
된 문화향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영화관
진주시 인근 농촌 지역의 아동, 이주민, 노인 등을 대상
관람대상에 따라 선별한 영화를 강사의 해설과 함께 감상한 후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주민들 간 소통 및 화합의 기회 제공
찾아가는 장소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상영일정 선택(농한기, 오전/
오후/심야, 평일/주말 등)

• **우리동네 배움마실**

문화향유 사각지대 지역민 및 실버세대의 건전한 여가활동장려를 위한 취
미 개발 프로그램
교통이 불편한 농촌 및 산간지역 주민 대상
휴대폰을 이용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법, 노래나 춤, 그림 수업 강좌 진행
수강생들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동네 사진전·영상전·전시회·마당극 등
전체 주민 참여 축제로 승화

- **방방곡곡 버스정류장 ‘어디서나 멈춰요’**

요양시설이나 구치소 등 문화향유 소외 계층민 대상

기존 음악동호회, 학교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추진

2)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은 ‘문예현장탐방’, ‘역사유적답사’, ‘선현사상체득’, ‘전통예술재현’, ‘생활체육활동’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함께 즐기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립하며, 자발적인 인문·예술·체육활동을 촉진하여 도시의 창조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진주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강화와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한다.

① 실행방안

프로그램 기본 체계 정립

- 기본구성: ‘문예현장탐방’, ‘역사유적답사’, ‘선현사상체득’, ‘전통예술재현’, ‘생활체육활동’
-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산 활용

강좌 프로그램과 연계

- 강좌를 통한 사전 지식 학습

문예현장탐방

- 문학예술의 현장에서 입체적인 작품 감상
- 문인예술가와의 만남과 대화
- 인문학적 감성과 창조성의 내면화

역사유적답사

- 지역의 역사 현장에서 선조들의 삶을 체험
- 건전한 민족정신 배양
- 올바른 역사관 정립

선현사상체득

- 지역과 연관된 인물들의 유산 체득
- 현실의 문제 성찰
- 올바른 가치관 탐색

전통예술재현

-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축석루, 진주향교 등 활용
- 지역의 중요무형문화재 체현
- 전통문화의 가치 및 중요성 인식
- 민족적 자아와 지역 정체성 확립

생활체육활동

- 지역의 체육시설 활용
-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 인식
- 올바른 여가문화 정착
-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상호이해

② 세부 프로그램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인문체험

진주성, 진주박물관, 진주시청동기박물관, 남명생가 등 지역의 인문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답사 프로그램

진주시민 및 타 지역 거주 방문객 대상

각 장소와 관련된 시민강사의 문학, 역사, 철학 강좌 진행

주말 정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타 지역민 참여 유도

현장체험 아틀리에

예술가들의 창작 현장을 직접 방문, 참여하여 함께 예술창조작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미술, 음악, 공연 등 예술 장르별로 어린이 체험 아틀리에, 청소년 체험 아틀리에, 가족 단위 체험 아틀리에 등으로 세분화

한국예총 진주시회, 진주무용가협회 등 유관 기관 행사일정과 연계하여 시흥정수예술촌, 사설미술관, 개인전 등과 연계하여 관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민문학관’현장 프로그램

설창수, 이형기, 최계락, 김우경 등 진주 출신 문인이나 어린이 문학가의 업적과 자료, 영상물 등 전시실 마련

문학 관련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시민전용 공간 마련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문학강좌, 문학캠프, 백일장 등 프로그램 기획

작가와와의 만남 ‘수요 문학창작교실’

지역 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 및 문학 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 창작교실 운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인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문학이론 및 창작수업 진행

매주 수요일 진주문학관 내 시민전용 공간에서 개최

문학이 있는 예술한마당 ‘달빛 콘서트’

문학강연과 음악공연, 전시회 등이 어우러진 인문예술 프로그램

특정 작가나 작품을 선정하여 전문 강사의 작품해설, 낭독 등의 문학강좌와

함께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음악회, 미술이나 사진 전시회 개최

진주미협, 청년작가회를 비롯하여 음악, 사진, 미술분야 동호회 및 학교 동아리

등과 연계

전시 및 음악회는 진주문학관 전시실 및 야외 공연장 이용

음악공감 작은 콘서트

일반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아마추어 음악회

전문 음악인들이 아닌 학교 동아리나 동호회, 친구,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

5월~8월 주말 저녁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이나 남강 소싸움 경기장, 옛 진주역 광장 등 도심 곳곳에 임시 공연장 마련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세대공감 도란도란 놀이터'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어른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통해 세대 간 단절이나 오해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

60~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경로당, 마을회관, 요양원 등 대상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동아리를 중심으로 참여한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들려주는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채록

1:1이나 소모둠 형식으로 진행하며, 최소 2회 이상의 만남을 통해 채록한 이야기를 엮어 소책자나 영상물로 제작

청소년 소통 프로그램 '우리사이 친구사이'

이주민 자녀나 빈곤가정, 탈학교 청소년, 장애아동 등에 대한 편견을 허물 수 있도록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소통 프로그램

관내 일반 초중고교와 대안교육시설이나 특수(교육)기관 등 대상 벽화그리기, 설치미술, 연극공연 등 참가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 진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1박 2일 캠프 실시

심야예술축제 '백야 페스티벌'

건전한 밤 문화 향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시공간 지평 확대와 다양성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심야산업 종사자나 24시간 직업군, 틀에 박힌 삶을 거부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학생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

예술가들의 철야작업현장탐방, 영화상영, 작은 음악회, 연극, 마임, 심야도서관, 달빛 문학강연 등 진행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3) 양성 프로그램

양성 프로그램은 학문후속세대로서 문화전문인력 양성, 퇴직교원이나 미취업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사 양성,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양성 인력은 문화도시 사업에 활용하고, 도시의 창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와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짐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선순환구조가 정립될 수 있다.

① 시민강사 양성 아카데미

목적

- 비정규직 및 미취업 전문가 지원,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 시민 스스로 능동적 주체가 되어 ‘한국형 문화도시’ 구현에 참여하는 기회 제공
-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전 시민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질적·양적 확대
- 생활 속 인문정신 확산을 통한 한국형 문화도시 기반 마련
- 문화향유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여건 마련

추진방안

1단계: 인문교육과정

- 시민강사로서의 기본 소양 연마를 위한 인문교양강좌
- 강사양성과정 참여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
- 초·중·고급과정 구분을 통한 단계별 심화교육

- 지역의 역사와 문학, 철학, 문화 전반에 대한 포괄적, 심층적 이해

2단계: 강사양성과정

- 인문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
- 개인별 특화된 전공분야 개발
- 전문 강사의 교수법 및 강의비법 전수
- 현장 실습을 통한 강의연습

〈표26〉 강사 양성 분야

구 분	분 야
인문강사	문학·역사·철학 강의, 기초(생활) 외국어, 글쓰기, 독서토론지도, 어린이 대상 창의력 증진, 자녀와의 대화법, 부모역할교육, 생활 한자, 이주민 대상 한글교육
예술강사	그림, 설치미술, 거리극, 서예, 생활 공예, 연극, 마임, 사진, 영화, 노래, 악기 연주, 전통무용, 발레 등
생활체육강사	스포츠마사지, 게이트볼, 스케이트보드, 단전호흡, 기체조, 건강체조, 요가, 자전거, 배드민턴 등

활용방안

-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시민강사 자체 인력풀 구축
 - 한국형 문화도시 실행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 활용
- 기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단위 강사인력풀 네트워크 구축
 - 관내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로 활용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YMCA, 백화점·방송국 등 문화센터 등과 연계한 강사 수급
 - 문화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관내 인문시설 상근 강사로 활용
- 타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교류 프로그램 추진
 - 한국형 문화도시 민간 홍보사절로 활용

②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문화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목적

-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지역문화원형 발굴·가공
- 고부가 가치 창출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한 매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융복합형 스토리텔러 양성
- 매력적인 창작소재 개발을 통한 경남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방안

- 예비 스토리텔러, 1인 창조기업 창업 희망자,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학생 및 졸업생, 콘텐츠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교육
-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이론 및 창작 교육
- 원천소스 개발을 통한 스토리텔링 교육과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멀티유즈화

〈표27〉 교육 커리큘럼 예시⁴⁷⁾

정규강좌	특별강좌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의 이해	-저작권·특허권 관련
-원천소스 개발 및 활용	-작가와와의 만남
-스토리텔링 글쓰기 실습	-콘텐츠 홍보 관련
-캐릭터 분석	-전문가 초청 워크숍
-매체별 접목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용방안

- 교육수강생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 경상대·산업대 창업지원센터

47)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현재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2013 스토리텔링 아카데미-가야설화의 OSMU' 교육 커리큘럼 참조.

- 등 기존 유관 기관과 연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 유관업체와 연계, 우수 성과물에 대한 상용화 추진
- 유관 문화도시 실행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 활용

③ 예술가 양성 아카데미

어린이 예술 아카데미

- 어린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미래의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
- 특히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환경으로 인해 예술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계층을 위주로 선발
- 분야: 음악(작곡, 연주, 성악 등), 뮤지컬, 연극, 마임, 영상, 영화 연출 등
- 연기 연습: 스타니스랍스키 연기법에 기초한 배우 수업과 장면 연기
- 뮤지컬: 뮤지컬 발성 및 노래 배우기
- 무용: 무대에서의 동작과 움직임 이해를 위한 무용수업, 무용극
- 영상, 영화 연출의 이해: 초단편 영화 만들기 실습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가 양성 프로젝트

- 장애인 및 특수대상자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 ‘극단 현장’, ‘큰들 문화예술센터’, ‘진주 오광대 보존회’,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행
- 수강대상의 특수성을 감안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 강사진과 양성 분야별 전문강사들이 공동으로 강의 진행

4) 문화공간 프로그램

1가구 1가로수 가꾸기, 동네 텃밭 가꾸기, 환경지킴이, 예쁜 간판 콘테스트를 비롯하여 자영점포를 소규모 전시, 공연, 강좌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원 하에 시민문화관, 시민미술관, 구(舊) 진주역 문화거점지구 조성, 권번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구(舊) 진주역을 활용한 거점 문화지구 조성

가. 구(舊) 진주역 현황

- 1923년 12월: 삼랑진-진주 간 개통
- 1925년 08월: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 1956년 12월: 역사 신축
- 1968년 02월: 진주-순천 간 개통
- 1970년 04월: 서울-진주 간 순환열차 운행
- 1972년 03월: 서울-진주 간 새마을호 운행
- 2012년 10월: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폐쇄, 총 56만㎡에 이르는 유휴공간 발생⁴⁸⁾

나. 가능성 및 방안

- 기존 시설 및 폐선 부지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 역 주변 부지 13만㎡, 폐선 부지 43만㎡의 방대한 면적
-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공간으로서의 지리적 접근성 용이
 - 도심 한복판, 진주 서부와 동부를 잇는 교차지에 위치
- 집단의 기억과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서의 보존 가치
 - 90여 년 동안 지역민의 추억과 애환을 담은 공동기억의 공간
 -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제로 지정된 ‘차량정비고’⁴⁹⁾
- 인문, 예술,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 공존하는 집약적 문화특구 조성

48) 폐역 직후인 2012년 11월 시민단체가 주도한 ‘굿바이 마이 트레인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지자체, 지역민간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구 진주역 활용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합실로 사용되던 역사 일부는 2013년 민간업자에게 유상 임대되어 현재 식당 영업 중.

49) 일제강점기인 1925년경 건립된 차량정비고는 왕대공트리스의 변형, 2개의 반복된 아치형태, 트리스 간격마다 설치된 벽돌부벽, 벽돌내쌓기한 지붕처마부분의 흙통처리 등 건축적, 철도사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벽면에는 한국전쟁 때의 총탄 흔적이 그대로 간직한 채 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차량정비고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2005년 9월 14일 등록문화제 제202호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참조.

- 기존 시설, 폐선 구간 및 주변 부지를 활용한 인문, 예술,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행 공간 조성
- 역사 건물의 개보수를 통해 현재 진주에 존재하지 않는 ‘시민문학관’(가칭) 건립이나 전용미술관, 예술창작센터, 시민강사양성교육센터 등으로 활용
- 주변 부지를 활용한 시민전용 야외 공연장, 생태공원, 역사탐방 둘레길, 관광형 자전거도로, 바이크 트레인, 웨딩촬영 명소 조성
- 경전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폐쇄 혹은 이전된 관내 10개역과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
 - 폐쇄: 진주수목원, 진성역, 남문산역, 개양역, 갈촌역, 유수역, 내동역, 평촌역
 - 이전: 진주역(가좌동), 반성역(일반성면)

〈표28〉 구 진주역 주변 개발 구상안⁵⁰⁾



50) 폐철도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진주시에서 참고용으로 마련한 초기 구상안. 문태현, ‘진주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진주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2013.5.14) 발표자료에서 재인용.

다. 의의 및 전망

-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차원
 - 장기간의 개발 제한 규제로 낙후된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 도모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 온 역 인근 주민들의 배려 및 삶의 질 향상
- 정부 정책을 반영한 국가사업으로의 확대 발전 차원
 -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⁵¹⁾과 연계, 폐철도 구간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망 구축
 - 국가 간선 자전거도로망과 시군 구간의 연계
- 인문정신에 기반한 창조적 공간 재활용 차원
 -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 창출
 -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개보수와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공간 조성
- ‘한국형 문화도시’ 홍보 및 전국적 확대시행의 기반 마련
 - 인문학 기반 한국형 문화도시의 개념이 집약된 상징적 랜드마크
 - ‘인문공간’, ‘예술공간’, ‘생활체육공간’의 공존
 -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제고

51)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정행정부’)가 발표한 순환형 국가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인「전국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국가자전거도로 구축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참조.

VI.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방안

1.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충남 보령시는 각각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⁵²⁾ 이들 조례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구로구와 보령시의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 삶을 통해 문화경쟁력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취해진 적극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지자체와 시민의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로구와 보령시가 조례에서 규정한 문화도시의 목표는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사람 중심의 주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함께하고 배려하는 시민문화의 정착”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문화도시자문단 구성, 문화도시 계획 수립,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책 개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인문학도시 조례’를 제정한 부산 해운대구 또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도시의 부흥을 시도한 예로 볼 수 있다. 인문활동에 대한 조건들을 명문화함으로써 도시의 인문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2013년 3월에 제정 공포된 ‘해운대구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행사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문학 골목길’ 조성, ‘인문학 콘서트’, ‘인문고전 1백 권 읽기’, ‘찾아가는

52) 서울시 구로구는 2008년, 보령시는 2012년에 각각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문학 강좌’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형 문화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도 관련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條例)(가칭)’를 제정하여 사업의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한국형 문화도시의 정의, 적용범위, 지자체장과 시민의 책무,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핵심인 문화도시협의회와 문화도시센터(CCC: Cultural City Center, 가칭)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 사업전반을 관장할 문화도시협의회와 그 산하기관으로 실무를 총괄할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용 방안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와의 긴밀한 논의 속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체계구축

한국형 문화도시의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체계를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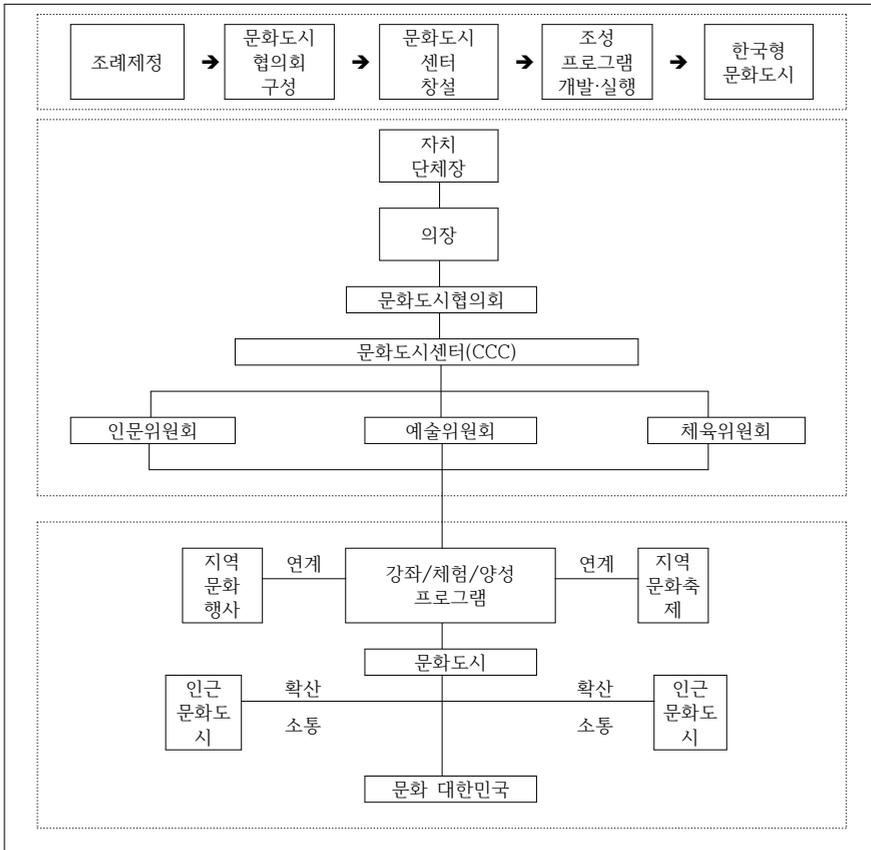
1) 추진전략

-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사업의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인문정신을 도시계획의 근간으로 상정한다.
-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민관산학언(民官産學言)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한 물리적 환경조성보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집중한다.
- 지역 내 산재한 인문·예술·체육 자산과 지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양질의 일자리와 콘텐츠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2) 추진체계

- ‘문화도시협의회(가칭)’가 문화도시 사업 전반을 관장한다.
- ‘문화도시협의회’는 민관산학연 대표인사로 구성한다.
- ‘문화도시협의회’ 산하에 ‘문화도시센터(가칭)’를 설치한다.
-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사업의 실무를 총괄한다.
- ‘문화도시센터’ 산하에 인문·예술·체육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각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의 개발·실행·보완을 담당한다.

〈표29〉 한국형 문화도시 추진 체계



Ⅶ. 결론

본 연구는 우리의 상황과 정서에 맞는 새로운 문화도시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물질만능과 무한경쟁의 사회 기조가 강화되어 가는 만큼 우리 안의 인간다움과 고유의 공동체성은 파괴되고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은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인문학과 인문정신에서 찾고자 하였다. 인문학적 가치의 토대에 기존 문화도시의 장점들을 접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였다. 기존의 도시만들기가 정치적·행정적 고려를 배경으로 소수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한국형문화도시는 사회 전 계층의 동의와 관심 없이는 조성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스테레오 타입의 도시를 만들어낼 뿐이다. 한국형 문화도시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조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 인문정신 함양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인성 회복
- 훼손된 우리 고유의 전통 공동체 문화 복원
- 계층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경쟁의 경향 속에 발생한 다양한 사회 병리현상 치유
-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구현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생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문화도시의 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재창조해 낸다면 상기한 성과들을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문화도시의 실현과 도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인문정신과 문화로 통합된 ‘문화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Abstract |

A Practical Approach to Creating A 'Korean Culture City' Based on the Humanities: Focused on Jinju, Gyeongsangnam-do

In this research, we seek to challenge the usual approach to the creation of Korean Culture Cities. We are focusing our research on the city of Jinju, located in Gyeongsangnam-do. The major content of our research has five parts: The Concept of a Culture City, Cases of a Culture City, the Character Analysis of Jinju, Programs of a Korean Culture City, and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Korean Culture City. The main content of this document includes specific strategies for the creation of a Korean Culture City, necessary laws, the implementation system, and potential city-wide programs.

A Korean Culture City that is based on the humanities means the creation of a healthy community where citizens can enjoy a better life through well-blended literary, historical, philosophical, artist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This document is focused on development programs that are used as a software for the recovery of humani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not as an investment in cultural facilities as hardware. We grasp the virtues of existing Culture Cities. This, combined with our knowledge of tradition and our personal situation, lead to our creation of this new model. Furthermore, we project that we will widen participation in the Culture Korea project through this research of the Korean Culture City model.

Jinju, as an object of research, currently possesses all of the necessary criteria needed to become a successful culture city: a fine natural environment, a local cultural infrastructure, a rich cultural heritage, well-established local festivals, a distinctive populace, and current city policies.

Therefore, we anticipate that if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join with the participation of its citizens, Jinju will become a successful and well-developed Korean Culture City. We also believe that by increasing the number of Korean Culture Cities we will begin to eradicate regional conflict and build a more united Korea through the humanistic spirit.

| 참고 문헌 |

- 권수미. “부산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밍의 성과”, 『영화』,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08.
- 권영규. “문화도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도시문제』, 6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6.
- 김기곤. “문화도시의 구성과 공간정치 연구”,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8.
- 김덕현. 『환경·역사친화적 21세기 경남문화 비전』, 탑프린트, 1999.
- 김동완 외.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런던 옥스턴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1호. 한국정책학회, 2013.
- 김복순. “문명의 교류와 갈등: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위상 제고와 경주세계문화 Expo의 방향성”, 『대구사학』, 73권, 대구사학회, 2003.
- 김세용. “도시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도시”, 『문화도시조성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07.
- 김육. “다문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 『도시문제』, 48권 535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 김은경. “도시문화프로젝트: 금천예술공장 예술과 산업단지가 만나다”, 『도시문제』, 47권 52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 _____. “도시문화프로젝트: 수유마을시장 프로젝트 전통시장이 마을의 문화 허브가 되다”, 『도시문제』, 47권 522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 _____. “도시문화프로젝트: 통영 동피랑 변화마을”, 『도시문제』, 47권 52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2.
- 김인 외. 『도시해석』, 푸른길, 2006.
- 김진근 외. 『마산시 문화산업육성 기본계획, 마산시 (재)마산밸리, 2008.
- 김현호. “도시문화의 다양화와 -도시 안전망”, 『도시문제』, 48권 536호, 대한지방행

- 정공제회, 2013.
- 김효정.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_____. “문화도시-프랑스 리옹”, 『도시문제』, 9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 _____. “문화도시의 환경과 시설”, 『도시문제』, 41권 446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6.
- 김효정 외.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남영우. 『글로벌시대의 세계도시론』, 법문사, 2005.
- 노형규. “지방 중소도시의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1.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엮음.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데이비드 트로스비(성제환 역). 『문화경제학』, 한올아카데미, 2004.
- 도시생태 네트워크.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픽셀하우스, 2009.
- 도시재생사업단.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한올, 2012.
- 라도삼. 『지속가능한 성장과 문화도시』, 민족예술, 2004.
- _____. “문화환경의 창출과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문화환경논총』, 제17집, 2005.
- _____. “문화도시: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41권 446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6.
- 라도삼 외.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 _____. 『21세기 경상남도의 문화정책』, 경남발전연구원, 2000.
-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시대를 열다-문화가 있는 삶』,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2013.
- 민말순. 『경남의 문화도시 육성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8.
- 박복재 외. 『도시브랜드마케팅』, 전남대출판부, 2010.
- 박석봉.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 사찰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9권 1호,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3.
- 박석훈 외. “도시환경을 위한 색채경관 개발 연구-청주시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구 서울디자인포럼학회), 2013.

- _____ “공공디자인 수립 및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연구-남양주 보금자리 주택지구
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구 서울디
자인포럼학회), 2013.
- 박용남. 『꾸리찌바 에필로그』, 서해문집, 2011.
- 반상철.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의 조건과 전략에 관한 연구”, 『호서
문화논총』, 제22집, 2008.
- 박지선. “축제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성격 및 방법론”,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5집,
2009.
- 박혜자.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리와 전략”, 『도시행정학』, 제13권 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0.
- 사사키 마사유키 외(이석현 옮김).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 미세움, 2010.
- 서민호 외. 『문화지표를 활용한 한국 주요 도시의 문화생산력 비교 연구』,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 2007.
- 서순복. “문화수도 선정을 통한 도시 장소마케팅 전략 활동의 연구: 영국 글래스고우
문화수도선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2006.
- 서준교. “도시의 경제·사회혁신에 있어 문화도시 건설의 중요성 연구”, 『2005년 영·호
남 공동학술대회자료집』,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
- _____ “문화도시전략을 통한 도시재생의 순환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
스』, 제13권 제1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 성종상.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과 전략 연구”, 『문화정책논총』, 17권, 한국문화관광정
책연구원, 2005.
- 송희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기획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
24집, 2012.
- 양만규. “전통문화 공간의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경
영연구』, 47권, 관광경영학회, 2011.
- 오민근. “해외 창조도시 사례 및 시사점”, 『국토』 Vol.322, 국토연구원, 2008.
- 오정숙. “유럽연합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프랑스의 역할과 전략”, 『프랑스문화예술
연구』, 제34집, 2010.

- 우무상. “프랑스의 지방문화 정책-지방문화 촉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방분산 및 지방분권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3집, 2003.
- 원도연.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력에 관한 연구: 경주, 춘천, 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0.
- _____.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 한국학술정보, 2006.
- 유승호.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신사, 2008.
- 윤이중 외. “문화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개발전략: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52권 1호, 한국체육학회, 2013.
- 윤지영 외. “부산시 도시문제 완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권 1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구 서울디자인포럼학회), 2013.
- 이무용.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한 문화적 재고찰: 도시공간의 문화적 기능강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정보』, 247(1), 2002.
- _____. 『공간의 문화 정치학』, 논형, 2005.
- _____. “도시와 문화”, 『도시해석』, 푸른길, 2006.
- 이병량 외. “정부의 문화투자는 도시경제를 발전시키는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2.
- 이상호. 『도시성장관리와 도시경쟁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 이소영. 『지역문화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1999.
- 이영범. 『도시담론으로서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전략을 통한 도시재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이장훈. 『유럽의 문화도시들』, 자연사랑, 2001.
- 이종상. “서울 신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복지정책』, 제19집, 2005.
- 이창언. “역사문화도시의 조성 방안에 관한 일고-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2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 이희연.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마케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 8(2), 2005.

- _____ “창조도시:개념과 전략”, 『국토』, 8월 통권 322, 2008 .
- 임성기. “탈영토화/재영토화의 거대도시 공간 ‘2010년도 루르 문화수도’ 연구”, 『독일어문학』, 62권 0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13.
- 임근욱 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문화와 도시관광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권 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3.
- 임상오. “창조형 경제시대의 도래와 창조도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이플러스에드, 2006.
- 임송미 외. “문화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유니폼 디자인 개발-‘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중심으로”, 『복식』, 63권 4호, 한국복식학회, 2013.
- 임학순 외.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 전경구. 『현대도시구조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 전영욱. 『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3.
- _____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 _____ 『新문화도시 전략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정상우. 『도시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정우양 외. 『유럽생태문화도시 읽기-스트라스부르, 프라이부르크, 뤼뒤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 정은혜. “지역이벤트로 인한 도시문화경관 연구: 부산국제영화제 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권 2호, 2011.
- 조희숙. “지방화시대의 문화정책과 그 혁신방안: 전주 전통문화중심 도시화 육성사업”, 『영남학』, 5권,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 주정민 외. 『문화도시의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글래스고, 빌바오, 도크랜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 진양명숙. “문화도시 기획의 의미와 해석”, 『지역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2007.
- 진종현 외.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의 방향설정 및 추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 채경진. “문화도시 구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2007.
- 한국디자인진흥원, 『도시이미지 개선 사례모음집』, 2001.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 건설교통부, 2006.
- 한국일보 문화부, 『소프트시티』, 생각의 나무, 2011.
- 황기원, “문화환경 가꾸기의 새로운 지향”, 『21세기 선진문화환경조성을 위한 문화환경 가꾸기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2002.
- 황기원 외, 『문화환경가꾸기 매뉴얼·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3.
- Boris G. “La reconversion d’un espace productif au coeur d’une métropole : l’exemple de la Friche de la Belle de Mai à Marseille”, *Rives Méditerranéenne*, № 38, 2011.
- _____ “Ville et création artistique. Pour une autre approche de la géographie culturelle”, *Annales de Géographie*, № 660-601, 2008.
- Claud J. & Lauren A. “Les friches : espaces en marge ou marges de manoeuvre pour l’aménagement des territoires?”, *Annales de Géographie*, № 663, 2008.
- Evans, G.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2005.
- Fabrice L. *Friches, laboratoires, fabriques, squats, projets pluridisciplinaires... Une nouvelle époque de l’action culturelle*, Rapport à Michel Duffour,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 Fabrice T. “Les friches culturelles: de l’expérimentation artistique l’institutionnalisation du rapport au(x) public(s)... et inversement”, *Les arts de la ville et leur médiation*(Communication au colloque), 2002.
-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A member of the Perseus Books Group, 2002.
- Griffiths, R.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
- Elsevier Science*, 12(4), 1995.
- Landry, C. *The Art of city-making*, London, Earthscan, 2006.
- Landry, C. & Bianchini, F. *The Creative City*, London: Demos, Comedia, 1995.
- Lauren A. “Temps de veille de la friche urbaine et diversité des processus d'appropriation: la Belle de Mai(Marseille) et le Flon(Lausanne)”, *Géocarrefour*, Vol. 81/2, 2006.
- Marie-Hélène P. & Marie V. “Les friches culturelles, genèse d'un espace public de la culture”, *Culture & Musées*, № 4, 2004.
- Marie V. & Patrice L. *Arts en Friches. Usines désaffectées, fabriques d'imaginaires*, Les Editions Alternatives, 20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3-09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문화도시』 실현 방안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안세영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Tel. 02)571-0002 Fax. 02)572-4092

인 쇄 알래스카인디고(주) Tel. 02)2277-6777

ISBN 979-11-5567-016-3

ISBN 979-11-5567-007-1 (세트)